•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688 호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7월 16일(음력 6월 14일) 수요일(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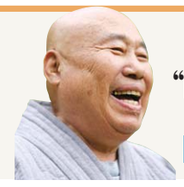
"직장에서 부처님 뜻 실천"
5 직장직능 신행단체 임원 수련대회



다시 찾은 '백제의 미소'
12 마애삼존불 보존 처리공사 완료



선암사 해우소서 깨닫다
13 정승호 시인과 함께하는 사찰기행



"마음 쓰임은 자신에게 달려"
17 선지식-대덕사 달마선원 지원 스님

"정교분리 법제화 시급"

정부 잇단 종교편향 행위에 불교계 우려 목소리 높아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해 국교의 부정과 정교분리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정교관계는 분리와 상호존중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종교계가 평화적 촛불집회문화를 위해 나서면서 종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종교편향행위로 종교권력의 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런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7월 8일 만해 NGO센터에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현주소'라는 심포지엄을 열었고, 계간 <불교평론>은 최근호에서 '종교와 정치권력'이란 주제의 특집을 실었다. 불교단체시국법회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수경)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주권재민 · 정교분리의 헌법정신 구현'을 목표로 상설조직으로 개편되는 등 불교단체들의 종교편향 불식을 위한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정교분리와 종교편향문제 등에 대한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종교권력의 대두=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평론>에 발표한 '종교권력 현상의 문제점'이란 논문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사회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교권력 현상이 발생했고 또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신교 연줄은 '고소영'이라는 신조어에 등장하는 소망교회 인사들이 인수위 단계부터 다수 참여하는 등 '정치권력-매개-종교권력' 현상을 보였다"며 "국가나 정치가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구(호남신학대) 교수는 '교회권력과 정치권력, 그 만남과 갈등의 역사'라는 논문에서 "종교와 국가는 자신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건전한 감시의 시선과 비판적 충고를 하는 긴장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종자연 '정교분리 현주소' 심포지엄 개최
시국법회추진위 종교편향 불식 활동 나서

▲교회투표소 선정문제=종자연 심포지엄에서 허진민 변호사는 '종교시설투표소로 바라 본 공공영역 종교자유'란 발제에서 17대 대선 교회투표소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편리성만을 강조한 선관위의 전국 1,160개에 달하는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로 인해 정교분리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종교적 요인으로 투표율이 감소해 대의민주주의 또한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선관위 교회투표소 선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런 헌법소원청구는 특정종교 투표수 문제가 차후 선거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위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학내 종교자유=김기현 변호사는 종자연 심포지엄에서 '사립학교 종교교육과 종교자유침해에 대하여'란 발제를 통해 "현행 헌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종교교육은 반드시 복수선택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며 "대광고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내용의 교육이라도 그것이 강요될 때는 교육으로써 의미가 없다"며 "정부에서 학생인권 침해요소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행해 종립학교의 종교 강요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종교편향=종자연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의 '종교와 종교자유에 관한 법학자(1500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조인들은 공직자의 정교분리 위반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가 근무시간 중 사적으로 특정종교행위를 주관하는 행위'가 정교분리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95%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난하는 행위'가 정교분리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80.1%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대답해 공직업무 외 사적업무에도 공직 신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효원 연구원은 논평에서 "최근 시국미사, 예배, 법회 등 종교의 사회참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직자의 중립과 정교분리를 위해서는 급변하고 있는 종교계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종교관련 법이 제 ·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편향 감시활동=시국법회추진위원회는 7월 8일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독선, 종교적 갈등고조 등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동과 정책을 끊이지 않고 있고, 이는 임기 중 계속될 개연성이 매우 커 지속적으로 종교편향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는 9일 "국가공무원법에 종교운동 금지 조항 추가, 초중등교육법에 종교강요 행위 등 금지 조항 추가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법개정 후 공직자 종교편향 매뉴얼 제정과 대통령령 및 국무총리령 공포와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한 교육자료 발간 및 교육실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우·노덕현 기자



더위도 잊고 세월도 잊고

연일 폭염이다. 바닷물로 산문을 열고 닫는 충남 서산시 간월암에 낙조가 찾아든다. 더위도 세월도 잊었던 것일까. 7월 9일 더위를 피해 간월암을 찾은 관광객이 밀려오는 바닷물에 두 발을 적시며 아쉬운 듯 간월암을 나오고 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국토부 또 사찰 누락

'알고가' 시스템 이어 경관보존대상서도 제외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킨 국토해양부의 '알고가(www.algoga.kr)' 교통정보 안내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한 데다, 전국 경관 보존대상에서 전통사찰들이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가 다시 반발하고 있다.

정종환 장관의 공개사과로까지 이어진 '알고가' 싸이트의 사찰정보 누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에 따르면 알고가 싸이트에서는 아직도 태고종 총무원이나, 진각종 통리원은 물론 사찰이나 심인당, 불교방송 등 주요기관들은 아예 찾을 수 없거나 잘못 등재돼 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알고가'에 버금가는 종교편향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토의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소관 경관법과 관련지침 대상에서 전통사찰이 모두 빠진 것. 7월 10일,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에 따르면, 국토부의 경관자원 관련 대상 등에는 서원과 성곽, 근대 건축물까지 올라있지만, 역사문화 경관자원에 해당되는 전국 930개 전통사찰은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0일,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관계획 수립지침이 의도적으로 전통사찰을 역사문화경관자원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며 성곽과 서원, 근대건축물 등으로 나열한 것은 예시적인 규정일 뿐"이라며 "불교계가 전통사찰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할 경우 올 하반기로 예정된 경관지침 개정시 '역사문화경관자원'에 전통사찰을 직접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우·조동섭 기자

새 연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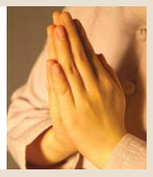
월운 스님의 '경전 이야기'
-15면(금주부터 격주)

우리시대의 대강백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이 경전 이야기를 풀어 놓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경전을 자주 접하지만 의외로 경전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지 못합니다. 경전의 기원과 구성 요소는 물론 각각의 경전이 갖는 특징과 핵심을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월운 스님의 '경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4면(금주부터 매주)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은 평생을 경전 연구와 신행 활성화 및 포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에 귀의해 수많은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구하고 경학 연구와 수행 실참을 해 왔습니다. 사회와 교단에 이름이 난 스님은 물론 조용히 수행의 본분을 지켰던 선지식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 생생한 활어(活語)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석과 올이온, 약알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값 245,000 | 02)723-0909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 관불수향
전단향이 그윽한 향탕수로 관불,관욕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향 · 조각 · 공양물 02)3663-6777

사 과 문

불자 및 국민 여러분께,

수도권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알고가(ALGOGA) 시스템'의 전자지도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찰 명칭이 누락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자 및 관계자, 알고가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은 시스템 운영기관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업데이트된 지도를 이용하여 지난 6.9일부터 시범서비스 및 보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찰 명칭이 지도상에 표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자 여러분께 적지 않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불편부당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특정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자 및 알고가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08. 7.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 종 원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태안 바닷가의 민심

2008년 7월 어느 날, 작렬하는 태양 아래 빛나는 태안반도 만리포 앞바다는 블루오션(Blue ocean)이었다. 조개껍질 줍는 사람, 해수욕 하는 사람과 널린 그물에서 먹이를 뒤지는 갈매기를 보면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다.

6월 27일 천신만고 끝에 만리포 해수욕장이 개장됐다. 겨우내 찬바람 맞으며 1만 5000톤의 기름을 걷어낸 자원봉사자 덕분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직접 자원봉사에 나섰을 만큼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도 가득했다. 불교계에서는 태안 바다 살리기와 함께 성금도 모아 전달했다.

6월 15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은 태안지역사암연합회의 도움으로 1억3000만원을 장학금과 피해복구기금으로 나눠 400여명의 태안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귀한 불자들의 보시금이 가구별로 30만원 혹은 37만원씩 전달된 후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지역스님들에 따르면 "옆집은 성금을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 "애가 없는 것으로 해서 장학금 말고 금액이 큰 피해복구기금을 달라"는 등의 항의성 전화에 한동안 곤욕을 치뤘다고 한다. "돈 못 받아 개종하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물론 대다수 주민들은 감사히 성금을 받았을 것이다.

<화엄경> '이세간품'에는 ▲평등한 보시 ▲자기 뜻에 의한 보시 ▲산란심 없는 보시 ▲받을 이를 헤아린 보시 ▲대상을 선택하지 않는 보시 ▲한결 같은 보시 ▲마음과 물질이 하나된 보시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보시 ▲중생을 교화하는 보시 ▲보시자와 보시 받는 이, 보시물이 원만하고 청정한 보시 등을 보살의 10가지 청정한 보시로 나열했다. 불교계의 보시 정신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음' 보다 '물질'이 우선일 수 밖에 없었던가 보다.

6월 31일 5000여명의 개신교 봉사단은 태안 곳곳에 걸린 "한국 교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플랭카드처럼 태안 주민들과 함께 있었다. '다시 서는 서해안 만들기-위로와 소망의 날' 행사를 열고 그들만의 디아코니아(나눔)를 실천하기 위해 숙식까지 하며 태안 민심을 달랬다.

이보다 앞선 6월 25일 만리포에서는 수덕사 스님들이 기름유출로 죽어간 수많은 미물 등 유주무주 고혼들의 천도 수륙용왕대재를 봉행했으나, 중생은 보이는 것만 믿기 마련이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다. 스님들이 천도재로 영가를 제도했다면 이제는 재가불자들이 태안지역을 찾아 산 중생을 위해 보시할 차례다.

판사님 '문화재보호법' 모르시나요?

동두천 주민 '자재암 문화재관람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訴'

의정부 지법 "관람료 징수 부당" 판결에 조계종·사찰 반발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조계종과 해당 사찰이 관람료 징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란의 발단은 동두천 주민 15명이 지난해 5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말사인 동두천 자재암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 의정부지법은 6월 4일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 요금을 징수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요산의 등산코스가 반드시 사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찰(자재암)이 매표소를 지나 일주문을 통과하고도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큼 사찰을 통과하거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들이 안내문 등을 통해 동두천 시민은 요금 면제 대상인 점을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민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봉선사와 말사인 소요산 자재암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한 관람료 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봉선사와 자재암은 7월 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소요산의 95%, 매표소에서 정상까지는 모두 자재암 소유의 토지로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사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보호법 44조 2항은 문화재의 소유자나 보유자, 관리단체에게 관람료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관람료 징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도 "개별 사찰의 재산권과 자위권 차원의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다"고 지적했다.

두 사찰은 "관광지 특성을 감안해 홍보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동두천시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재암은 12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동두천시와의 관리협약에 따라 다음달부터 1000원으로 하향해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민사3 단독 재판부는 6월 4일, 경기도 동두천주민 15명이 소요산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로부터 징수한 요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성우 기자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 문 활짝

2년 3개월만에 공사 완료…고아 보육시설·유치원 등 조성

조계종의 첫 해외 복지시설인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이 2년 3개월여의 공사 끝에 문을 열었다.

조계종과 스리랑카 정부는 7월 8일 스리랑카 감빠 지방 파살라 현지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원로의원 명선·혜승 스님, 한국과 스리랑카 불자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 복지타운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04년 지진해일 피해민을 돕기 위한 한국 불교계의 희사가 오늘의 회향을 낳았다"며 "스리랑카는 물론 세계불교 유대가 강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타운 운영사찰로 지정된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조계종은 지난 2004년 12월 발생한 쓰나미 피해 아동들을 돕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시설공사에 들어갔다"며 "개관법회를 시작으로 부처님의 자비실현을 이곳에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복지타운은 8만2천500㎡의 부지에 60여명의 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건물 5개동과 유치원 1개동, 행정동, 직원숙소 등으로 조성됐다.



7월 8일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 개관식을 가진 한국 및 스리랑카 스님과 고아들. <사진=공동취재단>

포교원, 소규모사찰 연합캠프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불교학교나 여름캠프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찰을 대상으로 여름맞이 연꽃어린이 연합캠프를 개최한다.

포교원은 대한불교진흥원과 불교방송의 후원으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어린이 100여명씩이 참석할수 있는 '2008 연꽃 어린이 연합캠프'를 갖는다.

충북 괴산군 청전면 다보수련원에서 열리는 이번 법회에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법회 운영사찰이면 참가할 수 있다. (02)738-7860

김성우 기자

천태종, 영통사서 백중 천도법회

성지순례 정례화 추진

천태종이 북한 개성 영통사에서 백중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영통사 성지순례의 정례화를 추진중이다.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는 "현대아산과 8월 13일 개성 영통사에서 백중천도법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통사 천도법회 참가규모는 최대 500여명으로 참가신청은 천태종 종단 홈페이지(www.cheontae.org)를 통해 7월 25일까지 가능하다고 운동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백중 법회 이후인 9월부터는 매달 한차례씩 영통사 성지순례를 정례화하기 위해 현대아산과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02)730-2401

김성우 기자

법타 스님 공권정지 2년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에게 초심호계원이 공권정지 2년을 판결했다. 초심호계원은 7월 8일 제59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호법부로부터 징계가 회부된 사건 14건, 스님 14명에 대해 판결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관련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호법부로부터 공권정지 3년을 구형받은 법타 스님은 공권정지 2년의 판결이 결정됐다. 법타 스님은 30일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은해사 주지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침술,기공,최면,빙의,퇴마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예약은 사전 7일전에 하셔야 합니다.
- 절망적인 마음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1기 단전호흡 · 명상 · 최면 수강생 모집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장기 기증은 대승보살행"

생명나눔, 장기이식 인식전환 세미나 개최

"장기 기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것은 대승보살행이다." "보시 가운데 신체 각 부분을 보시하는 공덕이 가장 크다."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말하는 2007년 8월말 현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2만여명. 이 중 장기이식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이는 1200여건이고, 이들에게 장기를 제공한 뇌사자는 106명에 불과해 장기 기증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자 장기 기증 희망자는 전체 불자의 10% 뿐이다. 이는 이웃종교인 60%가 장기 기증을 약속한 수치와 비교해 초라하다.

이런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본 장기기증'을 주제로 연 세미나는 장기 기증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

세미나는 우희종 교수(서울대)와 이수덕 회장(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의 발표에 이어 박광서 교수(서강대)를 좌장으로 곽만연 교수(동아대), 박병기 교수(한국교원대)가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우희종 교수는 '생태적 사고와 생명나눔'이란 논문을 통해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대승적 보살이라는 관점에서 교계가 장기이식에 관해 적극적 입장"이라 소개했다. 우희종 교수는 "연기적 관계로 본 생명나눔은 입전수수 하는 자세로 즐겁게 동체대비 하는 보살행"이라며 장기이식과 장기 나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수덕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본 생명나눔'이란 글에서 장기기증에 관한 전거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금강경> 제1분의 '환지본처(還至本處: 본래의 자리로 돌아옴)'의 본처가 바로 동체 혹은 법계일상(法界一相)을 깨닫는 자리"라며, "동체사상의 견지에서 장기기증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닌, 내 몸 일부분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자리바꿈 하는 것뿐이다. 장기기증이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보시행으로 장기기증을 설명한 이수덕 회장은 "보시 중 신체 각 부분을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크다. 참다운 보시행을 하는 불자라면 장기기증도 주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마음가짐도 강조됐다. 이 회장은, "환우들이 속히 자기 차례가 와 장기이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은연 중 다른 사람의 죽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수덕 회장은 "장기기증 대기자에게 의업(意業)을 짓게 할 수 있다"며, 단순한 장기기증 이상의 교화를 거듭 강조했다.

곽만연 교수는 "한국 환우들이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장기기증은 뇌사상태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투철한 자비정신으로 유교적 육체관을 극복하고 이웃을 위해 장기기증이라는 자비행을 실천하자"고 역설했다.

박병기 교수는 "불교윤리는 자신의 내면을 향한 깨달음의 윤리와 자신과 인연 맺은 모든 존재자들에 대한 자비의 윤리로 나뉜다"며, "장기 이식을 권할 불교윤리적 근거는 자비와 보시"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촛불집회 수배자를 연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 전·의경들에게 조계사 종무원이 미숫가루를 권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상생의 미숫가루 드세요"

조계사, 촛불집회 수배자·경찰에 전달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7월 10일 경내에서 농성중인 광우병 국민대책위 수배자들과 조계사 인근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전 · 의경들에게 '상생의 미숫가루'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전 · 의경들은 자유청년연대 등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미숫가루를 마시지 못했다.

7월 11일 현재 조계사로 피신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대책회의 간부는 박원석, 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과 안티이명박카페 백은종 부대표, 한국진보연대 김동규 정책국장, '미친소닷넷' 백성균 대표 등 6명이다.

노덕현 기자

'北동포 돕기' 100만인 뜻 모은다

정토회, 식량 지원·북한경제발전기금조성 위한 서명운동

사단법인 정토회(이사장 법륜)는 7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굶주리는 북한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발대식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정토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정부는 식량 20만톤을 조건없이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북한경제개발을 위해 남한정부예산 1%를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동의와 참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온 · 오프라인에 걸쳐 100일동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또 "북한은 9월까지 식량지원이 안될 경우 5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남한정부가 아닌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주도로 구호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며 "동포로써 그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고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7월 8일 열린 북한주민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이어 정토회는 선언문을 통해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빈그릇운동'과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쓰는 절약운동도 함께 전개해 운동으로 모인 모금을 북한식량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정토회는 이날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국내 12개 지역과 LA, 뉴욕, 워싱턴, 시애틀, 프랑크푸르트, 방콕, 북경 등 해외 14개 지역에서 북한의 상황을 알리고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온라인(www.jungto.org)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는다.

노덕현 기자

백제 삼중기단 목탑지 구조 부여문화재연구소서 밝혀

백제 삼중기단 목탑지와 금당지 등 익산 제석사지의 실체가 드러났다. 제석사는 백제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해 세운 백제 왕실사찰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 이하 연구소)는 7월 10일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 405호)에 대한 2008년도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2008년 발굴조사를 통해 정교한 판축으로 만든 삼중기단 목탑지, 화려한 인동당초문 암막새로 장식된 금당지 등이 발견됐다"며, "제석사가 1탑 1금당의 가람배치를 한 전형적인 백제 왕실사찰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2007년 6월 22일 시작된 발굴조사는 제석사 규모 및 존재양상, 각 유구들의 축조방법을 밝혀내고, 왕실사찰 존재 규명, 정비 복원 자료 등을 목적으로 실시해 제석사 실체에 근접한 성과를 얻었다.

조동섭 기자

"케이블카 추진사업 대응 종단차원 강력대책 필요"

전통사찰이 속해있는 한라산과 월출산 등 전국 명산에 대한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사업추진에 대해 종단호법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능원)는 7월 1일 '전국 명산 케이블카 설치 대책촉구'라는 종책의견서를 통해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성스런 가르침을 외면하는 전국 명산의 케이블카 설치대책 마련을 종단에 촉구했다.

연구소는 의견서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로 사찰이 관광유락지로 전락되고 훼손됨과 동시에 불교에 대한 위상과 권위 추락, 정부와 지자체 상업주의에 불교가 희생된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연구소는 "전국 11곳에서 추진중인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호법차원에서 개발정보 수집과 대책수립, 환경부에 대한 불허압박을 종단이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사찰들도 수행환경보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연과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자료를 정리할 것과 지역 환경단체와 연대한 반대운동, 주민불자와 함께하는 법적대응 등을 촉구했다.

김성우 기자

'시국법회추진위' 상설조직으로

매주 1회 법회 봉행키로

'시국법회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수경)가 상설조직으로 개편된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는 7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7 · 4 시국법회를 주관했던 시국법회추진위원회를 상시조직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7월 16일 오후4시 조계사 대웅전 앞 '108참회 시국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한 번씩 법회를 봉행한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지속될 이 상설조직은 '주권재민 · 정교분리의 헌법정신 구현을 목표로 한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독선, 종교적 갈등고조 등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동과 정책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는 임기 중 계속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조직재편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 정권은 민의를 돌리기 위한 진지한 소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해양부 장관, 경찰청장 교체 ▲촛불집회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정책 제시 ▲공직자의 정교분리 원칙 준수 ▲ 반생명적 쇠고기 섭취 반대 등을 촉구하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 비구니 통학 강원 –

◆ 학장 : 석도기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은 제천 금강사를 창건하여 여성불자 교육도량으로 부설하고 아래와 같이 통학 학인을 모집합니다.

◇교육시간 :
매월 음력 10일 오후 2시~ 음력 11일 정오 12시
매월 음력 20일 오후 2시~ 음력 21일 정오 12시

◇개 강 일 : 음력 7월 20일 (양력 8월 20일)

◇교육내용 : 전통강원에서 교육하는 사미, 사집, 사교, 대교 과목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며 의식교육을 필요에 따라 지도하고 특강을 통해 부족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 : 2년(강의를 녹음한 통신교육도 가능함)

◇강 주 : 활안 한정섭스님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전화 겸 팩스 043)646-3800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학원

◆ 원장 : 활안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08년 9월 8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범패 및 작법무
사물다루는 법 등 전반교육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개 강 : 2008년 9월 4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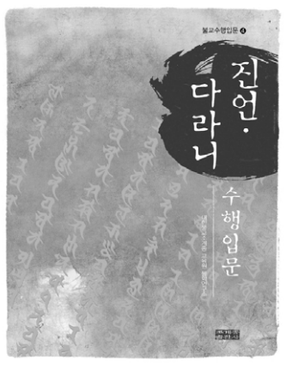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969-4881 / 팩스 02)964-2433

“주력수행 쉽게 배워보세요”

조계종 교육원 ‘진언·다라니 수행입문’ 도서 출간

“천수다라니를 그냥 읽기만 하고, 외기만 하면 수행이 되는 걸까?” “능엄주는 수능엄삼매 경지를 열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천수경> <능엄경> 등에 담긴 다라니 수행법을 제시한 책이 종단 차원에서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이 7월 4일 출간한 <진언 · 다라니 수행입문>(조계종출판사)은 간화선, 염불, 진언 · 다라니, 간경의 조계종 5대 수행법을 일반인들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불교 수행 입문 시리즈’의 네 번째 도서다.



이 책은 진언 · 다라니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 진언 · 다라니 수행의 실제와 수행절차, 공덕 등을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다.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은 “주력수행은 불교의례와 수행법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전통이지만 종단 차원의 주력수행 입문서가 없었다. 주력수행하는 불자들을 바른 수행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2008년 하반기 <간경 수행입문>을 끝으로 ‘불교 수행 입문 시리즈’를 완간할 예정이다.

▲천수다라니 수행은 이렇게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천수다라니. 많은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의지해 가피를 얻으려고 이 다라니를 독송한다. 천수다라니는 왜 설해졌고, 어떻게 수행해야할까?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응축한 천수다라니는 자비심, 평등심, 무위심, 공경심, 무상보리심, 공관심, 무견취심, 무염착심, 무잡란심의 9가지 마음을 알기 위해 설해졌다. 천수다라니 독송의 근본 목적은 독송자가 9가지 마음을 알아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천수다라니의 올바른 수행법은 무작정 외는 것이 아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지송하는 것이다.

천수다라니 수행법은 준비 · 예경 · 발원 · 참회 · 염송 등으로 나뉜다. 재가자를 위한 수행법은 다음과 같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재가자를 위한 수행법

- 진언 수행 장소를 깨끗이 하고, 언행과 마음가짐을 청결히 한다.
- 수행 장소에 관음보살상이나 석가모니불 등을 모신다. 여의치 않으면 불상을 관상(觀想)해도 무방하다.
- 수행 전 3일이나 7일 등 일정 기간 동안 계행 실천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 기도 공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곳을 성스럽게 생각한다.
- 다라니를 외우기에 앞서 여러 불보살과, 천신들 또는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한다.
- 간절한 마음으로 원을 세우되, 큰 자비심을 일으켜 남을 위해 기도한다.
- 다라니를 염송할 때는 다라니에 마음을 집중에 염송한다.
- 다라니 공덕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 기도가 끝나면 자신의 과거 잘못을 참회한다.

김천에 직지사노인요양원 개원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등 대상…치료·여가시설 구비

경북 김천시에 불교 노인요양시설이 문을 연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는 7월 16일 오후 1시 30분 직지사노인요양원(원장 성언) 개원식을 봉행한다.

직지사 인근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황악산 자락에 위치한 직지사노인요양원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건물은 975m²의 지상 2층 규모이며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등 입소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일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갖췄다. 개원에 앞서 이미 40여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는 개원식은 국악한마당 등 식전행사에 이어 축사와 인사말 등으로 진행된다.



7월 16일 개원하는 직지사노인요양원.

원장 성언 스님은 “복지혜택의 어두운 그림자 뒤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효심과 불심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054)431-9800 김성우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국내 이주민 산사워크숍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외국인 이주민들을 끌어안기 위한 산사워크숍을 개최한다. 7월 19~20일 서울 진관사에서 국제결혼 이주민을 위한 ‘제9회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 워크숍’이 바로 그 것.

국제결혼 가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음악치료(토브음악치료연구소 채경수), 참선과 미술치료(정순영 미술치료사), 다도, 웃음치료(한국웃음복지연구소 이정호), 명상 등으로 진행된다. (02)737-8803

김성우 기자

천태종 교원불자 수련법회

천태종이 종단 산하 교원 불자와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련법회를 잇달아 연다.

천태종은 7월 29~31일 인천 황룡사에서 제23회 전국교원불자하계수련법회를, 7월 30일~8월 1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9회 종단산하 직할 유치원 교직원 수련법회를 각각 개최한다. 김성우 기자

“불교 배우며 더위 잊어요”

파라미타 청소년캠프

올 여름 청소년들이 불교를 느끼고 배우는 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는 7월 22~25일 3박4일간 전남 화순과 광주에서 제11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한다.

‘푸른 마음 밝은 꿈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소년캠프는 승보사찰 송광사 탐방을 비롯해 광주 전통놀이연구회가 주관하는 전통놀이체험과 5 · 18국립묘지 참배, 담양 죽록원 견학,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아쿠아나 수상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광주시장상 등이 걸려있는 백일장과 교법사단이 주관하는 신행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지역 예선 심사를 거친 음악페스티발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를 발산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음악페스티발의 대상자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접수 · 문의는 전화와 홈페이지(www.paramita.or.kr)로 가능하다. (02)723-6165

노덕현 기자

만해마을 청소년시인학교 8월 12일부터 2박3일간

무소유 · 자연 친화 · 생명사상을 펼쳐온 ‘백담사 만해마을’이 8월 12일부터 2박3일간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시인학교를 개최한다.

원로 및 중진 문인의 특강으로 진행되는 창작 워크숍, 백담사 산행과 동해바다 기행,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은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계간 <시와 시학>과 백담사만해마을이 공동 주관하는 만해 시인학교는 기성시인 뿐만 아니라 시인 지망생 및 시를 사랑하는 어른과 학생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7월 10일까지 선착순 접수. (02)744-0110 가연숙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물도 중생에 따라 달리 보여”

〈1〉송강사 추강 대화상❶

추강 스님은 1949년부터 1950년까지, 1955년부터 1956까지 송광사 주지를 두 번이나 하신 분으로, 성은 조씨이고 이름은 봉우이다.

1956년 6월 10일 나는 신들린 사람처럼 낙수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순천역에서 16국사가 난 송광사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길을 물으니, 한 노인이,

“16국사만 나요. 앞으로 도인이 두 분이 더 난다고 합니다.”

하였다. 호기심 아닌 호기심 때문에 낙수행 버스를 타고 전남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조계산 송광사에 이르니, 15세 정도 되어 보이는 동자가 다가와서 물었다.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지나가다 절 구경 왔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하고 길을 안내한다. 상사당 밑 하사당으로 가니 훤칠한 키에 불그스레한 얼굴을 한 자비스런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 주었다.

“먼 길을 오느라 고생 많았네. 우선 후원에 가서 저녁공양을 하고 오게.”

말씀대로 후원에 갔으나 목기에 칠 냄새가 가득 배어 울컥 비위가 거슬려 입맛만 다시고 그냥 돌아왔다.

“오늘 저녁은 늦었으니 그냥 자고 내일 이야기 하세”하고 윗방에 자리를 깔아주셨다.

새벽 3시, 목탁소리가 나더니 종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놀라 깨어 보니 아랫방에 호롱불이 켜져 있고, 노스님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점잖게 앉아 계시다가 나갔다. 장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보조 국사의 <정혜결사문>이 놓여져 있었다.

“땅을 인해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인해 일어나야 하고, 마음을 잘못 써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고쳐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나는 당시 오순절 교회를 다니던 신자였으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원죄의 대가로서 받는다’ 생각하였는데, 바로 이 말은 나를 위해 써진 것 같아 큰 충격을 받았다. 이튿날 아침 공양이 끝난 뒤 추강 스님은 상좌 인암 스님을 불러 사찰구경을 시키라 하신다.

중국의 왕세자가 와서 3일 만에 도를 깨쳤다는 삼일암을 중심으로, 나한전, 국사전, 화엄전, 해청당, 법성료, 사천왕전을 지나 6감정에 이르러 말씀하셨다.

“같은 물도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달리 보이므로 6감정이라 한다.”

말하자면 하늘이 물을 보면 유리로 보이고, 고기가 보면 집으로 보이며, 귀신이 보면 불로 보이고, 사람이 보면 물로 보이며, 축생이 보면 먹이로 보이고, 수라가 보면 전쟁의 도구로 보인다는 말이다. 그래서 안경을 벗고 본 세상도 안경을 쓰고 보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절은 고려 때 보조 국사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최첨단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지었는데, 한국전쟁으로 불타 없어지고, 지금 남은 것은 겨우 64동, 그나마 쓸 데 없는 창고와 숙소만 남아 복구사업에 여념이 없다.”

하신다. 이튿날 추강 스님은 노랑 봉투에 두 장의 편지를 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통영 미래사에 가서 하나는 효봉 스님께 드리고, 다른 하나는 취봉 스님께 드리면 알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종단의 긴급한 상황 때문에 효봉 스님이 송광사에 오시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추강 스님은 이듬해 주지 임기를 마치고 오대산 선방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따라 갔다가 스님은 상원사에 계시고, 나는 월정사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계속>

영남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사무국에서는 본 보존회 초대이사장이시고 영남범음범패 및 장엄도량의 보유자이신 문구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판소리, 가곡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성악곡의 하나인 **범패**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존하고 우리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영산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저변인구 확대를 통해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과정(기본 : 6개월) 전문반 1년 (기본과정 수료자에 한함)
  * 성적 우수한 스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 *
- 교육과목 : 사물다루는법 / 각종제반의식
- 작 법 무 : 천수바라작법무, 오공양나비작법무
- 국 악 기 : 법고, 태평소, 대금, 단소,(영산회상, 청성곡 등)
- 개 강 일 : 2008년 7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수시모집)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 대강당
- 접수 연락처(사무국) : 051)327-5095 / 010-2314-1279

각종 사찰행사 본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전수자 스님을 배정하여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보시금 중 일부는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행자(예비스님)모집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부처님은 왕 가운데 왕이시고, 성현 가운데 성현이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



■ 활안 스님

‘왕중왕 성중성’
王中王 聖中聖

‘세계는 한 꽃이요, 만민은 동체(同體)라는 일념(一念)’으로 부처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긴 대장경을 50년간 탐독해온 활안스님 정진의 결실로, 부처님의 일생을 經과 律로써 모든 것을 풀어낸 역작....

■ 활안(한정섭)스님 편저 | 불교정신문화원 | 전 4권 4만 8천원



불교 교리발전의 근거가 된 부처님의 말씀과 일대기를 체계 있게 총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불교의 이치를 밝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른길을 걸으신 부처님의 행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정신문화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금강선원
구입문의 : 02)969-2410

부처님의 일생에 관련된 사진 자료, 여러 경전의 말씀, 승단의 계율 등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 실천해요"

현장속으로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임원 수련대회**

불자회 임원 80여명 참석 김천 직지사서 개최
직장 신행단체 활성화·불법홍포 방안 등 논의



침체된 직장직능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직장직능불자회 임원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수련회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스님)은 7월 5~6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포교원장 혜총, 직지사 주지 성웅, 신도국장 재안 스님과 불자회 임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임원수련대회'를 개최했다. 2001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수련대회는 수련프로그램과 특강, 화합의 장 등을 통해 신심증장과 더불어 각 연합단체 임원진간의 친목 도모와 직장직능불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입제식으로 문을 연 수련회는 '종교환경변화에 따른 신행단체 임원들의 역할'(김영일 포교차장)과 '사상체질에 따른 조직 활성화 방안모색'(류종형 명인서원 대표컨설턴트) 등을 주제로 한 두 차례의 특강, 1080배 참회정진, 화합의 장,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법문, 암자 순례, 참선 등으로 진행됐다.

첫날 입제식에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직장직능 불자들이 발심을 새롭게 하는 수련회를 마련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1박2일 동안 수행과 토론을 통해 다진 원력으로 사회속에서 불법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날 두 차례의 강의 일정이 끝난 후 80여 회원들은 저녁 10시부터 1080배 정근에 도전했다. 하지만 평소 격무에 시달린 중년의 직장 불자들의 체력이 좋을 리 만무하다. 50분간 절을 한 후 10분씩 쉴 때마다 한 두 명씩 포기자가 속출했다. 이튿날 새벽 1시, 1080배를 끝까지 마친 불자들은 30여명. 절을 다 하지 못한 불자들은 염불로 도반들을 응원했다.

1080배 정진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불자들은 불과 3시간의 잠을 잔 후 3시 30분 시작되는 새벽예불에 동참해야 했다. 곧이어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참선실수는 졸린 눈을 부릅뜨며 고요하고도 또렷또렷하게 진행됐다. 번잡한 도심의 세간사를 벗어나 잠시나마 번뇌 · 망상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다. 아침공양에 이은 명적암 순례는 공기 좋은 황악산과 하나 되어 걷는 포행 시간이었다. 아침 산사에서는 그야말로 밥먹고 참선하고 절하고 걷는 시간들이 모두 명상 아님이 없다.

6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신행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짧은 시간임에도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불자회 조직의 체계화와 신행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호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은 "각 단체는 정기법회와 교리강좌, 회원들의 복지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하나로 묶는 One-Stop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젊은 불자회원 확보와 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장수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회장은 "신행단체 대표자들이 종교편향과 같은 중요 사안이 있을 때는 물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신행단체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각 단체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고민과 문제점 등을 해결해 조직적인 포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포교 활성화를 위한 사회봉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도 쏟아졌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이동숙 총무는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기독교 선교의료사업에서 좋은 점은 배울 필요가 있다"며 "이 시대에 부응하는 의료포교 등 보다 적극적인 포교 마인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 정찬연 운영위원장은 "철불협은 98년부터 환경법회와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을 펼쳐 공사내에서 사회공헌도가 가장 높은 앞서가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며 "안전운행 기원법회나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선 직원들을 위한 등달기 등 구성원과 함께 하는 친근한 불자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희 세무사불자회 회장도 "매달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조계사에서 국세청불자회와 함께 합동법회를 보고, 매달 조계사에서 무료 세무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며 "자원봉사가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것이 보살행의 첫걸음임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내리막을 걸어온 직장직능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신도회 임원들의 발언에는 보살의 원력이 묻어나 있었다. 개신교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종교편향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사회 곳곳에서 꿋꿋하게 신행을 펼쳐나가는 직장 불자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했다.

9시부터 이어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법문 역시, "일상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직장 불자들이야말로 이시대의 수행자다"라는 격려를 담았다.

혜총 스님은 "밥먹고, 세수하고, 일하고, 졸릴 때 자는 바로 그 일상생활 속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곧 깨달음이란 의미에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말했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금 직장직능단체 불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며 포교하는 현장의 수행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0명의 원력불자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의 현장을 떠나 적막한 산사에서 불심을 다지며 동체대비의 삶을 발원한 수련회가 더없이 소중한 시간들로 다가왔다. 비록 하룻밤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흙탕 같은 사회 속에서 연꽃 같은 삶을 연출하리란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글 · 사진=김성우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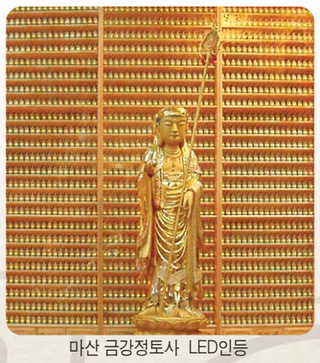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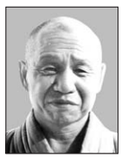

칼라(보카시)연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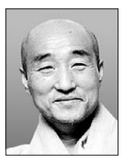
일주문



맑고향기롭게, 북한동포돕기 성금
'맑고향기롭게' 회주 법정 스님은 7월 7일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국제구호단체 한국 JTS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신흥사 운전기사불자회 창립
속초 신흥사 주지 오현 스님은 7월 9일 신흥사 포교당 원각사에서 '신흥사 운전기사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033)636-7044



군산 공군부대 호국법회서 법문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스님은 7월 27일 군산 공군 38전대 호국 군성사에서 열리는 '부대안전 기원 및 초대주지 취임법회'에서 법문한다.



어린이 경제교실 열어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7월 21~25일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씩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어린이 경제교실을 연다. (02)385-1671



'불광장학회' 장학생 모집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불광장학회'를 설립, 7월 20일까지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초등~대학원생이며 총 규모는 2000만원이다. (02)417-2551



대승종 총무원장 도일스님 취임법회
대승종 총무원장 도일 스님은 7월 15일 5시 엠버서더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취임했다.



주경 스님, 환경위원장에 선출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6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제4기 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환경위원장에 선출됐다



성북장애인복지관 개관1주년 행사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 현관 스님은 7월 11일 성북장애인복지관 5층 강당에서 개관1주년기념행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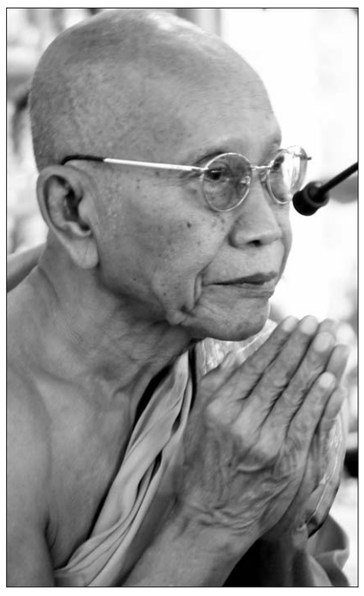
미얀마불교대책위 의류지원 1차 발송
미얀마불교대책위원회 윤천수 위원장은 7월 16일 오후2시 중앙신도회관에서 미얀마 주민에게 의류를 지원하는 1차 발송행사를 갖는다. (02)733-7277



중국 · 미얀마 구호성금 전달
불교TV 구본일 사장은 7월 4일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 미얀마 태풍 참사자와 중국 쓰찬성 지진 참사자의 구호를 위해 모은 성금 4370만여 원을 전달했다.

"불자라는 틀로 양국간 교류 활발해지길"

봉은사서 법문, 캄보디아 대종정 텝봉 스님



"남방불교와 대승불교는 한데 어우러지기 힘든데 이렇게 한데 모여 법회를 연 것은 모두 부처님의 인연입니다. 불자라는 큰 틀로 양국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대종정 텝봉 스님은 7월 6일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에서 열린 초청법회에서 크메르루주 정권에 의해 파괴당한 불교를 재건하기 위해 한국불자들의 도움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는 전체인구 83%가 불교신자인 캄보디아불교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텝봉 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불교학교건설과 학교아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텝봉 스님은 "한국불자들이 캄보디아 불교 및 국가발전을 위해 큰 성원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며 "현재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앙코르와트가 자리한 씨엠립에는 한국어학교가 5군데 설립되는 등 양국 경제교류, 문화발전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날 번역을 맡은 린사로 스님을 지목하며 "그 증거로 캄보디아 한국어학교와 한국어학당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린사로 스님이다"고 말했다.

텝봉 스님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있어서 한국기업의 진출뿐만 아니라 매년 240만 명에 달하는 한국관광객도 큰 힘이다"며 "많은 불자들이 캄보디아를 찾아 큰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봉은사의 장엄한 불사는 찬란한 시대의 앙코르와트 같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은 텝봉 스님은 "우리는 하나이므로 여러분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다.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법문해 청중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법문에 이어 캄보디아 학교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봉은사의 보시금 전달과 텝봉 스님의 답례선물 증정식, 봉은사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있었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캄보디아 종정 텝봉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왓 우날롬 사원에 답방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텝봉 스님은 7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과 캄보디아 불교 교류확대를 요청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자선활동으로 희망을…"

생명나눔 환우 9명에게 온정의 손길



(사)생명나눔실천본부(본부이사장 일면)는 7월 8일 오후 1시 생명나눔 6월의 환우로 선정된 송희진(여 · 26세 · 다발성경화증) 외 9명에게 총 2,325만원의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월간 <불교와 문화>, BBS '거룩한 만남', '니르바나 2007년 소아암환자를 위한 음악회'가 자선활동을 벌여 맺은 결실이다.

1년간 모금활동을 벌여 온 보현사(주지 일관) 신도회 '아름다운 동행'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는 장건우(남 · 4세), 소아암을 앓고 있는 김예원(여 · 6세), 신장암을 앓고 있는 김민석(남 · 9세), 강직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윤정찬(남 · 12세),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문수환(남 · 6세) 총 5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또한 익명의 한 후원인은 만 14세 미만 소아 7명에게 10kg 쌀 20푸대를 지원해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최고액 500만원을 지원 받은 6월의 환우 송희진씨는 뇌와 척수에 생기는 원인 불명의 질환인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어 전달식에는 부친이 대신 참석했다. <불교와 문화> 모금을 통해 치료비 1백75만원을 지원받는 백승민(남 · 49세)씨는 척추손상과 간경화로 투병 중이다. BBS '거룩한 만남' 방송 환우 김은자(여 · 44세)씨는 심근경색증과 만성신부전을 앓아 75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니르바나 2007년 소아암환자를 위한 음악회 모금액은 희귀난치성질환인 악성신생물(렛테러시웨병)을 앓고 있는 조영규(남 · 3세)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조우찬(남 · 10세)군에게 각각 200만원씩 전달됐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가연숙 기자

"학교 내 종교 학생이 선택 해야"

강의석씨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없고 종립사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종교의 헌법적 가치, 정교분리의 원칙, 교육의 중립성 등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지니므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한다."

학교내 종교자유를 요구하며 학교법인 대광과 법적 대치중인 강의석씨가 7월 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상고이유서 제출은 강의석씨에게 손해배상 패소판결을 내린 5월 8일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 상고한데 따른 것이다.

상고이유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인권단체와 변호인단이 함께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강의석씨는 "종교사학도 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 범주에 속합니다.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종교사학의 공교육 역할보다 종교단체로서의 성격을 인정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중국·미얀마 구호성금 전달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7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 미얀마 태풍 참사자와 중국 쓰찬성 지진 참사자의 구호를 위해 사부대중이 모은 성금 2540여 만원을 전달했다. 김성우 기자

김태영 합참의장 군불총회장 취임 축하연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7월 9일 국방회관 태극홀에서 '김태영 합참의장 군불총 신임회장 취임 축하연'을 열었다. 이날 축하연에는 임충빈 육군총장, 김병관前연합사부사령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각현 스님·황순일 교수 불이상 수상



재가여성불자단체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7월 5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23회 불이상시상식을 열었다. 불이상 실천분야는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이, 학술분야는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황순일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적십자간호대학과 협약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적십자간호대학과 7월 8일 협력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스님, 적십자간호대 김모임 학장 등 내외 인사 30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매봉산 고성사 대웅전 기공식



매봉산 고성사(주지 고성)는 7월 6일 대웅전 기공식 및 사리탑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단 소임스님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주지 고성 스님은 "돈독한 신심으로 원을 세워 불사가 시작된 만큼 더욱 정진하자"며 법문했다. (054)977-0962 손법천 대구지사장

내몸내가고치는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수치의 비밀 ◆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7. 26(토) 오전 9시 ~ 7. 27(일) 오후 1시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0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교육일 : 7월 19일 토요일반 • 교육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교육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앞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종교가 반려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불교칼럼

일생의 반려를 만나지 못한 미혼남녀불자 가운데 종교문제로 마음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체로 미혼불자들은 불교철학에 공감하는 상대를 찾는데, 이는 어느 종교에서든 마찬가지다. 불법을 모르고 자비실천을 따라하지 못할 상대와 산다는 건 불자로서 가능하면 피하고픈 업보 중 하나일 것이다. 특히 타종교에 병적인 배타성을 지닌 중생을 만나는 건 또 다른 번뇌의 시발일 수도 있다. 두뇌가 깔끔하게 진공청소 된 그들은 상대가 불자라면 마치 감전이나 된 듯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여러 차례 직접 목격한 바, 그건 진실한 신앙심과는 무관하다. 그보다는 이해타산의 의도 등을 감추려는 선별적 위선이나 싸구려 신파극일 따름이다.

예를 들어, 미혼불자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조건, 가족배경 등이 그럴싸한 경우, 그들은 종교문제에 대해선 아예 딴청을 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이쯤 되면, 애틋한 구애가 아니라 애처로운 구걸이다. 데이트든 결혼이든 이처럼 찝찔하고 끈적대는 느낌이 든다면 깨끗이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 사랑이란 '아낌과 섬김'의 다른 이름이다. 사랑과 즐거움의 꽃송이가 아니라 미움과 불안감 등 독버섯을 키우는 악업은 불자의 몫이 아니다.

또한 종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호갈등과 왜곡된 선입견을 유발해선 안 된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떠있었다. 미국 젊은이들끼리 주고받은 얘기들 가운데 우리 현실과 닮은 부분만 좀 골라봤다. 먼저 어느 처사님의 질문이다. "저는 불자인데 최근에 독실한 크리스천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저는 다른 불자들처럼 열린 마음이고 그녀의 종교에 대해서도 100%의 존경심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그녀는 어떤지 모르겠군요. 이 교도끼리 살면 안 되나요? 도움 말씀 좀 주세요." 그러자 댓글들이 팝콘처럼 톡톡 튀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팍팍 밀어 붙이세요.' 이번엔 네티즌이 최다 선정한 글이다. '두 분이 서로 툭 터놓고 얘기를 나누세요. 제가 알기론 동양에도 불자와 크리스천 부부가 많다고 해요. 혹시 교회결혼식을 원하시면 개종을 하시거나 신앙서약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즘엔 꼭 그렇진 않을 걸요.' 그러자 즉시 반격이다. '참 우습군요. 왜 불자가 개종을 해요? 모든 종교는 사랑을 가르치죠. 사랑이 있는 곳엔 상호배려와 희망도 늘 함께한답니다.' 좀 더 재미있는 댓글도 있다. '그녀가 당신을 개종시키려들면 후딱 헤어지세요. 만일 그렇지 않은 여자라면, 당신은 꽤 괜찮은 크리스천을 만난 겁니다.' 또 자신의 체험을 소개하는 글도 있다. '그녀가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닫힌 마음보다는 불자인 당신처럼 열린 마음을 지녔겠죠. 얼마 전 헤어진 제 여자 친구는 마음이 탁 트인 힌두교도였죠. 참고로, 저는 크리스천 가정 출신인데 반쯤은 불자랍니다.' 그런가 하면 초보커플매니저의 카운슬링처럼 자못 심각한 댓글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두루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종교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지녔는지, 두 사람의 결혼식은 어느 종교양식을 따를 건지, 만일 두 분이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면 어느 종교를 따르게 하고픈지, 두 분이 결혼을 하면 잘 타협해서 한번은 당신이 그녀와 교회에 함께 가고 그 담엔 그녀가 당신을 따라 절에 갈 건지 등등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적절한 해답을 찾아보세요.'


서구 불자들이 결혼과 종교적 차이에 대해 '개종강요' 등의 부정적 견해를 갖는 경우는 드물다.

댓글마다 뒷맛은 다르지만, 어디에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닮은 각설이타령은 안 나온다. 서구의 인터넷에는 미혼불자 간의 사귐이나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고 성혼사례도 적잖다. 개인적 체험이라 한계가 있겠으나, 여태 만나본 서구의 남녀노소 불자들 가운데 인종이나 문화 차별을 하는 도반은 단 한명도 없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자들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봐요. 상대를 경계하지 않고 그윽이 반겨 맞는 차분한 눈길 때문이죠." 배우 키아누 리브스 도반이 촬영차 이탈리아에 갔을 때 초면인 이탈리아 불자를 곧장 알아봤던 경험담이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사랑을 찾으세요, Resolved questions

스탠포드大에 불교후원금 보시

미국 스탠포드대학은 6월 24일 학보를 통해 홍콩의 자선재단법인인 로버트 호 가족기금(何鴻毅家族基金)이 동교 '불교연구센터'의 후원기금으로 미화 500만 달러를 보시했다고 보도했다.

동양문화의 발전과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 기금은 특히 불교학연구 및 불교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한 국제적 전법에 기여하고 있다. 문리대학장 리처드 샬러 교수는 이 기금이 교수진 및 학생의 연구지원, 외래교수 초청, 커리큘럼 개발, 각종 학술행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라 밝혔다.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1997년 설립된 불교연구센터는 우리 스탠포드대학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학술단체입니다."

동교의 종교학과에 포함된 불교학대학원은 미국 내 대학 가운데 최대 규모다.

출처: Stanford Report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Don't they have oranges where he comes from? 저 스님은 귤도 없는 데서 오셨나요?

Each from different school and country, two masters were invited for a dharma debate at a prestigious American university. Each in brown and grey habit, they sat together. The brown was fingering his japa mala and the grey ready to start. The grey used to hurl a flurry of question until his partner admit his ignorance and keep 'that don't-know mind'. Drawing out an orange, he asked, "What is this?" But the brown just sat still. "What is this?" Now holding it up to the brown's nose, he asked over again, "What is this?" Then the brown whispered to his translater who nodded. "My master just asks," He told the audience, "What is the matter with him? Don't they have oranges where he comes from?"

나라와 종파가 서로 다른 두 스님이 미국 명문대학의 다르마토론에 초대됐다. 갈색 승복의 스님은 염주를 굴리고 회색 승복의 스님은 토론을 준비했다. 회색 승복의 스님은 상대에게 줄곧 질문을 던져 결국 스스로 무지를 인정하고 '그 모르는 마음'을 지니도록 가르친다. 귤 한 개를 꺼낸 그가 갈색 승복의 스님에게 물었다. "이게 뭐죠?" 대답이 없자 다시 물었다. "이게 뭔가요?" 이번엔 귤을 코앞에 갖다 대고 물었다. "이것이 뭡니까?" 마침내 갈색 승복의 스님이 통역에게 귓속말을 했다. 고개를 끄덕인 통역이 그의 말을 청중에게 전했다 "방금 저희 스님께서 이리 물으십니다. 저 스님 왜 저러시지요? 저 스님은 귤도 없는 데서 오셨나요?" 번안:성휴 스님, 그림:이태수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❽

내면의 분노를 창의성으로 분출

때론 어느 충격적 경험이 지나온 삶을 전혀 새로 되돌아보게 한다. 이는 단순한 후회나 자기탄식을 뛰어넘는 치열한 자기반성인 동시에, 무명과 미망의 수렁 속에 갇힌 '참 나'를 건져내는 자아 재발견의 계기도 된다. 올리버 스톤은 다시 투입된 전투 중 다리와 등에 파편이 박히는 두 번째 중상으로 긴급후송이 된다.

다소 회복되어갈 즈음 그는 인간의 이율배반적 속성, 즉 '거부(拒否)하며 동화(同化)하는' 기이한 현상을 직접 체험한다. 누구든 어떤 대상에 대해 내내 곱지 못한 감정을 쌓아가다 어느덧 그 대상을 닮아간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에 대해 연민의 정을 지니고 마침내 긍정하고 수용하곤 한다. 이 과정은 나와 너, 옳고 그름, 싫고 좋음 등 가르고 나누는 분별심(分別心)을 거두고 모두가 하나임(oneness)을 깨우쳐가는 구도행각과도 같다.

그는 지금껏 아버지를 가정파탄, 그리고 자신의 방황과 절망의 원인이라 단정하고 증오해왔다. 하지만 전신이 붕대에 둘둘 말려 야전병원의 침대에 눕혀진 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바로 그 '아빠'였다. 아버지는 아들 올리버 스톤의 기질과 잠재적 재능을 최초로 인정해준 최고의 프로모터였다. 그는 일곱 살짜리 꼬마 올리버가 글 한 편을 써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용돈도 챙겨준다.

분노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동지애로 변모

그리고 이런 칭찬과 격려는 겨우 아홉 살 난 아이가 900쪽에 이르는 글을 써내는 놀라운 창작의욕으로 이어진다. 또 영특한 올리버가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내고 방대한 독서를 통해 다양한 기본소양을 지니도록 도와준 분도 아빠다. 그런가 하면, 십대의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방황과 타락 사이를 넘나들게 한 이도 그다.

'그런데 왜 그런 아빠가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이 꼴로 살아남은 내게 떠오르는 걸까?' 이 의문은 그가 퇴원한 후 전투부적격판정을 받고 사이공 주둔 헌병대에 배속될 때까지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뒤이어 청동무공훈장을 받은 그는 장거리첩보순찰대에 배치된다. 제대말년이 되어 좀 한가해진 그는 불교책자들을 뒤적이다 뜻밖에도 그 해답의 실마리를 붙든다. '분노에 매달림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덩이를 움켜쥠과 같으니 불에 데는 이는 곧 나 자신이라.' 참으로 맞는 말이다.

분노는 왜 생겨나는가? 이제 그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다. 분노란 내 멋대로 가르고 헤아리는 판단, 속단, 단정하는 나 자신에게서 비롯한다.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원인을 나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으려 들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조금씩 풀어가다 보니, 그는 이젠 아버지를 탓하기보다는 같은 성인남자로서 이해하고 동지애마저 느끼게 된다. 마침내 그는 그간의 갈등과 방황을 떨쳐낼 불굴의 근성과 도전의식을 심어준 이도 아버지임을 뒤늦게 깨닫고 그 은공에 감사한다.

제1기갑여단에서 잔여복무를 마치고 1968년 귀국한 그는 전쟁의 악몽을 지우고자 곧장 멕시코로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2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된 그를 아버지는 묵묵히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한다. 이제부턴 스스로 챙겨가야 함을 자각한 그는 얼마 후 원호보상 대상자로 뉴욕대학의 영화학교에 입학한다.

거기서 영화계 최초의 스승인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만나는 행운을 얻은 그는 후일 이렇게 술회한다.

"그분은 나의 축적된 분노를 창의성으로 바꿔 터뜨릴 돌파구를 열어주셨다." 그는 재학 중 두 편의 단편영화를 만든다. 그 하나는 '베트남에서 마지막'로 뉴욕 거리를 떠도는 참전군인의 고독감과 비애를 그린 것이며, 다른 하나인 '마이클 앤 메리'는 폭력물로 당시 막 인기몰이를 하던 갱 영화의 길잡이가 된다.

스승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세계의 축소판 격인 이 작품들은 풋내기 감독 올리버 스톤 자신의 다양한 자화상이자 할리우드 진출을 앞둔 진지한 자기소개서라 하겠다. 그 이후 영화감독으로서 그의 걸출한 면모는 전문가에 의해 따로 소개되어지길 바란다.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보람이 불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출신 여인을 만나 딸까지 두고 사는 것이라는 올리버 스톤 도반의 젊은 날 만행(萬行)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친다. <끝>

성휴 스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산사로의 초대
백양사 참사람 템플수련회
참사람의 향기 "수행으로 가꾸는 삶"
허공 끝에 이를 때까지 갖가지 모든 중생계에도 그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날때까지 제가 그들 삶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입보리행론]
◗ 백양사 참사람 수련회 일정 및 신청 안내 ◖
▣ 수련일정 :

구 분	수 행 기 간	참여인원
1차	7월 24일(목) ~ 27일(일) 3박 4일	60명
2차	7월 30일(수) ~ 3일(일) 4박 5일	60명
3차	8월 7일(목) ~ 10일(일) 3박 4일	60명
4차	8월 13일(수) ~ 17일(일) 4박 5일	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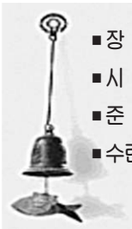
▣ 접수기간 : 2008년 4월 25일(금) ~ (정원 모집시 마감)
▣ 참가인원 : 각 차수별 60명 정원
▣ 접수방법 : 백양사 홈페이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참가신청서를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고 참가비를 입금하여 주십시오.
▣ 참 가 비 : 3박 4일 80,000원 / 4박 5일 100,000원
▣ 문의전화 : 061)392-7502 / 팩스 061)392-2081
www.baekyangsa.org
▣ 입금방법 : 농 협 645117-51-014851 (예금주 : 백양사)
우체국 501536-01-000205 (예금주 : 백양사)
*참가 본인명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입금확인 후 정식 등록이 됩니다.)
고 불 총 림 백 양 사






2008년
노고산 흥국사 여름 수련회 안내
약사도량 흥국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자연 풍광이 수려한 천년고찰에서의 산사체험은 수련생 모두에게 커다란 감동이 될 것입니다.

구 분	기 간	대 상	인 원
1차	7월 26일(토) ~ 7월 28일(월) (2박 3일)	초등학생	80명
2차	8월 2일(토) ~ 8월 4일(월) (2박 3일)	중·고등학생	40명
3차	8월 8일(금) ~ 8월 10일(일) (2박 3일)	일반인	40명


■장 소 : 흥국사 설법전
■시 간 : 당일 오후 2시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우산, 개인침구, 공양미, 수영복(초등학생 필히 지참)
■수련회비 : 초등학생 30,000원 / 중 · 고등학생 40,000원 / 일반인 50,000원
T셔츠, 기념품, 기념사진 제공 ※수련복은 배부합니다.
계좌번호 : 신한은행 328-01-165185 (예금주 흥국사)
■접수안내 : 흥국사 종무소 Tel 02)381-7970 / Fax 02)381-7329
홈페이지(www.heungguksa.or.kr)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주지 대 오

실크로드는 '인류문화 운하'

한국불교연구원,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류문화 운하'라 불리는 실크로드는 서역과 중국을 잇는 경제 · 문화 통로였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 전해진 것도 실크로드가 있어 가능했다. 실크로드 유적 중심인 돈황 석굴이 관광객 증가와 지하수 고갈 등에 따른 심각한 훼손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 이하 연구원)과 중국섬서사범대가 7월 5일 공동으로 '실크로드와 불교문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주위주 교수(中, 섬서사범대 서북민족연구중심)와 정병조 교수의 기조강연을 소개한다.



7월 5일 열린 '실크로드와 불교문화' 주제 국제학술회의. 왼쪽부터 김영희, 주위주, 정병조, 허남결 교수.

 # 실크로드는 불교전파 루트

주위주 교수는 기조강연 '3~9세기 실크로드 상의 서북민족과 불교문화의 전파'에서 "실크로드는 불교 등 경제, 문화를 교류시킨 중 · 서방 교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1세기 전후로 카시미르에서 비로자나, 아라한이 우전(현 신강 화전)에 불법 전파를 위해 왔다"고 소개하며, "우전왕의 찰마대사 건립이 중국 신강성에 불교가 전파된 시점"이라 설명했다.

주위주 교수는 "서역 구자(현 신강 쿠차), 소륵(현 신강 카쉬가르), 고창(현 신강 투르판) 등지에도 잇따라 불교가 전파돼 가람이 세워졌다"고 말했다. 1~2세기 도성에 가람이 대대적으로 조성되면서, 천축 풍 석굴과 간다라식 불상과 벽화 등 불교예술이 우전, 고창, 구자 등지에서도 발전했다.

불교가 위진남북조 시대 발전한 이유에 대해 주 교수는 ▲불교가 윤회보응설과 기복소화의 영험을 통해 정신적 의지처로 작용했고 ▲청담을 존중하는 풍조와 불교의 취지가 같은 점, ▲월(?)족의 양자강과 회수 이북 점령으로 불교가 북방 민족의 신앙이 된 점을 들었다.

주위주 교수는 "서북 모든 민족이 16국시대 전후로 불교를 믿고 불법을 홍양하는데 힘 쏟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북 민족의 불교 흥성에 대해 "고창, 언기 등지는 모두 불법을 숭신했고, 우전에서는 세인들이 불법을 중히 여겨 사원과 탑, 승니가 많았다. 특히 왕은 스스로 청소하며 공양을 올렸다. 구자는 1000여 불탑이 있고, 승려는 1만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위주 교수는 "신강 남로에 현존하는 석굴, 사원 유적이 특히 많다"며, 서진 시대 건립된 쿠차의 쿠무툴라 천불동, 베제크릭 석굴 등을 예로 들었다. 주 교수는 "석굴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석굴 조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위주 교수는 "3~9세기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입된 불교와 불교문화는 실크로드를 통했기 때문에 인도, 중앙아시아 승려들이 중원에 들어와 홍법, 역경하거나 중원 승려의 인도 구법활동 등이 일어났다"며, "이러한 활동과 수반해 상호교류가 이뤄져 관련국 혹은 민족사에 추측 불가능한 작용을 하며 발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 한국 구법승 두타행 남달랐다

정병조 교수는 '비단길과 한국불교'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실크로드를 넘나든 한국 승려들과 서역승려들의 행적과 사상에 대해 언급했다. 정 교수는 "고구려 · 백제 · 신라 등 중국을 통해 불교가 전해졌지만, 인도로부터 직접 전래됐을 가능성도 짙다"고 말하며, 김해 · 구포지역에 다수 분포한 아쇼카대왕과 관련된 불상과 탑, 한라산 존자암 연원에서 보이는 아라한 관련 설화, 수로왕의 부인 허황후가 인도인이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인도 파트나에 위치한 나알란다 사원에는 고대 불교대학이 있어 많은 구법승들이 찾았다. 정 교수는 "나알란다 사원에서 여러 명의 신라 스님과 한 명의 고구려 스님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야 발마(Aryavarma)는 신라에서 중국을 거쳐 인도에 도착한 스님으로 나알한다사에서 율과 논을 익혔다. 혜업 · 현태 · 현각 · 현조 법사와 함께 혜륜 선사 등도 신라에서, 인도 나알란다 사원에서 불교를 배웠다. 신라 진골 출신으로는 무루 스님이 있었고, 고구려 승려로는 현유 스님이 있었다. <속고승전>에 기록된 신라에 <80화엄경>을 전한 원표 스님은 고구려 유민이었다.

정병조 교수는 "원표 등 구법승려들의 인도 여행은 성지 참배, 교학 연구, 두타행 등으로 구분된다"며, "구법 승려들이 활약한 7~8세기를 전후한 시기는 인도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불교가 쇠퇴하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대승불교가 정착돼 발전한 시점"이라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구법승 중 혜초 스님이 저술한 <왕오천축국전>은 실크로드 인근 서역 연구분야에 귀중한 자료로 8세기 전반 인도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라 말했다.

정병조 교수는 "동서문화 교류지로 독특한 전통체계를 지닌 서역불교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중국학자는 소수민족 연구자인 이기 교수(섬서사범대 서북민족연구중심)가 '실크로드상 중앙아시아 구간의 박트리아 예술에 나타난 불교적 요소'를 발표하고, 나당 관계사를 전공한 배근흥 교수(섬서사범대 역사문화학원)가 '입당구법, 당과 신라불교문화교류의 교량을 가설하다'가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우제선 교수(동국대)와 황순일 교수(동국대)가 각각 '실크로드와 그 연관 지역출토 법화경의 범어사본'과 '오럴 스타인, 실크로드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계상정거도'는 졸렬한 가짜

이동천 박사, 서울대 특강서


1000원 지폐에 그려진 '계상정거도'.

"1000원 지폐에 실린 '계상정거도(보물 제585호)는 아마추어 수준의 위조자가 만든 졸렬한 위작입니다."

2008년 5월 20일 발간된 <진상-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동아일보사 刊)에서 "1000원권 뒷면 그림 등 서화작품 90%는 가짜"라 주장한 이동천 박사(서울대 동양화가 작품감정론 강사 · 사진)가 강연에서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7월 5일 서울대 멀티미디어동에서 '계상정거도 왜 가짜인가'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동천 박사는 ▲화폭에 그려진 부분만으로 감정 ▲화폭 그림과 장표 부분 감정 ▲그림과 실물 비교를 통한 감정 등 3부로 나눠 '계상정거도'가 가짜임을 밝혔다.

이 박사는 "'계상정거도'는 작품의 본질적 부분인 필획과 묘사 등이 진작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며, '우화등선' '불정대' 등 정선의 다른 작품을 소개했다.

이동천 박사는 "정선의 붓놀림은 굳세고 빨랐다. '계상정거도'는 느리고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는 필획과 어설프고 유기적이지 못해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사물 묘사를 하고 있는 등 위작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잠미, 사미, 필근, 화수 등 필획의 결미를 통해 정선 특유의 필획을 정리한 이 박사는 "기와지붕, 소나무, 물결 묘사 등 '계상정거도'는 정선의 다른 작품과 확연히 비교되는 졸렬한 위작"이라 평가했다.

'계상정거도'는 표구 부분까지 그림이 그려졌다. 이동천 박사는 "표구 부분은 그리지 않고 마감하는 것이 상식이다. 표구 부분까지 그려진 것은 베끼는 과정에서 제대로 그리지 못한 탓이며, 위조자가 아마추어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라 설명했다.



그림과 실물의 비교도 이어졌다. 이동천 박사는 '계상정거도'와 실제 서취병 전경을 함께 보이며, "도산 옆 서취병 부분이 낮게 그려졌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퇴계 이황의 <도산잡영> 등 서취병을 묘사한 서적까지 인용해 조목조목 '계상정거도'가 잘못 그려진 위작임을 밝혔다.

'계상정거도'를 두둔하는 미술사계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동천 박사는 "5월 26일 방송된 '생방송 화제집중' 프로그램에서 미술사가 이태호 교수가 도산 옆 서취병이 실경에 의해 그려졌다고 주장한 것은 서취병의 낮은 부분을 높은 부분으로 속인 것"이라 폭로했다

"감정되지 않은 것은 어느 것도 믿지 않고 사실에 의해 감정해 가는 것이 감정의 시작"이라거나, "미술품 감정은 순간의 판단이 아닌 순간의 판단을 위해 쉼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 말한 이 박사의 학문은 수행과 다름 없었다. 조동섭 기자

경북 김천 · 문경 사찰 보물지정 예고

직지사 대웅전, 봉암사 극락전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7월 7일 경북 김천 직지사 대웅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5호)과 경북 문경 봉암사 극락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55호)을 보물 지정 예고했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인조27년(1649)에 사승 상원, 계림 등이 중창했고, 지금의 대웅전은 영조11년(1735) 중건했다.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가구식 기단을 갖췄다. 용머리조각과 호형의 부재를 사용하고 있는 계단 소맷돌은 형태와 결구법이 특이하다.

봉암사 극락전은 장흥 보림사와 함께 유이하게 현존하는 선문구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전각이다. 학계는 형태나 위치로 보아 조선 중후기 세워진 왕실 원당일 가능성이 높고, 기단과 초석은 고려조 것이라 추정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직지사 대웅전은 가구 구성 및 부재 표현기법이 조선후기 건축적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봉암사 극락전은 독특한 외관과 건축수법 및 단청이 18세기 건축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직지사 대웅전과 봉암사 극락전의 보물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선학회 하계수련회 7월 12~13일 선운사일원서

한국선학회(회장 김형두)가 7월 12~13일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선운사를 비롯해 불갑사 등 선찰과 법성포 마라난타 성지 등 선운사 인근 불교성지를 순례하며, 한기두 교수의 '조선 후기 선 논쟁'에 관한 특강도 마련됐다.

문의: 김방룡 운영위원장 010-8627-5308

조동섭 기자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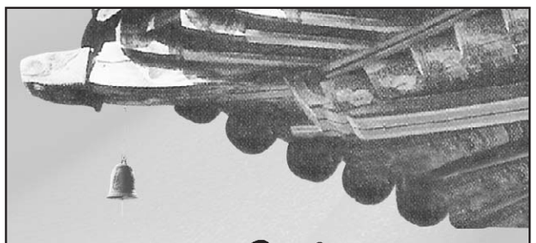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대한명인(06-122호)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노동부장관 표창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성원사 여름 수련 대회

■기 간 : 제10차. 2008.8. 2 - 8. 5 (3박4일)
제11차. 2008.8.11 - 8.14 (3박4일)

■장 소 : 강릉 소금강옆 자연경관이 수려한 성원사 수련관

■대 상 : 17세 이상 건강한 남 · 여
예불.염불선방법.참선의자세.불교기초교리.사경.발우공양.묵언 등의 수행생활을 스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접수처 :
TEL. 033)661-5736 성원사 종무소
TEL. 033)642-0142 강릉 포교당 성정사
TEL. 033)642-0143 성원 유치원 교무실
TEL. 02)3288-3386 서울포교당 정중선원
(대치4동 894-5포스코더샵 과 롯데캐슬 옆)

※ 성원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http://www.sungwonsa.org
http://www.sungwonsa.com
http:성원사.org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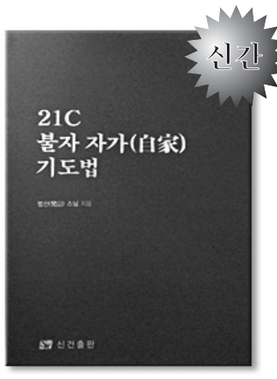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배움과 닦음의 자리 운문사

부처님의 제자들은 쉼 없는 길을 가고...

글/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나지막한 운문사 돌담 위로 태양이 쏟아지고 도량 위에는 하얀 구름이 떠있다.
반송(盤松)도 소매를 걷고, 만세루는 구름 밑에 누웠다. 이른 아침의 운문사. 첫눈을 밟듯 햇볕을 밟으며 천년의 숨결을 따라 걷는다.

불이문(不二門)을 지나 강원(講院. 운문승가대학)에 들었다.
금당(金堂)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가 지객(知客)인 듯 객을 맞는다. 금당에 든 사교반 스님들이 능엄경(楞嚴經)을 읽고 있다.
지극한 시선이 한 자 한 자 법(法)을 따라가고 댓돌 위의 하얀 고무신은 조용히 주인을 기다린다.

잠시 경전을 놓은 스님들이 밀짚모자를 쓰고 뙤약볕으로 나선다.
뒤에 나선 스님이 앞서 간 스님을 부르며 뛰어간다. 스님들이 도착한 곳은 운문사 텃밭이다. 울력이다.
밭에는 호박, 고추, 상추를 비롯한 갖가지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밭고랑을 살피는 손길은 경전을 넘기던 손끝과 다르지 않고 흙냄새 위에서 마주한 눈빛은 서로의 스승이다.

저녁 해를 등에 지고 두 스님이 걷는다. 쉽지 않았을 출가(出家)의 기억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을 향해 내딛던 발걸음. 오늘도 쉼 없이 그 길을 간다.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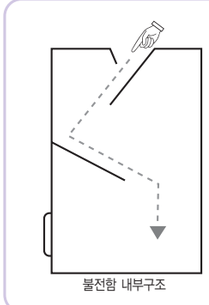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사무용)도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이미지는 실사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불전함 투입구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불전함 · 외 부 : 높이 700×넓이 700×깊이 350(mm)
· 투입구 : 가로 380×세로 90(mm) · 무 게 : 60Kg

특허신청중.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 (최대 3일이내)

마이산 탑사, 부산 금정사외 계룡사,보광사,법성사,혜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범양금고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 팩스 031)764-6462
011-414-2304(사장直)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

산사에 부는 '아주 특별한' 템플스테이

마음닦기 · 봉사활동 · 각종 체험으로 인기 절정

템플스테이가 진화하고 있다. 절에 머물며 사찰생활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국민 문화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면서 프로그램도 진화하고, 운영 사찰도 늘고 있다.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 051-241-0696)에서는 거제 반야원(원장 전진주)과 마하병원 등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자람' 수련 프로그램을 갖는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참선과 108배, 나눔과 봉사의 마음을 길러주는 장애우와 함께하는 예불, 식사, 발우공양, 포행 등이 진행된다. 더불어 알로에 농장, 표고버섯 농장, 야생화 농원, 도자기 만들기, 별자리 기행 등 다양한 생태체험도 마련된다. 이번 수련 캠프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20시간의 자원봉사 인증도 발급한다. 7월 23일과 30일 각각 3박4일씩 총 2회 개최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비는 20만원이다. 보다 안전하고 유익한 캠프를 위해 서울 및 부산 지역에서는 출발부터 교사가 동행해 인솔하게 된다.

불무도 총본원을 표방하는 양산 금강사(주지 안도, 055-386-2262)는 초 · 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무도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세계금강승불무도 총재이자 범어사 호법국장을 역임한 안도 스님은 이번 템플스테이에서 불교무술의 진수인 불무도 지도를 담당한다. 더불어 옛 선비들의 교양과목 '육예'를 바탕으로 승마, 국궁, 마상무예, 선호흡, 선명상, 선요가, 선체조, 선무술 등을 익힌다. 인스턴트 음식, 컴퓨터게임 등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이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키우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도록 도와줄 것이다. 안도 스님은 "불무도 템플스테이는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 자녀들의 심신 단련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내용들로 기획했다"며 "아이들이 본연의 순수함을 되찾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련회는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2박3일 및 3박4일 일정으로 총 6회 개최된다. 초 · 중 · 고교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10만원이다. 자녀 3명이 동반 참가할 경우 1명은 무료다.


❶


❷


❸


❹

❶❷❸-양산 금강사의 '불무도 템플스테이', ❹-제주 약천사 템플스테이의 '차담'.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 055-934-3110)는 스님들과 똑같이 참선하고 수행하는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선과 명상, 묵언을 중심으로 자아를 성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본격 템플스테이로 진정한 수행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단기 출가를 경험하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4박5일 일정으로 7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6차례 개최한다. 참가비는 일반부는 15만원, 중 · 고등부 10만원, 초등부 8만원이며 일반부 80명, 초 · 중 · 고등부는 50명으로 정원이 제한되니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제주 서귀포시 약천사(주지 고봉, 064-738-5000)는 사찰 수행 프로그램과 제주 문화체험을 접목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한다. 불교 수행과 문화, 제주 문화체험을 주제로 사찰예절과 예불, 참선, 행선, 발우공양, 불교교리강좌 등 사찰수행 프로그램과 다도, 서각, 요가, 초 만들기 등 사찰문화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또 제주 문화체험을 통해 오직 제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감귤 따기, 고사리 체취, 천연 염색, 감물 염색 등을 통해 제주의 살아있는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초 · 중 · 고생과 성인 및 대학생으로 나눠 운영되며 초 · 중 · 고생의 경우 1박2일 2만원, 2박3일 3만원, 3박4일 4만원이고, 성인 및 대학생은 1박2일 3만원, 2박3일 4만원, 4박5일 5만원이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051-861-5241)에서는 '2030 지리산명상기행'을 운영한다. 남원 실상사 템플스테이에 이어 지리산 매동에서 새동까지 약 20km 숲길을 명상도보 한다. 불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토론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마련된다. 또 래프팅, 미션수행 등 다양한 팀별 활동과 장기자랑으로 젊음의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이다. 8월 1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청소년 5만원, 성인 8만원이고 가족이 함께 참가할 경우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국토를 찾아서
마산금강노인복지관

"어르신~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마산지역 어르신 80여명이 단체 영화 관람으로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학산경로당, 대창남성경로당, 창포여성경로당 등 마산지역 8개 경로당 소속의 어르신들은 7월 2일 마산 롯데시네마에서 로맨틱코미디 영화 '흑심모녀'를 관람했다.

어르신들의 극장 나들이는 사회복지법인 금강(이사장 원행)에서 운영하는 마산금강노인복지관(관장 곽인철)의 후원으로 마련한 경로당 지역 연계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됐다.

대창남성경로당 김차성(83) 할아버지는 "우리가 언제 또 가보겠노? 가자!"며 난생 처음 가는 영화 관람에 설레어 했다. 창포여성경로당 최숙현(76) 할머니도 "뭐라꼬? 활동사진 보러간다고"하며 영화가 '활동사진'이라 불리던 시절 이후 오랜만의 영화 관람을 무척 반가워했다. 비포경로당 김달선(71) 할머니는 "옛날 극장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이웃마을에 이동영화관이 떴다는 소식이 들리면 온 마을 사람들이 고개 하나를 넘어가서 보고 왔다"고 영화에 담긴 추억을 회상했다.

이날 어르신들은 심혜진, 김수미 주연의 유쾌한 로맨틱코미디 영화 '흑심모녀'를 시종 박장대소하며 즐겁게 관람했다. '흑심모녀'는 공주병 치매할머니와 터프한 엄마, 철부지 딸이 모여 사는 집에 어느 날 잘 생긴 청년이 찾아오면서 생기는 세 주인공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어르신들은 50~60년 전 청춘으로 돌아간 듯, 평소 잘 안 먹던 콜라와 팝콘을 먹으며,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으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날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보조진행을 맡았던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원삼 학생은 "어르신들이 영화를 접할 기회가 적어 아쉽다"며 "앞으로 경로당마다 학생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로당지원연계프로그램을 담당한 류인선씨는 "앞으로 다양한 장르 선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현세대에 공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문화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 경로당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마산금강복지관은 인근 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주 월 · 수 · 목요일마다 방문해 노인PC교육, 실버플래너 자격증반, 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태극권, 벨리댄스, 건강체조 등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곽인철 관장은 "사회 약자인 노인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눈물과 땀을 닦아 주고 자비와 행복을 아낌없이 나누기 위해 3년 전 개원했다"며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을 편안히 쉴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박지원 기자

"웃음치료 통해 도심포교 활력 충천"

성전선원, 7월 3일 웃음치료 특강 열어

양산 통도사 성전암 부산포교당 성전선원(주지 정도)이 불자들을 위한 웃음치료 특강을 7월 3일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 박세철 교수를 초청해 웃음의 원리와 효과, 행복한 삶을 위한 웃음의 생활화 등을 배우는 자리였다. 강의에서 박세철 교수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건강한 웃음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정도 스님은 "도심포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며 "이번 웃음치료 특강을 통해 불자들이 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내년 5월 완공

제주약천사, 제주지역서 첫번째 시설

제주 약천사(주지 고봉)가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에 건립되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 조계종복지재단이 제주 지역에서 운영하는 첫 번째 시설이 될 이 요양시설은 올해 8월 설계에 들어가 내년 5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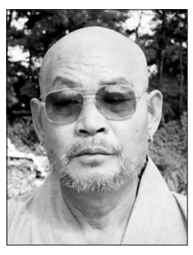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사업자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신청 받은 4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6월 25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했다.

약천사 부지 3888㎡(1175평)에 건립될 요양시설은 국고와 지방비 9억8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축면적 약 960㎡(290평)의 2층 건물로 1층에는 생활관, 목욕실, 물리치료실, 재활상담실이, 2층에는 언어치료실, 집단활동실, 강당 등이 들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제주 약천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제주 불교계의 많은 자원들을 사회복지를 통해 회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노인복지 함께 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평생을 불가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의 원력을 세워 금생을 회향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의 사고로 1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나 10여년 전 아미타종을 창종하여 노인복지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이젠 속지 않고 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달마노인복지회'를 통해 무의탁 노인들의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저의 원력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의 뜻에 동참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싶으신 분들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대한불교아미타종 종정 달마 합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1리 138-1 용주사
031)642-8345 / 010-9793-8977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석 · 굴법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卍 한글 한문 겸용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 · 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게하고 집전자의 작은 애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를(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 법우당 02)999-8315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봉 해동불교무량종 행

종 도 모 집

해동불교무량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각.계송.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바탕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의 적극적인 포교를 종지로 합니다


학성 (무량 대종사)

· 총재 및 조실 : 김정일 (법일 대종사)
· 종정 대행 총무원장 : 학성 (무량 대종사)
· 중앙고시법계위원장 : 박찬옥 (춘파 종사)
· 중앙교육원장 : 신원식 (도우 종사)
· 중앙포교원장 : 이광춘 (혜엄스님)
· 중앙사정원장 : 김광윤 (성일스님)
· 비 서 실 장 : 조종훈 (광원스님)

◆ 사암등록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소정양식 1통
· 승려, 교임, 전법사 신고서 1통
· 명함판 사진 7매

(재) 해 동 불 교 무 량 종
총본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1구 10번지 무량사
전화 061)683-7147 / 010-3114-4074


※입종시 사암등록증과 주지임명장과 법계증서, 수료증서, 승려증을 드립니다.

내소사·개암사 흰개미 피해 심각

문화재청 긴급방제 나서



흰개미에 의해 훼손된 목조건축물 모습.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보물 제291호)과 개암사 대웅전(보물 제292호) 등 중요 목조문화재가 흰개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

7월 9일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최근 내소사와 개암사 등 중요 목조문화재에서 흰개미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어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합동으로 확인한 결과 흰개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긴급방제 했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이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과 조사한 흰개미 피해 실태는 심각했다. 흰개미가 내소사 대웅보전 등 중요목조문화재에 서식하면서 목조기둥 밑둥이 달걀크기로 떨어져나가거나 벽체곳곳에 바늘귀 모양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목조구조물 안전에 별다른 이상은 없다. 다만 목조구조물 특성상 내부의 육안식별이 불가해 정확한 피해정도를 알 수 없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추가 훼손도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1억36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흰개미 방제는 피해문화재를 천막으로 감싼 후 약품을 살포하는 훈증처리와 건물주변에 살충제를 투약해 흰개미 침입을 방지하는 토양처리, 흰개미 생리와 생태를 이용해 방제하는 군체제거처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됐다.

조선 중기 지어진 내소사 대웅보전은 1963년 보물 지정된 목조건축물로 정면 3칸, 측면 3칸, 단층 팔작지붕의 다포집 형태다. 기둥은 배흘림과 평기둥을 함께 사용했다. 초화문을 투각해 공예적으로 정교한 장식을 새긴 분합문과 처마 밑 공포 등이 한국적인 색채를 대표한다는 것이 전문가 평가다. 개암사 대웅전도 조선 중기 지어져 건물 규모에 비해 굵은 기둥과 살리 첨차가 하나로 연결돼 장식판처럼 변형된 공포 등이 돋보이는 목조건축물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흰개미 피해가 발생한 내소사, 개암사 등을 시작으로 피해지 인근 목조문화재, 전국 목조문화재로 점차 범위를 확대하며 흰개미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대책을 통해 목조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bud1080@naver.com

"장병들에게 친형, 친구가 되겠습니다"

호국 군성사 원경 스님 주지 취임



"법당 안에서는 장병들의 친형, 친구가 되겠습니다. 병사들이 먼저 속내를 털어놓고 고민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2년 개원한 군산 공군 38전대 '호국 군성사'에 주지로 취임한 원경 스님의 일성이다.

원경 스님은 "열심히 예불하고 부대 무사고와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진솔한 모습 장병들에게 다가가겠다."며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보여주며 마음을 열다 보면 장병들에게 법당이 쉬는 공간으로 인식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불교만을 강조하기보다 부처님 가르침과 부합된 실천을 생활속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스님은 의성 고운사에서 법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 불교학과와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군산 공군 38전대 호국 군성사 초대 주지로 취임했다.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부대 특성을 살려 미군 및 군인가족들에게도 불교를 알리고 싶다는 스님은 "군대를 포교의 최전방이라 표현하지만 관심은 아직 미약하다. 불교는 이해가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경 스님은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야 군장병들이 신심도 깊어지고 참다운 행복도 알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원경 스님의 큰 원력에 군산지역 불교계도 함께 힘을 모았다. 스님은 "군산 사암연합회와 지역 불교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1982년 개원부터 지금까지 군성사가 존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특성상 지휘관 종교관에 따라 군법당 위상도 달라진다. "고 강조한 원경 스님은 "가톨릭 신자이나 군법당에 관심 갖고 지원하는 하성룡 전대장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 겸허하라"

7월 5일 광주지역 시국법회 봉행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과 쇠고기 전면 재협상 촉구를 위한 시국법회가 광주전남 5교구 본사(백양사 · 송광사 · 화엄사 · 대흥사 · 선암사)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7월 5일 광주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원각사와 구 도청앞 광장에서 봉행됐다.

백양사 등 5교구 본사와 사암연합회 소속 스님 100여명과 신행단체 재가자 200여명이 참석한 광주 원각사 시국법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을 비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시국발언에서 "정치는 무릇 국민을 편안케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1부 시국법회를 마치고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구 도청앞까지 불자의 이름으로 촛불행사를 지지하는 평화행진을 벌였다. 7월 5일 열린 광주지역 촛불문화제에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시민 1만여명이 함께했다.

광주불교대책위 공동대표 행법 스님은 "촛불이 보살이며, 국민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 거사불교 새 전기 맞아

광주 증심사 유마거사회 창립법회

광주의 상징 무등산에 위치한 증심사(주지 지장)에 유마거사회가 창립돼 호남 거사불교가 새전기를 맞았다.

7월 5일 광주 증심사에서는 30여명 거사회원과 사찰신도 100여명이 동참해 유마거사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지장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유마거사회 활동이 사찰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행과 수행에 매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단체가 될 것을 당부했다.

거사회 3곳이 신행활동 중인 광주지역은 증심사 유마거사회 창립으로 지역 내 불교계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유마거사회 강원형 회장은 "13년 전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었으나 함께 신행활동 할 도반이 없어 겪었던 고민이 이제 해결됐다. 유마거사회를 통해 사찰과 지역에서 부처님 법을 정진하는 좋은 단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독신청 ·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 북 지 사 (063)910-5199

부루나존자
군산 흥천사 가족법회

"가정이 영산회상·가족이 부처"



찌는 듯한 무더위가 한창 기승부리는 일요일 아침, 군산의 명승인 월명공원 입구 나무 그늘 아래 가족단위 사람들이 모였다. 반갑게 인사 나눈 이들은 흥천사 가족법회에 참석한 불자 가족들이다.

흥천사 가족법회는 1998년 지환 스님(흥천사 회주)이 흥천사 가족 간 화합과 신심을 높이고 거사들의 법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 가족법회가 있기 전 흥천사는 '치마불교'라 불릴만큼 보살들만의 불교였다. 이제 흥천사 가족법회는 흥천사는 물론 군산 지역불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신행단체로 자리 잡았다.

흥천사 가족법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른을 중심으로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웃한 반야유치원 법당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법회와 청소년 법회가 같은 시간에 열리는 점이다. 세대를 병합한 법회에 가족이 함께 흥천사를 찾을 수 있었다.

같은 시간대의 법회가 불자가정 만들게 해

법희 스님(흥천사 주지)은 "가족법회가 활성화되자 부부 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자연스럽게 법회에 참여해 불심을 키웠다. 가정의 화목과 불심 가득한 불자가정을 만든 것이 가족법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흥천사 가족법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흥천사 가족법회에서는 경전 등 이론으로 접근하는 불교를 지양하고 실제 불자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실천불교를 강조한다. 가족법회 프로그램도 참선과 기도 중심으로 진행한다. 스님도 어려운 법문보다는 불자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문을 한다.

가족법회 회원들은 법회 참석 뿐 아니라 절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긴다.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흥천사 가족법회는 해마다 우리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개최해왔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어버이날 즈음 열리는 '자비의 경로잔치' 기금으로 사용한다. 군 포교도 열심히 해 공군 군성사 법당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가족이 부처님입니다." 지환 스님은 늘 가족에게 헌신하는 불자가 되라 당부한다. "매사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지환 스님은 "가족들이 합심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 합심해 기도 정진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가족법회를 이끌고 있는 황동호(법명 하청 · 사진)회장은 "창립초기 역대 회장님들 노력으로 가족법회가 신행단체들의 모범이 됐다. 흥천사 가족들의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회장은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불자들의 신행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3년만에 다시 찾은 '백제의 미소'

'마애삼존불' 보존 처리공사 완료… 불교계 "보존대책 마련"촉구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이하 마애불)이 43년 만에 미소를 찾았다. 보호각 없이 자연광을 받으며 환히 웃는 미소는 고고학자 김원룡 교수가 <한국미의 탐구>에서 '백제의 미소'라 칭송한 그 미소가 분명했다.

마애불은 햇빛이 비쳐야 그림자와 함께 얼굴 윤곽이 제대로 드러난다. 햇빛 각도만큼 다양한 미소가 이때 나타난다.

'백제의 미소'는 햇빛의 각도에 부처님 모습이 감응해 나타나는 빛의 조화다. 마애불의 발견과 보호각 설치, 철거, 복원 공사 등 미소를 잃어버린 43년과 보존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봤다.

■보호각 철거 후 복원공사 마쳐=문화재청(청장 이건무)과 서산시(시장 유상곤)는 마애불의 미소를 되찾으려 2005년 보호각 철거 후 2008년 6월 말까지 긴급 보존 처리 공사를 마쳤다.

1958년 4월 발견된 마애불은 1965년 보호를 명분으로 문화재청이 보호각을 설치하면서 '백제의 미소'를 잃었다.

보호각 설치로 통풍이 어렵고 채광을 막아 마애불에는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는 등 마애불 훼손이 가속화됐다. 2005년 11월,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서산시는 보호각 벽면을 철거했다.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각 지붕은 남겨 둔 탓에 여전히 햇빛이 불상의 얼굴에 닿지 못했다.

보호각 제거와 함께 2008년 5~6월 동안 마애불 '긴급 보존 처리공사'를 실시했다. 10여년 전부터 마애불에 극심한 백화현상과 누수현상, 곳곳의 균열 부분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보존처리를 했는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1500년 전 조성된 마애삼존불의 미소를 보며 얻은 감동을 고스란히 후대에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보 제84호 서산 마애삼존불.

■불교계 의견 무시한 마애불 보존 대책=마애삼존불이 어렵게 '백제의 미소'를 찾았지만 마애불이 있는 서산 불교계 여론은 반갑지 만은 않았다.

마애불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보원사 정경 스님은 "서산마애삼존불을 제대로 보존하려면 스님이 상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님은 "상주하던 스님을 공무원으로 대체한 지 1주일 만에 보원사지에서 출토해 마애불 옆에 모셨던 비로자나불이 도난당했다. 보호각 기둥만 있을 때도 쇠꼬챙이로 마애불을 찍거나 돌맹이를 던져 훼손시킨 것도 문제"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문화관광과 이강열씨는 "마애불에 인위적 손상이 있던 것은 오래전 일"이라 반박했다.

김영균씨(서산시 문화관광과)는 "마애불에 인위적 손상은 없다"고 단정했다. 이들은 "주간에는 직원이,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어 마애불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인경비 시설을 갖춘 숭례문도 방화범 화재로 소실돼 무인경비로 마애불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서산시는 유리막 설치, 마애불 원거리 관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나 수덕사 등 불교계 의견은 수렴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과제이지만, 성보를 성보답게 지키는 것은 불자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섭·손효선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 법인정사

"복지불사도 수행의 하나"

7월 6일 청주 중앙공원의 어르신 대중공양 현장.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라는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약 200인분의 국수를 삶는 불자들의 손길에는 짜증 하나 섞이지 않았다. 가스렌지 불에 국수를 삶는 건지 뜨거운 햇볕으로 국수를 삶는 건지 분간 안되던 날씨지만, 국수를 삶는 보살들의 얼굴에서 부처님 같은 자비로운 미소가 엿보였다.

이날 봉사는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위치한 법인정사(주지 무아)가 맡았다. 올해로 벌써 두 번째다. 청주지역 사찰들이 주말마다 돌아가며 이 곳의 대중공양 보살을 맡고 있는데, 법인정사는 2006년부터 꾸준히 이 행사에 동참해 왔다.



2006년부터 대중공양 행사 동참
불우이웃 위한 도시락배달 봉사도

이는 "삼독심(三毒心)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의 하나가 보시"라는 무아 스님의 평소 가르침 때문. 스님은 "봉사를 하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다 보면 부처님의 참뜻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해 왔다.

이런 스님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법인정사의 불우이웃돕기 봉사단체 '불지촌'이다. 불지촌은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 청주 우암·율량·수곡동 등에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행사는 2004년 9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처음 도시락을 전달할 때만해도 8가구에 불가하던 것이 이제는 50여 가구가 넘어 하루 100여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직접 배달까지 한다.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묻자 무아 스님은 "현대 사회는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따뜻한 자비와 사랑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적은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면 생의 희망을 갖게 될 테고, 그것이 새로운 자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다. 법인정사는 봄·가을엔 어려운 이웃에게 이불을, 김장철에는 김장 담가주기, 추석·설 등 명절에는 백미 전달, 재가 복지활동 등 봉사를 한다. 청주시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법인정사가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무아 스님의 뜻을 잇는 불자들 때문이기도 하다.

무아 스님은 "종교의 역할은 고통 받는 인간이 의지할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삶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으로 염불, 간경, 108배를 말하지만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보시도 수행 중 하나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정성스런 보시행을 쉬지 않을 뜻을 밝혔다.

손효선 기자

옥천 대성사의 '특별한 한자 교실'

선남선녀 만남으로 부부인연 맺은 김주성씨 강사로 나서

"처음에는 반려자를 만나려 대성사에 방문했고, 오늘은 한문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에 특별한 선생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바로 김주성(44)·이향자(38)씨. 이 두 사람이 특별한 인연이 된 까닭은 뭘까.

김주성·이향자씨는 지난 2006년 '선남선녀 인연 맺기 따뜻한 만남(이하 따뜻한 만남)'을 위해 대성사를 방문했다.

2년이 지난 2008년 그들은 불자로서 혜철 스님과 다시 인연을 맺고 '김주성 선생의 재미있는 한자 교실' 선생님이 되어 대성사를 찾은 것이다.

김주성 씨는 한자 1급 자격 소지자로 인천 간석여중에서 한자 특기적성교육, 주민자치센터와 어머니 교실 등에서 재미있는 한자 교실을 운영해 왔다. 부인 이향자씨는 영동 추풍령 초강초등학교 교사이다.

7월 6일 첫 수업을 시작한 김주성씨는 "2년 전 '따뜻한 만남'에서 평생 함께할 아내를 만나 결혼과 동시에 옥천으로 이사를 했고, 오늘은 선생님과 제자의 인연을 맺기 위해 절에 왔다"며 "아내를 만나게 해 준 고마움과 부처님 제자가 된 감사함을 갚기 위해 대성사가 있는 옥천에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자 교실에는 종교를 불문하고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참석했다. 첫 수업에 대한 설레임과 선생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학생들은 들뜬 모습이었다.

매주 일요일, 앞으로 3개월 간 대성사에서는 한자 교실이 열린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곳에서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주성 선생은 "꼭 무엇을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냐"며 웃었다.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대성사에 찾아와 인연을 맺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대형 선화도 2점 계룡산 회향

선화예술원에 전시

250m 대형 선화도가 계룡산에 안착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 보관하던 작품은 7월 3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선화예술원(원장 석주)에서 전시를 시작했다.

7월 7일 범진 스님(마곡사 효심원), 혜철 스님(태고종중앙홍보국장), 탤런트 한태일, 박정희 소장(한국무용연구소), 도정자 상임위원(대전학부모협의회)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은 선화도 전시에 맞춰 이운 회향식도 봉행했다.

선화예술원으로 회향된 선화도는 '2003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개원해 조성한 길이 250m의 대형 선화도로 2173명의 달마 대사가 그려진 그림이다. 2173은 유니버시아드 개최 연도 2003에 참가국 수 170을 합한 것. 이 작품은 그해 대구 국채보상공원 야외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작품은 2003년 1월 공주문화원 초대전을 준비하던 석주 화백이 대구지하철 화재로 사람들이 불에 타고 아비규환에 빠진 꿈을 꾸고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 작품이 전시되고 일주일 뒤 2월 18일 실제로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발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두 점의 작품을 위해 마련된 회향식에서는 범진 스님의 범패의식과 박정희 한국무용연구소 소장의 살풀이 공연도 열렸다.

석주 화백은 1980년대에 출가했다가 달마도를 알게 돼 1987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후 그는 달마도를 비롯한 다양한 그림을 그려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수행과 보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날도 행사에 참석한 불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선화도를 그려주기도 했다.

손효선 기자

도서출판 수선재 WWW.SOOSUNJAE.ORG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선재 엮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수선재 엮음 / 356쪽 / 값 12,000원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관상학最高의 秘書
면상비급

절찬리 판매중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관상학의 비법수록!!
관상학의 완결편!!



▣ 관상학을 배우면?

첫째 자신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둘째 자신과 고객이 차별화되어 마주하게 됩니다.
셋째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고객중심의 상담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4×6변형판 / 432쪽 / 값 25,000원

▣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 매주 일요일(오전 10:30~13:00)
문의전화 02)929-4646

기업은행 041-055985-02-010 문해성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청학출판사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불영사
• 법 명 : 원수(김외태)
• 법 명 : 정수(신영숙)
• 주 소 :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162번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정호승 시인의 '그 곳'

선암사 해우소서 삶을 깨닫다

강 사 : 정호승(시인, 아동문학가)
주 최 : 파라다이스 티앤엘
일 시 : 2008년 7월 5일
장 소 : 전라남도 순천 선암사
후 원 : 순천시청, 선암사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 다니고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 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 앞
등 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정호승 作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 中 '선암사' –

시인은 '숨 막힐듯한 현세에서 벗어나고플 때 훌쩍 떠나 선암사 해우소에서 근심을 풀라' 청한다. '10년 전 시인이 기대어 통곡했던 와송(臥松)과 대화 나누라' 한다. 눈물이라는 또 하나의 나와 자연이 포옹하게 하는 작가의 시세계는 오탁(五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화한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시인의 작품에 드러난 사찰풍경이 종교간 화해와 소통의 장으로 거듭난다.

문학서비스단체 문학사랑(이사장 김주영)은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여행사 '파라다이스 티앤엘(대표이사 이창우)'과 매월 1회 시심을 품은 문학기행을 떠난다. 정호승 시인 등단 35년·현대시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찰여행이다. 첫 목적지는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 배경이 된 선암사(주지 경담)다. 이른 아침 서울서 출발한 버스가 순천으로 향하는 동안 기타 반주에 맞춰 백창우 작곡으로 완성된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를 노래로 배운다. 오솔길을 걸어 선암사 산문에 들어서자 포교국장 전각스님이 함박 미소로 여행객을 반겼다.

부처님 마음과 시인의 마음은 많이 닮았습니다. 제 시는 유독 사찰에서 써내려간 것이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성사됐네요. 여행은 일생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인연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선암사 해우소가 우리를 부른 것은 필연일 것입니다. 삶 자체가 눈물인 시대에서 함께 숨 쉬는 우리의 반가운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는 인간 삶의 비극 속에서 꽃핀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이 비극으로 있다면 정말 비극이겠죠. 그러나 비극 속에서 꽃 피기 때문에 시가 됩니다. 시는 생명을 보는 일중 하나입니다.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는 일, 바로 시를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을 시의 힘으로 위안하고 위안받습니다. 비극의 순간에 처한 인간을 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본다' 했지만 저는 모든 인간에게서 시를 봅니다.

마음의 세계. 바닥을 기어가는 등 굽은 소나무에게 삶의 고통을 보았고 그 나름의 비극적 삶을 사는 운명에 동일화합니다. 10년을 아우르는 시공간은 시의 영원성으로 소통합니다.

10여 년 전 선암사 심검당에서 문수보살을 그리는 스님과 다담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해우소를 찾았지요. 현대화되기 전 대궐과 같은 기와집 형태의 건축물로 우리 글 '뒷간'이라 쓰인 대문을 통과하니 남측간·여측간으로 구분돼 있더군요. 들어가는 입구인가에 붓글씨로 '몸 안의 대소변을 배출시키면서 당신의 번뇌 망상도 함께 배출하시오'라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까닭이 무엇인가' 선암사 부처님은 저를 향해 단순한 대소변 배출이 아닌 불쌍한 번뇌 망상을 버리고 가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 딴에는 당시의 번뇌 망상을 버리고자 노력했던 곳이 선암사입니다. 영혼의 대소변, 번뇌의 대소변을 배출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평화롭지 않을까요.

누운 소나무는 어떠합니까. 늠름하게 잘 자라는 여느 소나무와 달리 땅바닥을 기어가며 뻗어나갑니다. '내가 만약 소나무라면 저 소나무와 참 닮았구나. 하늘을 보며 자라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고 땅을 기어가듯 살아가는 소나무의 고통이 나와 같다' 여겼습니다. 번뇌의 관념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나를 어머니 품처럼 보담아준 곳이 바로 선암사입니다.

저는 선암사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번뇌와 망상 그리고 관념들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고 육체의 대소변만 비우며 살아온 저는 시로써 치유를 표현했습니다. 저의 위안을 많은 이들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고 '눈물이 나면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울라'고 청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도 울고 임종 직전에도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눈물이 날 때 선암사 해우소에서 실컷 울어보십시오. 부처님 말씀과 자연의 손길에 위로받으며 고요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시를 쓸 때 언어를 표현한 작가의 느낌을 독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시를 이해하는 기본은 내 생각과 느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인은 작가임과 동시에 독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인의 시어 속에서 내 삶과 연결되는 고리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각을 보면 때론 그 잔혹함에 몸서리칩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한 죄의식도 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이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과정이 바로 문학입니다. 시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을, 더 나아가 자연의 인간을 아름답게 합니다. 시는 바람 한 줄기 은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사찰은 종교적 의미보다 문화적 의미가 강합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상 생전에 절에는 반드시 다녀봐야 합니다. 부처의 길이란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바라보며 자비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서로 바라보는 방법과 존재가 다르고 역사와 과정이 다를 뿐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현실의 문제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통곡을 합니다. 근심을 푸는 해우소에서 세상 시름 모두 놓으십시오. '선암사'라는 시는 인간의 통곡이 인간이기에 지니는 '당연한 통곡'이라 합니다. 괴로움은 인간이기에 지니는 숙명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는 찬란한 바다를 보더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현실의 시련이 인간관계에서 치유되지 못하고 자연으로부터 치유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준 생명력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시인이 됩니다.

시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남의 비밀, 만남에도 이별에도 죽음에도 모두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비밀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모두 압니다.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가시나무에도 아름다운 꽃이 핀다고 생각한다면 힘든 세상살이지만 소중한 자신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 제가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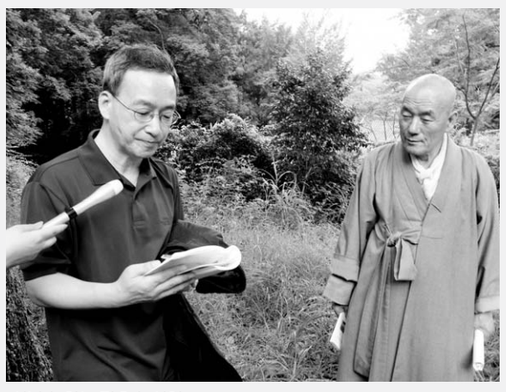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힘이 내재된 마음이죠. 사랑의 본질은 희생 즉 자비입니다.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희생의 방식을 잃었고 이 시대는 사랑을 더 이상 정의 내리기 힘들어졌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사랑, 그 사랑의 기술. 시인은 시를 통해 인간의 비밀 즉 사랑을 구현하고 상처를 극복하게 하는 세계를 그립니다. 저는 그 사랑을 선암사 해우소에서 느꼈고 자아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곳을 선물합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작품에 드러난 사찰풍경 종교간 화해의 장
자연스레 찾은 해우소에서 영혼·번뇌 배출

Tip
정호승 시인과 함께하는 시공간기행은 8월 2일 회순 운주사·쌍봉사, 8월 9일 청도 운문사로 이어진다. 운문사 기행 때는 청담화랑에서 도예가 김용문의 막사발에 그려진 시와 만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파라다이스티앤엘 홈페이지(www.paradisetnl.co.kr)에서 가능하다.



선암사 해우소.


시낭송 하는 정호승 시인.


선암사 둘러보기.


선암사 법당에서 듣는 선암사 역사.

종단 해체 공고

대한불교 구화종

• 사찰명 : 구화사
• 주 소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 92

위 종단(사찰)은 이사 회의에서(2008.7.5)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이에 공고 함

불기 2552년 7월 5일

대한불교 구화종 이사회

- 임 원 -
부이사장 송 경 화
이 사 봉 승 구
이 사 김 해 숙
이 사 진 학 림
이 사 함 용 태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문도를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입 종 안 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종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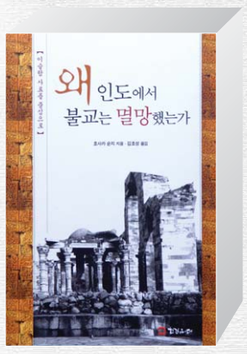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불서읽기 캠페인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한국불교에서도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왜 인도에서 불교는 멸망했는가
호사카 슈윤지 지음 | 김호성 옮김
한걸음더 펴냄 | 1만2000원



인도에 가면 불교가 없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는 고타마 붓다의 고향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1억이 넘는 인도인들 중 불교 신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인도 북부에 남은 불교 성지와 인도 외 불교국가에서 설립한 사원만이 인도불교의 생존을 확인시켜준다.

인도불교의 멸망은 불교라는 한 종교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불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명의 멸망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왜 인도에서 불교는 멸망했는가>는 인도불교 멸망의 다양한 원인 가능성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접근한다. 새로운 사료가 발견될 가능성을 전제하고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 보다 복잡한 원인을 염두에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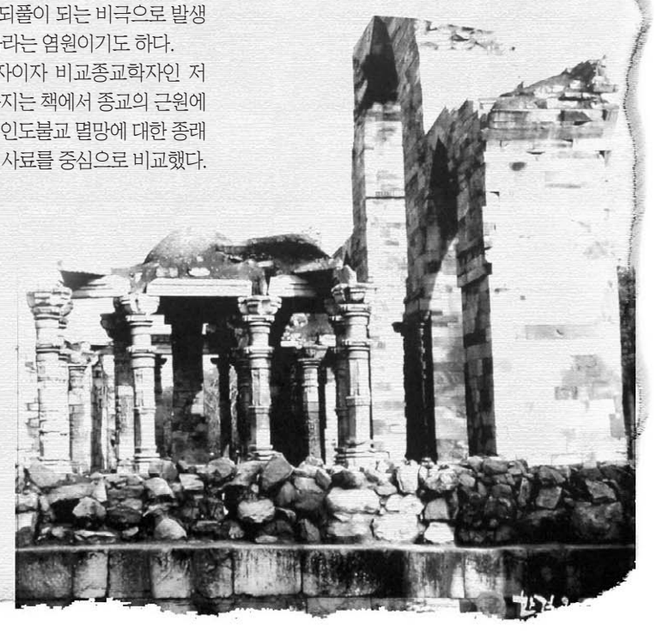
이 책은 7~8세기 서인도 불교 사정을 전하는 이슬람 사료 <차츠나마>를 통해 인도 불교의 멸망 원인을 되짚는다. 배타적 일신교를 표방한 이슬람교 침입이 불교의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의 가르침과 충돌했을 가능성을 제1의제로 둔다. 이로써 사회적 역할과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상실한 불교는 인도에서 몰락하게 된다. 인도불교의 멸망이 불교문명의 멸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불교와 사회화라는 반야의 취모리(吹毛利) 검 양날은 불교의 교리나 사상의 차원이 아니라 불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 문명으로 그 중심에 자리하길 바라는 저자의 문제의식을 내포한다. 인도불교의 멸망이 한국불교에서 되풀이 되는 비극으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기도 하다.

국제경제학자이자 비교종교학자인 저자 호사카 슈운지는 책에서 종교의 근원에 대한 문제부터 인도불교 멸망에 대한 종래 학설과 이슬람 사료를 중심으로 비교했다.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한 과정과 이유를 총 12장에 걸쳐 짚어내며 통찰했다.

역자 김호성은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고대인도철학을 전공했다. 불교문명의 고찰을 시도하며 비교문명론과 비교사상 등의 관점으로 인도 안의 특수한 사상운동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고자 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회적 역할과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상실한 불교는 인도에서 몰락
불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 문명으로 그 중심에 자리하길 바래.

신이 내린 또 하나의 축복



마지막 동의부대장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야기
김승기 지음|공경원 펴냄 | 1만5000원

텔레반에 납치됐던 23인 선교단으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라.

동쪽으로 파키스탄 국경을 마주하고 그 너머에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 강경한 이슬람 국가다.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자비의 인술로 희망과 감동을 전한 마지막 동의부대장 김승기 중령의 파병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30여 년 간 지속된 전쟁으로 황폐화 된 아프가니스탄 의료지원부대 지휘관으로 임무를 수행해 온 김승기 중령의 인간미가 드러나는 수필집이다. 전장의 현장에서 아프간 국민들에게 헌신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해 온 9개월간의 파병 일기는 마치 사바세계의 축소판처럼 담담하게 흘러간다.

저자가 60명의 동의부대 의료진과 함께 고온 건조의 사막기후에서 경험한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은 태극기의 이름으로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었다. 한낮의 흙바람과 러시아 군이 살포한 미확인 지뢰 지대에서 흔들리던 마음의 극락과 지옥은 불법의 '일체유심조'로 다스렸다. 더불어 2천 년 전 간다라 미술을 꽃피웠던 아프가니스탄의 진정한 부활을 축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동의부대의 '동의'는 조선중기 백성을 위해 의료지원에 헌신했던 명의 허준(1546~1615) 선생의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유래한다. 오랜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프간 국민들에게 꿈과 미래의 재건을 위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 김승기 중령과 한국군 의료부대의 정신을 엿본다.

인생을 바꾸는 27가지의 '1% 실화'들



내 인생을 바꾼 1% 가치
윤승일 지음|선돌 펴냄 | 1만2000원

인생의 99%를 결정하는 것은 평범하고 소박한 1%의 가치다.

500원짜리 지폐에 도안된 '거북선'이 한국이 조선 산업의 강국으로 성장하는 1%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삶 속에서 만나는 곤란함에서 방향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을 때 단숨에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저자는 <내 인생을 바꾼 1%의 가치>를 통해 성공의 열쇠는 "길을 걷다 나타난 돌을 '디딤돌'로 여기는 것" 이라고 말한다.

현재 자신의 인생이 정체돼 있다 여겨지고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이들에게 27가지의 1% 실화 속으로 주저 없이 안내한다. 일상이 품은 1%의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는 순간,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열정에 노크하는 그 때 나머지 99%의 위대한 결과는 탄생한다.

가연숙 기자

깨달음과 성찰의 시 100편 수록



세이암에 꽃이 피면
법공 지음|현대북스 펴냄 | 9000원

지리산 삼신동 세이정 아래 화개동천 물소리만 닿는 작은 토굴, 지리산 야생 녹차와 달마도로 수행 정진에 매진해온 법공(법화선원 주지) 스님의 지혜 법문이 시집으로 나왔다.

스님은 '처처불(處處佛)이요, 심심불(深心佛)'이라는 불도의 진리를 달각한 듯 미묘한 시심속으로 안내한다. 마치 불가에 귀의해 초월의 경지에 이른 법문을 듣는 듯하다.

시화집 <세이암(洗耳岩)에 꽃이 피면>에는 스님의 2002년 월간한국시 신인상 수상작 '걸망 하나 짊어지고' '밤에는 밝은 달' '산나물 뜯고 와서' 외에도 깨달음과 성찰의 시 10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법공 스님은 시조문학 뿐만 아니라 선화에도 조예가 깊다. 시화집 속에는 달마도와 여러 서화작품도 함께 담겨 있다.

박지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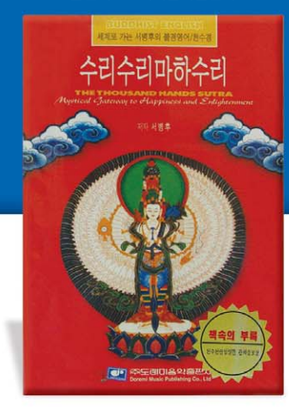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3	원력	혜인	클리어마인드
4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5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6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7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김일수	도피안사
8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9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10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깨달음이 깊어지면 너의 전 존재가 춤을 추리라"

譯者, 책을 말하다



춤추는 꼿

아다샨티 지음 | 유영일 옮김

역자 유 영 일

소설가를 꿈꾸었으나 흘러넘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면의 가난함을 절감하고, 정신세계의 탐험에 몸과 마음을 담그기 시작했다. 온갖 오해와 편견으로 물든 자신을 발견하고 몇 차례의 큰 울음과 함께 내면의 신성한 빛을 체험한 이후, 빛의 확장을 위한 수행과 글쓰기를 인생의 가장 큰 숙제로 여기고 산다. 옮긴 책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마음의 습관〉 〈내 안의 나〉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는 〈나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

깨달은 자의 으뜸가는 자질은 무엇일까? 아마도 대자유함일 것이다. 깨닫지 못한 범인(凡人)은 가둔 자가 없어도 스스로 욕망의 성에 갇혀 산다. 내 성을 더 높이, 내 창고를 더 가득 채울수록 내 삶이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습관적인 믿음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 자유의 숨통을 조이기 일쑤다.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갖가지 의무조항과 내일을 위한 시간표에 쫓기다 보면 자유와 풍요가 함께 동행 하는 삶은 늘 요원하기만 하다. "…하게 되면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조건들은 늘 저만치에서 모습을 달리 하며 유혹을 계속하고, 끝날 줄 모르는 운명의 장난에 지치다 보면 불현듯 거울 앞에 서서 진정한 나 자신의 주소를 확인하고 싶어진다.

구도 여정은 삶에 대한 무상과 덧없음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출발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원소들이 임시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니 집착할 거리가 못 된다는 불교적 인생관은 양자물리학의 물질에 대한 본질 규명으로 더욱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이다.

'텅 비어 있다'는 자각은 구도 행각의 첫 단추에 지나지 않는다. 무상하지? 덧없지? 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출발하는 구도 행각은, 삶에 대한 절대긍정과 설법에 감동을 받아 본성의 깨어남을 체험하는 이들이 많다.

그는 온전한 깨달음은 머리와 가슴과 아랫배의 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머리로 선연하게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전체가 춤을 추려 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깨달음이 털 익은 것이라고 말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안에서, 밖에서, 너머에서 존재하는 광대한 고요함과 사랑의 침묵에 자신을 한없이 열어놓는 대자유함이 곧 깨달음이며, 우리 인생이란 이러한 '공(空)이 춤추는 것'임을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보여준다.

본성에서 깨어난 그에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체험되었던 만물의 모든 경계가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나와 너의 상대적인 세계가 사라지고, 절대의 '하나'만이 남게 된다. 모양과 빛깔이 저마다 달라서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보이는 세상과 우주가 하나로 보인다는 것은, 가리고 분별하지 않을 것이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다. 그 상태에서는 설령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입을 여는 순간 천리만리 어긋나 버린다. 진리라는 언어 또한 진리가 아닌 세계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눈푸른 선승의 세계는 '가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저절로 명백하리라'라고 했던 3조 승찬의 신심명 첫머리와 겹쳐지고, '지난해 가난은 송곳 꽂을 땅이라도 있었건만 올해의 가난은 송곳마저 없구나'라고 노래한 향엄 선사의 게송과도 황금의 맥으로 통하게 된다.

쉬운 언어로 설파한 대자유로 가는 길
"상대적 세계 사라지고 절대 하나 돼야"

대자유함에서 막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깨달음의 여정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것이다.

깨달은 자가 누리는 대자유함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넘친다. 깨달은 인생은 막힌 데가 없이 훤히 뚫려 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계와 우주를 향해 열린 가슴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성자들의 삶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는 자극제가 되고 촉매가 된다.

열아홉 살에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이후 15년 동안 선(禪) 수행에 매진하던 저자는 새벽을 깨우는 새소리를 듣고 새와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통렬한 자각으로 깨달음의 첫 수확을 거두었다. 이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안과 밖과 너머에 있는 광대한 고요함과 사랑의 침묵이 곧 수많은 선각자들이 말하는 공(空)의 실상임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이를 살며 사랑하며 가르쳐 왔다. 스승의 요청에 따라 96년 이후부터 대중을 만나 깨달음의 세계를 가리켜 보임으로써 21세기 지구촌의 주목할 만한 영적 교사로 떠올랐다.

투명에 가까운 푸른 눈동자가 마음속 알음알이를 풀어 헤치도록 만든다는 그의 제자들 중에는, 삶의 실상과 우주적 진리를 가리켜 보이는 그의 알기 쉬운 설법이 담겨 있다. 진정한 스승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자기를 깨닫도록(Self-realization)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여행의 도구를 제공해 주며, 내적인 흐름을 자극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궁극의 진실이 우리 안에서 꽃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결국 모든 알음알이를 벗어나 텅 빈 손으로, 지향하는 바조차 없이 무장해제되어야 한다. 아다샨티는 정확히 그 길을 가리켜 보여준다. 눈 밝은 선사들의 언어가 그런 것처럼, 그의 언어들은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의 패턴과 감정적인 반작용을 찢어발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세계관을 뒤집어엎고 우리를 뒤흔들어 마음의 기만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열림은 우리에게 생생하고 활력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새롭고도 신선한 삶의 방식을 계시해준다.

이 책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또한, 광대한 근원의 열림 안에서 모두를 깨우기 위한 한 서양인 선사의 춤이다. 그의 공(空)이 추는 춤이다.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

–연재를 시작하며

"자주 만나는 경전 주제로 쓸 터"

사람이 늙으면 시간보내기가 걱정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다. 나도 어언 80고개를 넘고 보니, 찾아오는 이도 눈에 띄게 줄었고 찾아갈 데도 마땅치 않아 그저 옛일을 회상하거나 공연한 망상이나 피우게 된다.

그러던 중에 현대불교신문사로부터 "우리 독자들을 위해 글이나 한 편 써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그게 또한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읽어서 유익(有益)하게 쓰자니 식견이 부족하고, 보아서 재미있게 쓰자니 기교가 없다.

經은 성현의 말씀 典은 서적을 의미
바른 삶 가르치는 공개된 궤범 담아

그래서 생각한 것이 파적(破寂)의 일환(一環)으로, 내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경전(經典)을 주제(主題)로 '경전이야기'를 시간이 허용되는 한 써볼까 한다.

우선(于先) 경전이란,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경(?)은 성현(聖賢)의 말씀이 담긴 책이란 뜻이다. 또 전(典)이란 전적(典籍) 즉 서적군(書籍群)이라는 뜻으로서 이를 합치면 "성현의 말씀이 담긴 서적(書籍)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성(聖)이다 현(賢)이다 하는 칭호(稱號)를 붙였을까. 통설(通說)로는 '정의(正義)를 위해 고절(苦節)을 감내(堪耐)해 낸 이를 현이라 하고,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복지구현(福智俱現)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를 성인이라 한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의 말씀은 지역이나 인종의 이해 차별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여 마치 공기와도 같고, 햇볕과도 같으며, 신비롭기가 신(神)의 화현(化現) 같기도 하므로 신(神) 선(仙) 불(佛) 왕(王) 대자연(大自然) 등의 수식어(修飾語)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이란, 원래 베[布]를 짤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날이란 일정길이의 똑같은 실, 수십 개를 평면으로 베틀에 늘여놓고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번갈아 상하로 바뀌면서 사이를 띠우면 그 사이를 북[梭]이 드나들면서 한 올, 한 올 짜서 베가 이루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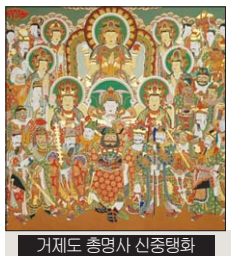
베에 날이 있음으로써 씨올이나 수(繡) 문양(紋樣)등이 흩어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듯이, 성현들의 언동(言動)도 그와 같이 공평무사하여 바르게살기를 희망하는 모든 인류의 항상 공개되어있는 궤범(軌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적은 책은 일반적인 서적이 아니라 경이라 일컬어온 것이다.

그 밖에도 간혹 세간사(世間事)를 이야기했으되 그 깊이가 신묘한 경지에 이른 것을 경이라 칭하였으니, 시경(詩經)이나 서경(書經)등이 그것이다. 때로는 역시 세간사(世間事)를 논하였으되 그 경지가 심오한 것에는 역시 경이란 이름을 붙였으니, 이는 그 내용이 살아가는데 크게 이로움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들이 자신들의 교리서(敎理書)를 경이라 부르면서 그 위세를 크게 떨치고 있으니, 자신들이 신봉하는 성인들이 동양의 성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계속〉

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법성게 출간



보은 전등록 전5권 / 보은 무문관 / 보은 벽암록
보은 천부경 / 보은 금강경 / 보은 신심명 / 보은 증도가
보은 반야심경 / 보은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보은 환단고기 전5권 / 보은 법융선사 심명
보은 선가귀감 /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훌륭한 선승이 되길 바라는 마음

오늘의 禪語

㉗ 방(棒)

선승들이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례적으로 행하는 격식이 있습니다. 법상에 앉아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큰 방망이나 주장자를 높이 들어서 좌우로 한번 흔든 다음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꽝' 내려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집중하던 대중들은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모습과 주장자 소리에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요(靜) 속의 울림이라고 할까? 좌중을 일순간에 압도하는 이 주장자를 '방(棒)'이라고 합니다.

무언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는 방편
언어·문자로 표현할 수 없을때도 사용

'방(棒)'은 선원의 종장(宗匠)이나 조실스님이 사용하는 지휘봉 같은 것으로서, 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할 때는 '방의 역할을 하고, 다닐 때는 주장자(지팡이) 역할을 하고, 방에 앉아 있을 때는 그것을 짚고 사색하기도 하고, 또 좌선 후에는 허리를 펴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원에서 '방(棒)'은 '할(喝)'과 마찬가지로 주로 제자나 수행자들을 훈육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번뇌 망상이나 사량 분별심, 알음알이 등을 갖지 말라고 질책할 때, 제자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을 때, 고정관념을 타파시키고자 할 때,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또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선의 경지를 표현할 때도 '방'을 사용합니다. 선은 언어도단이므로 무언의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문을 하기 전에 '꽝' 하고 내려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선의 경지를 '방'을 통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안다면 그는 선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棒)'은 '봉'이라고도 발음합니다. '몽둥이'라고 할 때는 '봉'이고, '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방'입니다. '방(棒)'은 '몽둥이로 치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몽둥이로 치는 것이 아니라, 갖고 다니는 막대기나 주장자 또는 지휘봉 같은 것으로 가볍게 어깨를 '탁' 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듯 큰 몽둥이나 야구방망이 같은 것으로 친다면 어깨나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선어록을 읽다보면 종종 '일돈방(一頓棒)' '삼돈방(三頓棒)' 또는 '삼십돈방(三十頓棒)'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돈(頓)'은 횟수를 말하는데 일돈방은 한 번이고, 삼돈방은 세 번입니다. 그렇다면 삼십돈방의 경우는 30번을 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친다면 그날로 병원에 실려 가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를 훈육시키는 교육적 차원의 '방'이 아니라 상대방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가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뻥(風)'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30돈방을 실제로 때린 숫자로 이해하지 말고 알음알이나 번뇌 망상이 워낙 많아서 '그 정도로 맞아야 한다' 또는 '30방쯤 맞아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 '한참 더 공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순진하긴 해도 아직 '애송이 티'를 벗지 못한 것입니다.

'방'을 가장 많이 쓴 스님은 당 말의 선승 덕산(德山, 782-865) 화상입니다. 그는 수행자들을 지도할 때 걸핏하면 '방'을 사용하여 '덕산방'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는데, 수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사정없이 후려쳤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즉석에서 질책했다'는 뜻이지, 실제 때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방'을 쓴 스님은 의외로 육조 혜능 선사입니다. <육조단경> 남돈북점(南頓北漸) 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승 혜능이 제자 신회를 향하여 주장자로 세 번 땅바닥을 내려쳤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는 의미임). 그러자 신회가 여쭈었다.

"화상께서는 (눈을 감고) 좌선하고 계시니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스승 혜능이 말하였다.

"내가 (주장자로) 너를 내려쳤으니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신회가 대답했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 선문답의 핵심은 스승 혜능의 말로서, "내가 너를 내려쳤으니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주장자'나 '막대기'로 땅바닥을 "꽝 꽝 꽝" 세 번 내려친 것입니다. "아프냐?"고 물었다고 하여 때린 것이라고 해석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기서도 본다면 사실 스승 혜능이 몽둥이로 내려친 것은 신회의 육체가 아니라 방바닥입니다. 하지만 제자 신회의 마음에 와 닿은 굉음('꽝')은 직접적으로 맞은 것 이상입니다. 여기서 '방'은 사실 하나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덕산 화상이 즐겨 사용했다고 하는 '방' 역시 화두로서 언어도단의 선의 세계를 표현할 때, 또는 '꽝' 하고 내려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행동은 거칠어도 마음속으로는 '이 방의 의미를 깨달아서 훌륭한 선승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음을 터득하게 하는 무언의 교육방법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육근의 근본 분명히 깨닫는 것이 道

㉗ 보금녀

대가섭과 나눈 토론 선문답과 유사…대승불교 정수 담아
보금녀가 설법할 때 500의 보살들이 무생 법인 얻어

대승경전에서는 여성 수행자들이 '여성 성불' 혹은 '여성의 몸을 남성으로 바꾸지 않고 성불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주제로 여러 성문 비구나 대승 보살들과 문답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법화경>에서는 8세 용녀가 '변성(變性: 여성이 남성으로 바뀐 후)성불'하는 장면이 보이지만, <해룡왕경>에서는 반야공관(般若空觀)을 설하며 변성성불이라는 고정관념마저 무너뜨린다.

<해룡왕경> 제14 '여보금수결품(女寶錦受決品)'에서 1만 명의 용부인들과 함께 성불을 서원한 해룡왕의 딸 보금녀(寶錦離垢錦)는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대가섭과 일대 논쟁을 벌인다. 교단 내 보수적인 지도자로 묘사된 대가섭이 여성들의 성불서원을 듣고 일렀다.

"위없는 정각은 얻기가 매우 어려우며, 여자의 몸으로는 불도를 이룰 수 없을 것이오."

보금녀가 대가섭에게 말했다.

"마음과 뜻이 본래 청정하여 보살도를 행하는 이는 성불하기 어렵지 않으니, 저 도(道)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성불하기는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며, 때맞춰 능히 모든 신통한 지혜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곧 일체의 불법을 거두어 지닐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불도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지만, 남자의 몸으로도 또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공의 측면에서 따져보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으며,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도 모두 공합니다. 이와 같이 허공(虛空)과 적정(寂靜)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으니, 만일 능히 눈의 근본을 분명하게 알아 분별한다면 곧 도(道)라고 이름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금녀는 대가섭과 긴 문답을 나눈다. 불꽃튀는 토론은 마치 한 편의 선문답을 보는 듯하고 대화의 깊이는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다음은 대가섭과 보금녀의 이어지는 문답.

"그대와 같은 말재주라면 오래지 않아 마땅히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와 최정각(最正覺)을 이룰 것입니다."

"만약 가섭께서 최정각을 이루신다면, 그때 저도 또한 마땅히 최정각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끝내 최정각을 이루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법신(法身)을 아는 이는 도(道)가 머무를 바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데 머물러 최정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금녀가 이를 말할 때 500의 보살들이 법인(法忍: 불생불멸의 진리)을 얻었다.

부처님께서 이 대화를 듣고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이 법을 통쾌하게 잘 말하였도다."

마지막에 부처님은 보금녀를 칭찬하고, 보세(普世)여래가 되리라는 예언을 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는다. 여기서 기존교단의 '여성성불' 불가설을 비판한 보금녀의 대승 반야사상이 부처님의 본뜻에 더 부합한다고 <해룡왕경> 편찬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이 증명한 보금녀의 "도(道)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성불하기는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말을 깊이 받아 지녀야 한다. 이는 '마음을 직관함으로써 부처의 깨달음에 이른다(直指人心 見性成佛)' '한번 뛰어서 바로 여래의 경지에 도달한다(超直入如來地)'고 하는 선(禪)의 종지와 맥을 같이 한다. '처음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그 안에 이미 깨달음이 성취되어 있다(初發心時便正覺)'는 계송 역시 우리는 남녀를 떠나 본래부터 '부처 아들(佛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직도 자신이 법왕(法王)의 아들 · 딸이 아니라 구제불능의 중생이라 여기는 이가 있다면, 마음을 텅 비우고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며 '구원성불(久遠成佛)'의 뜻을 참구해 봐야 한다. '구원성불'이란 부처님이 어제 · 오늘에 성불한 것이 아니라, 구원겁 즉 무한한 시간 전에 이미 부처였다는 말이다. 즉, 아주 오래 전에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였다는 법문이다. 이 법문을 절대 확신하는 사람은 육조스님이 말한 바와 같이 <법화경>을 굴릴 것이요, 반신반의하는 자는 여전히 <법화경>의 문자에 굴림을 당할 것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청소년 위한 명상캠프 열려**=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는 7월 25~27일 우이동 도봉청소년수련원에서 명상캠프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에게 마음 다스리기와 나를 찾는 내면 여행의 기회가 될 이번 행사는 마음 고요하게 다스리기, 자신의 행동 조절하기, 자신과 친구,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생활태도 갖기를 목적으로 열린다. ▲자연, 느낌과 하나 되는 오감명상 ▲고요한 마음과 친구하는 호흡명상 ▲심신의 휴식과 활력을 찾는 명상요가 ▲숲속 걷기, 심림욕장 체험활동 ▲가족세우기와 심리극 ▲다양한 표현예술기법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준비한 행사는 (선착순) 중 · 고등학생 20명만 참가할 수 있다. (02)2236-5306

●**쌍계사 템플스테이 여름 수련법회 '본 마음 참 나'**=하동 쌍계사가 '본 마음 참 나'를 주제로 여름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7월 27~30일, 8월 1~4일에 열린다. 통광 강백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상훈 스님(쌍계사 주지),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무공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김동곤 이사장(쌍계제다) 등이 강사진으로 포진했다. 불교음악 강의에서는 범패 시연과 바라춤, 소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동참금 10만원 (055)883-1901

●**양정청소년수련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이 7 · 8월 두 달간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속성한자, 재즈에어로빅, 웰빙건강요가, POP 예쁜글쓰기, 라틴댄스, 기아금, 한국무용, 체형교정발레교실, 힙합댄스, 매직잰잉글리쉬, 어린이공작과학 · 미술, 다도교실, 신나는 음악줄넘기, 어린이스피치, 신나는 힙합댄스, 청소년한자여행, 해리포터미술교실 등을 개설한다. (051)868-0750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변비 숙변과 함께 내몸을 "냉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철원의 토종특산물인 냉초(산 편초)를 식품화 하여 식약청의 인증을 거쳐(식규 번호 65421-1392 철원 제1-45) 제조원 철원 냉초로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분이 변비,숙변,냉증,생리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성분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숙취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냉초를 식품화하기에 이르렀으며 조금이나마 국민 건강에 이바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본 제품을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철원 냉초를 드셔보신 많은 분들로 부터 다른 제품보다 월등히 효과를 보았다는 전화를 받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냉초라는 제품을 알리는데 더욱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기(한국 토종약초)
한국 토종약초 냉초의 우수한 요과를 경험하여 재배하고 제품화한 동기는 저의 아내가 변비와 냉증이 심해서인지 아이가 들지 않던 중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냉초를 집안에 전해 내려온 비법으로 냉초액상을 만들어 복용하여 변비와 냉증은 물론 임신의 행복을 받았습니다.
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033)452-8196 / 033)452-1232

수제 진품 동달마

수맥,전자파 차단은 물론, 잡귀를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오는...
소장용 정통 "氣" 달마(達磨)
20여년간 동양학 및 역명학을 연구해오신 하전(夏田)선생의 진품 달마도!
면벽좌선으로 응결된 보리달마(菩提達磨)의 정신세계를 가장 잘 표현 했다고 인정받는 수작(秀作)!
그 최고의 작품에다 동공예전문장인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기계로 찍어낸 달마도에는 氣가 있을리 없습니다.
동(銅)으로 입체화된 달마는 새로운 생명장(氣)을 방사합니다.
100% 수작업 입체동달마는 엄선된 동공예 작가들이 명예를 걸고, 전체 18번 수작업 공정을 거쳐 완성된 명품!!
소장품으로의 가치를 지닌 명품입니다.
◆최고급 선물 ◆가정의 수호 소장품
●자매품 : 주목, 불상, 관음상, 달마, 포대화상, 괴목좌탁
달마 전문 갤러리 송파아트
02)400-1908 / 02)400-3704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부천역 3층 이마트앞 북부역쪽 300m 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15-5575
휴대폰 :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마음의 쓰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어”



금정산 중허리쯤에 위치하고 있는 대덕사 법당은 ‘적멸보궁’이라는 현판을 달고 있어 호기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그리고 대덕사 적멸보궁의 문을 열어 제치는 순간 경주 석굴암 부처님이 대좌하고 있어 흠칫 놀라게 된다. 적멸보궁에 불상이 모셔져 있는 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석굴암 부처님이 어떻게 여기를 오셨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갈 만큼 규모가 크고 위엄이 있다.

올해 세수가 일흔 아홉이신 지원 스님의 첫인상은 포대화상을 연상케 할 만큼 따사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웃으실 때 그 웃음 또한 호탕하고도 넉넉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덕사 달마선원에서 재가자들과 같이 동안거 하안거 결제를 하여 마음공부를 이끌었다. 올해는 지원 스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결제를 하지 못했다.

“육신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저 수용하는 수밖에 없지. 마음에 막힘이 없으면 생로병사에 끄달리지 않아요.”

적멸보궁의 연유부터 묻자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에 대한 내역이 적힌 문서를 한 장 건네주셨다.

“옛 카필라 궁터 고분에서 석가모니 사리를 모신 석함이 발견되었어요. 그게 1898년이었어요. 석함에는 골편과 함께 영롱한 빛을 띤 몇 과의 사리가 모셔져 있었는데, 그중 1과를 여기 대덕사에 모시게 되었지요. 1981년 12월 네팔 종정 아미타난다 대승정이 국제불교 아카데미학회 회장인 김광택 박사에게 국제불교에 대한 우의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지원 스님은 경주와 인연이 있어 갈 적마다 석굴암 부처님을 친견했다. 석굴암 부처님 앞에만 서면 신심이 더욱 도타워지고 자신의 초발심이 오롯이 되살아나는 듯해서 대덕사 법당에 모시게 된 것이다.

지원 스님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이야기가 서려있는 경남 의창군 북면에서 태어나 열다섯 때 고향 집을 등지고 통도사 극락암 선원으로 출가하였다. 경봉 조실스님을 모시고 삼년간 불목하니처럼 나무하여 불을 지피기도 하였으며 공양간에서 밥 짓고 채공노릇하면서 행자수업을 하였다. 지원 스님은 어떤 일을 해도 힘들다는 생각 없이 하였다고 한다. 출가의 뜻을 참선수행에 두었기에 행자생활을 마치고 전국의 선방을 넘나들었다. 범어사, 해인사, 동화사, 통도사, 부석사, 도리사 등 이십여 년 동안 전국의 선방을 두루 다 거쳤으니 차라리 머물지 않았던 선방을 꼽는 것이 더 쉬울 듯하다.

지원 스님에게 법을 전해주신 분은 선사(禪師)과 교(敎)를 두루 섭렵한 설봉(雪峰) 학몽(鶴夢 1890~1969) 스님이신데, 설봉 스님은 만공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고,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제자다. 그러니 지원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잇고 있는 것이다.

설봉스님 뜻 받들어 ‘선문촬요’ 출간

“禪은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닦아야”

하루는 설봉 스님의 상당법문이 있어 대중들이 법당에 모였다. 그때 설봉 스님께서는 법상에서 주장자를 높이 들어 보이면서 한 마디 물었다.

“이 주장자를 보느냐? 대중들은 한마디 일러라.”

대중들은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잠잠하기만 한데, 그때 지원 스님이 일어나서 “지나갔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설봉 스님은 “다시 한번 일러라”하고 재촉했다. 지원 스님은 또 다시 “지나갔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설봉 스님께서는 “아니다”하고 딱 잡아 떼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지원 스님은 다시 일렀다. “진언(眞言)은 불기심(不起心)입니다.”

이 말에 설봉 스님은 주장자로 법상을 내리치면서 대중들을 향해 일렀다.

“백년삼만육천일이 반복해서 돌이켜보니 원래 자기더라(百年三萬六千日 反復只者漢).”

지원 스님의 공부가 무르익었음을 알고 인정한 것이다. 그때 지원 스님은 30대였다고 하니 약관의 나이에 깨우쳐 버린 것이다. 지원 스님은 스승님께 오도송을 지어 바쳤다.

석가도 나의 스승이 아니요(釋迦非我師)/ 부모도 나의 친한 이가 아니다(父母非我親)/ 누가 가장 친한 자인고(誰是最親子)/ 네 신하가 어둡지 않다(四臣不昧也).

여기서 네 신하란 “안이비설(眼耳鼻舌), 보는 놈, 듣는 놈, 냄새 맡는 놈, 맛보는 놈”을 가리킨다.

설봉 스님은 제자인 지원 스님에게 전법게를 내렸다.

금산의 큰 지혜, 근원을 얻는 자는 불도를 이루나니((金山大智源 得者成佛道)

예전부터 인천의 스승들이 이것으로 중생을 건지니라(上來人天師 以此度衆生)

이렇게 해서 지원 스님은 설봉 스님의 법제자가 되었다.

“설봉 스님은 시(詩)에 뛰어나신 분이요, 선문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선문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선문촬요>를 오십 년 전에 우리 스승이 현토해서 범어사, 불국사에서 가르쳤어요.”

설봉 스님이 현토한 <선문촬요>를 가지고 지원 스님이 십년에 걸쳐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펴냈다. 지원 스님은 <선문촬요>를 펴내면서 ‘과거칠불(過去七佛)’과 삼십삼조사의 전법게와 태고보우 선사, 불일보조 선사, 경허성우 선사의 행장을 첨부하였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달마 대사의 <반야심경>과 <오성론> 보조 국사의 <원돈성불론> <오종가풍> 육조대사의 <자성진불게>와 승찬 대사의 <신심명>과 영가 대사의 <증도가> 등을 첨부하여 발간하였다. 지원 스님이 펴내신 <선문촬요>는 그야말로 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과서임에 틀림없다.

“선은 배울 것 없다, 불립문자 언어도단이라고 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사바세계는 음성교체라,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심전심이라 해도 말을 안 하면 어찌 서로를 알 것이며, 책을 안 보면 앞서 간 이들이 설한 법을 어찌 알겠어요.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닦아야 합니다.”

선을 두고 다들 어렵다고 하기에 그 연유를 물었다. “자기 경계대로 말을 하니까 선이 어렵다고들 하지요. 선, 이 자리는 쉽고 어려울 것이 없어요.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 스님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선문촬요>를 우리말로 펴내었고, <설봉학몽대선사 선문염송법문집>과 더불어 470쪽에 이르는 스승의 법어집 <설봉대전>을 펴내었다. <설봉대전(雪峰大全)>은 후학 참선수행자들에게 큰 지침이 되고 있다하니, 불가에서 흔히 하는 말로 지원 스님은 ‘밥값을 톡톡히 해내신 것’이다.

‘너그러우면 법계에 두루하고 좁으면 바늘 끝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라 하니 마음의 쓰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행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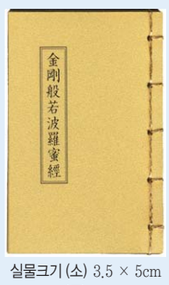
문윤정(수필가 본지논설위원)



지원 스님
(대덕사 달마선원 조실)

1946년 범어사에서 호월(湖月) 스님을 은사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1950년 해인사에서 상월(霜月)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범어사, 해인사, 동화사, 통도사 극락암, 부석사, 도리사, 문수사(울산) 등 전국의 선원에서 20여 년을 참선수행하였다. 설봉 학몽 선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았다. 부산 대각사, 범어사 내원암, 강화도 보문사, 마곡사 주지 소임을 맡아 일하였다. 범어사 안양암, 계명암, 내원암 등의 선원장 소임을 맡기도 하였다. 부산 대덕사를 창건하였고, 현재는 대덕사 회주 및 달마선원 조실이다. 편 · 저서로는 <우리말 선문촬요> <설봉대전> <설봉 학몽 대선사 선문염송 법문집> 등이 있다.

선지식을 찾아서 지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장 의 식 상 량 식 불 장 사 용 소 가 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올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46 머위 깻잎무침

파릇하고 연한 머위 새순의 쓴맛을 보면 일년 내내 큰 병 없이 지낸다는 옛말이 있다. 한방에서는 '쓴맛'이 개위(開胃·위의 활동을 돕다), 조습(燥濕 · 기운을 돋우다), 사화(瀉火 · 열을 내리다)의 효능을 지녔다고 전한다.

인삼의 쓴맛은 널리 알려졌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알로에는 아라비아어로 '쓰다'는 뜻이다. 녹차의 알싸한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머위는 데친 물에 담가 쓴맛 우려내야

쓴 맛은 심장, 소장 강화·혈액청정 효과

쓴맛은 흥분을 진정시키고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 화가 나고 놀랐을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 심장과 소장을 강화해 피로 회복을 돕고 위액이 잘 분비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쓴맛을 즐기면 피가 깨끗해지고 혈색도 좋아진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 쓴맛이 강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금주에도 도움 된다.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 몸이 찬 사람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머위 외에도 쓴맛에 해당하는 음식은 수수 · 팥 · 적포도주 · 홍차 · 자몽 · 커피 등 붉은색 음식과 더덕 · 도라지 · 칡 등 뿌리채소, 냉이 · 상추 · 샐러리 · 쑥 · 아욱 · 고들빼기 · 씀바귀 등 채소가 있다. 쓴맛은 춘곤증 해소에도 도움준다. 봄나물이 자꾸 나른해지는 몸에 원기를 불어 넣는 것도 봄나물 특유의 쌉싸름 한 맛과 무관하지 않다. 데친 후 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내야 하는 머위는 동맥경화도 예방한다.

나물 맛은 쓴맛의 각성효과를 아는 나이가 돼야 제대로 안다고 한다. 음식과 약재의 쓴맛만 지친 심신을 깨울까. 인생의 쓴맛 역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다. 산촌 (02)735-0312



머위 깻잎무침

재료 : 머위줄기, 두부, 깻잎, 된장, 깨소금, 참기름.

만드는 법

① 줄기가 말랑하게 머위를 삶아 바로 찬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 굵직하게 가른다.
(머위줄기가 푹 무르지 않으면 질기고 금방 색이 변하니 주의한다.)
② 머위를 크기에 따라 4등분 또는 2등분 해 줄기를 3cm 길이로 썬다.
③ 깻잎을 씻어 잎을 가지런히 포개 세로 3cm 가로 1cm 로 썰어둔다.
④ 두부는 머위의 반 정도 무침 그릇에 넣고 된장 • 참기름 • 깨소금을 넣어 손으로 으깬다.
⑤ 모든 재료의 맛이 살아나도록 된장 간을 맞추며 두부를 으깬다.
⑥ 두부 덩이가 방울방울하게 으깨지면 머위를 고루 무친 후 깻잎을 넣고 슬쩍 무쳐낸다.



청오 스님의 청다향 이야기 ❼

화재 위험 없이 향기로운 법당으로

청다향을 사용한 이들 가운데는 피부가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고, 농촌에서 매일 장화를 신어 생긴 무좀이나 주부습진이 나았다는 사람도 있다. 청다향에 가득한 피톤치드 편백 향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졸음도 없애 준다며 운전할 때마다 차문을 꼭 닫고 향을 느낀다는 보살도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TV에는 식물 향기가 두뇌를 활성화시켜 학업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프로그램도 방송됐다. 신문에는 사찰의 태우는 향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보도(한겨레, 중앙일보) 이후 향로를 없애는 사찰이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었다.

태우는 향을 만드는 과정에는 자연향 재료를 건조해 분말하는 공정이 있다. 건조 과정에서 열이 일어나 향기 성분 중 반 이상은 공기에 희석돼 날아간다. 가루를 향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 접착재료로 사용하는 누릅나무와 해초는 원재료인 향의 발산을 막는다. 나머지 10% 잔류 향 성분에서 상큼한 향기로움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태우는 연기에서 꽃향기를 그대로 피워내겠다는 것부터 자연 원리와 맞지 않을지 모른다. 이런 이유에서 외국 향 가운데는 인위적으로 화학 향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신문에서는 이 첨가물을 태우는 것에 유해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청다향은 사찰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만들었다. ▲청자 생향기(향로)는 공간에 따라 조명 조절과 향기를 조절해 피우는 것이 가능하다 ▲성냥이나 인화물질이 필요없어 화재 염려가 없다 ▲자연 가습장치까지 겸한다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청다향은 법당에서 사용시 신도가 직접 향합에 한 방울 넣거나, 스님이 향다기 물에 향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신도들이 작은 차 스푼으로 쉽게 분향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젠 법당도 연기에서 멀어지게 됐다. 화재 위험도 없다. 태운 재가 날리지 않아 맑고 향기로운 법당을 열 수 있다.

청다향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밤새 곁에 두어도 머리가 맑아져 피로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른 봄 깊은 산 쑥을 캐고 여름에는 박하 등 일년생으로 향을 뽑고 가을에는 다년생에서 열매의 향기를 체취하고 겨울에는 솔잎 등 상록수에서 농축된 향기를 뽑아냈다. 청다향은 원력으로 다진 다년간 수행의 결과물이다.

청다향을 만든 인연을 회고해보니 누군가 한사람은 미쳐야만 했는가 보다. 잎 하나 열매 한알 눈으로 보고 직접 준비해 향을 병에 담는 것까지, 어느 누구 손 하나 빌리지 않고 만들었다. 부처님 향공양 한 방울을 위해 고통 속에 방황하며 일생을 돌아 여기까지 살아왔나보다. (055)941-1083 <끝>



health 치아 건강 칼럼 column

소중한 이 치과 안은영 원장

34 앞니·잇몸라인 성형술

아름다운 치아로 자신있게 웃으세요

첫인상 결정에는 미소가 중요하다. '미소'는 입술과 잇몸라인, 치아의 적절한 조화로 만들어진다. 매력적인 미소는 치아 크기와 형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앞니 성형술과 잇몸라인 성형술을 통해 가능하다.

잇몸이 너무 내려와 치아가 납작하고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치아를 덮고 있는 잇몸을 1~3mm정도 잘라내면 정상적인 치아모양을 가질 수 있다. 잇몸라인 성형을 통해서는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gummy smile) 현상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또 검게 착색된 잇몸은 잇몸색소 제거 치료를 하면 매우 쉽게 분홍색 잇몸을 가질 수 있다.

앞니 성형 및 심미 치료는 앞니에 충치가 생기거나 부러진 경우, 또는 앞니가 보기 흉한 경우 앞니를 심미적인 모양과 크기, 색으로 만들어 씌우는 방법이다. 치아와 유사한 세라믹 재료를 이용해 치아를 자연스럽게 가공해 사용한다. 세라믹 치아는 자연치보다 더 자연스러울 만큼 치아의 투명도와 색조, 모양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앞니 성형 재료다.

앞니 사이 공간이 있거나 모양이 안좋거나 크거나 작은 경우, 앞니가 변색된 경우 등에 앞니의 앞부분만 살짝 다듬은 후 세라믹으로 치아의 앞부분만 새로운 모양과 색으로 얇게 만들어 손톱 붙이듯 앞부분만 덧씌워주는 방법도 있다. 이 치료방법의 장점은 치아를 많이 갈아낼 필요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그러나 치아가 받는 힘이 센 경우나 이갈이, 이악물기 등 구강습관을 가진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세라믹 말고도 레진이라는 재료를 치아에 덧붙여 예쁘게 앞니를 변화시킬 수 있다. 레진은 치아와 화학적으로 접착하는 재료다. 레진 치료는 치아를 최소한 삭제한다는 점과 1회 방문으로 치료가 가능하는 장점을 갖는다.

치아 모양이 조금 비뚤어진 경우는 치아를 조금 갈아내 치아모양성형을 할 수 있다. 치아표면의 법랑질(enamel)은 신경이 없어 치아모양성형을 위해 조금 갈아내더라도 시림 등 통증이 없으며, 충치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치아모양성형은 단 한 번에 매우 간단히 치료할 수 있고, 치료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앞니 성형 및 잇몸성형 치료와 함께 치아 미백치료도 병행해 치아 형태 뿐 아니라 주변치아 색도 밝게 변화시켜 더욱 심미적인 미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이 비뚠 치아는 수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뺐다꼈다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투명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앞니 성형치료는 원한다고 모두 다 해당되는 치료법은 아니다. 반드시 치과 전문의를 통해 구강검사, 방사선사진 검사, 구강 모형검사 등을 받아 정확한 진단 후 치료 받아야 한다. (02)776-2882

[법보시 PR]

대중법문

모든 지옥을 구제하고 성불하리라

〈지장보살본원경〉

**미륵보살이 출현하기까지 석존이 존재치 않는 이 세상을 지장보살이 중생을 구제한다.
만일 어떤 중생이 몸과 마음에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지장보살을 부르면
몸과 마음의 고뇌가 즉시 낫게 되어 열반의 길로 나아가리라.**

"만일 어떤 중생이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고 번뇌하며 주림이 닥쳤을 때에 한번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음식이 곧 충족되고 모든 괴로움이 해방되어 열반의 길에 나아갈 수 있게 하리라.

또 만일 어떤 중생이 의복 등 또는 의약, 기타의 필요한 도구가 없을때 한 번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바라는 바를 모두 충족하게 되고 열반의 길에 나아갈 수 있게 하리라. 만일 어떤 중생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받아서 병에 걸렸을 때 한 번 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몸과 마음의 고뇌가 즉시 낫게 되어 열반의 도에 나아가게 하리라."

이 경은 그 다음에도 관음경과 같이 많은 이익이 나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지장보살의 본생이 여러 가지로 술회 되어 있는 가운데 그 한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청정연화목여래(淸淨蓮華目如來)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실 때에 한사람의 나한이 있었다.

어느날 광목(光目)이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나한을 찾아와서 말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한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곧 정(定)에 들어 살펴보니 그의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져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나한은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한 뒤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다.

"청정연화목여래를 생각하고 그 상을 그려서 공양하라."

그런데 그 날 밤 부처님이 대광명을 내놓으시어 광목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서 너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과연 그 집에 있는 여종이 한 아이를 낳았는데 난 지 3일도 안되어서 말을 했다. "나는 너의 어머니다. 너와 헤여져서 지옥에 떨어졌다가 너의 공덕으로 이제 인간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4년이 지나면 다시 지옥에 떨어져서 또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광목은 13년만 있으면 다시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머니를 위한 광대한 서원을 했다. 다음의 서원이 곧 그것이다. "이 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이 세계의 모든 지옥과 삼악도의 중생을 구제하고 삼악도를 여의고서 이들 죄보(罪報)의 인간들을 모두 다 성불 시키고 난 뒤에야 내가 성불 하리라."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광목여인의 이러한 서원을 들은 청정연화목여래는 그 서원을 칭찬하시고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구제 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한은 무진의보살(無盡意菩薩), 광목여인의 어머니는 해탈(解脫)보살, 그 광목은 지장보살(地藏菩薩)이라고 가르치셨다.

곧 광목의 본생을 보여주신 것이다. 지장보살의 본생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예가 있지만 앞에 실은 예문은 석존께서 도리천에 올라 그의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하신 뒤 그 도리천에서 지장보살에게 미륵보살이 출현 하기까지 불타가 재세(在世)하지 않는 무불(無佛)시대에 육도중생을 구제하도록 부탁하고 위촉하셨다."는 내용이다. 석존이 존재치 않는 이 시대에서는 이 세상을 지장보살이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우란분경〉

"금생에 나를 낳아 길러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란분(盂蘭盆)을 행하며
부처님과 스님께 귀의 하여 보시함으로써
부모의 자애스런 은혜에 보답하느니."

불제자 가운데 대목건련은 신통 제일의 제자로서 부모를 제도하여 그 은혜를 갚은 효자로서도 유명한데 그는 도안(道眼)을 얻어 그 육신통으로 어머니를 찾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아귀의 세계에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 그 몸은 말라 붙은 가죽뿐이었다. 목련존자는 바루에 음식을 담아 어머니께 드렸지만 어머니가 음식을 먹어려고 하면 곧 불로 변하여 먹을 수가 없었다. 이 모습을 부처님께 사뢰어니 목련께 말씀 하셨습니다.

" 너이 어머니가 생전에 지은 죄업이 깊어서 너 한사람의 힘으로 구할 수가 없으니 시방의 모든 대둥수행승의 위신력을 빌어야만 구할 수 있다. 하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 곧 자작일(自恣日: 설의 허물을 지적 고백하고 참회하는 날)에 백미의 음식, 오과 등을 중승(衆僧)에게 공양한다면 삼악도(三惡道)의 괴로움에서 구제 될 것이다."

목련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였더니 과연 그 어머니가 그 날로 아귀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우란분절을 행하여 아귀세계에서 헤매는 선망후망 7대조에 대한 효심으로서 자식들을 길러주신 은혜를 갚는 보은으로 금생에 '나'를 낳아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미륵암 청운 011-870-0021]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어려운 한자, 공연보며 배워요~"



학습만화 '마법 천자문' 뮤지컬 공연으로 탄생
7월 19일~8월 24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무대에

"불어라 바람 풍(風)!"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주문이다. 한자교육 뮤지컬 '마법 천자문'이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7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어린이 한자 교육 바람을 일으키며 900만부의 판매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 학습만화의 대변신이다.

어른에게 구법 여행기로 익숙한 현장법사와 손오공의 '서유기'가 아이들에게는 용기(勇)·학문(學)·인내(忍)·믿음(信)·우정(友)의 '마법 천자패'를 찾아 나선 손오공의 모험담으로 다가간다. 세대를 초월해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즐기는 동안 저절로 재미와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뮤지컬 '마법 천자문'은 에듀테인먼트의 신선한 도전으로 평가받는다.

'마법 천자문'은 15권에 달하는 장대한 이야기를 5개의 장으로 압축한 밀도 있는 판타지 어드벤처다. 손오공과 삼장 그리고 옥동자가 한자 마법을 배우는 곳에 암흑대왕을 부활시키려는 혼세 마왕이 나타나 마법천자문 조각을 빼앗아 간다. 마법천자패를 되찾고자 지하미궁으로 들어간 손오공 일행은 암흑대왕의 부활을 막기 위한 고난의 모험을 떠난다. 어린이가 지녀야 할 참된 용기와 배움의 자세, 인내와 끈기의 마음과 신뢰의 믿음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이 지니는 소중함을 스스로 느끼게 한다는 내용이다.



손오공·삼장·옥동자·끼로로·여의필 등 만화 속 친근한 캐릭터를 선보일 이번 공연에서는 전문 무술감독의 특별지도로 박진감 넘치는 와이어 액션을 펼친다. 뿐만 아니라 기량 넘치는 배우들의 화려한 군무는 관객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만화책을 보는 듯 새로움을 선사한다. (02)501-7888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현대 감각 덧입힌 전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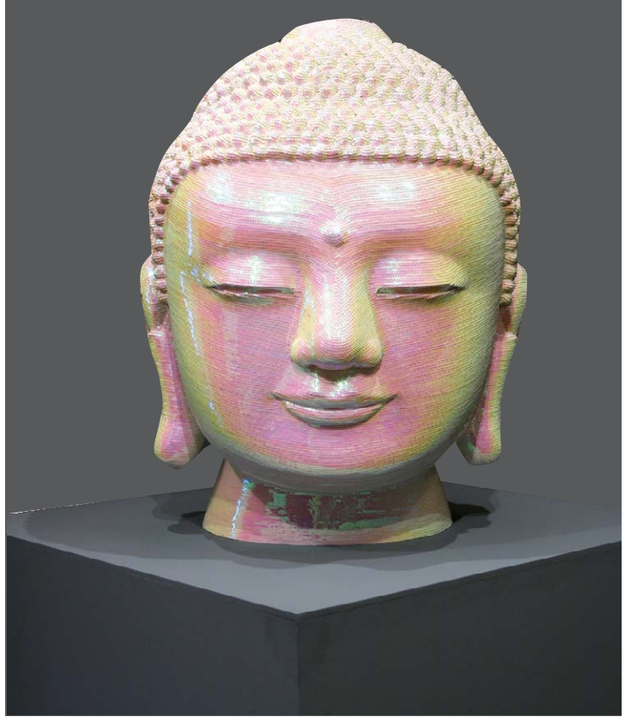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 '내 마음의 보물展' 개최

서울시립미술관은 8월 3일까지 남서울분관에서 '내 마음의 보물'展을 연다.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에서 작업의 영감과 원천을 찾아온 동시대 미술가들 작품을 한 곳에 모은 전시다. 근대 작가에서 신진·중견·원로 작가들의 작품에 이르는 회화·조각·사진·설치·영상 등 전 부분을 아우르는 작가 33인의 작품 51점을 만날 수 있다.

전통시대 불상은 경배해야 할 신앙의 대상 그 자체였다. 그러나 작가 노상균의 작품에서는 종교적 사유와 명상을 불러일으키던 숭고한 불상의 이미지는 사라진다. 금박으로 치장한 스팽글 장식의 값싸고 대중적인 재료로 표면을 장식한다. 신미경의 '비누불상'은 일상의 소비재인 일회적인 재료로 진리의 체(體)에 대한 상(相)과 용(用)의 경계를 새롭게 해석한다.

과거의 유물이 지닌 형태적 아름다움에 대한 단순한 차용보다 옛 것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환기시키려는 의도이다. 동시에 복원된 가치는 미학적 가능성을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된다. 시공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맥락에서 오늘날 의미하는 유물의 본질을 질문하고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엿본다. (02)2124-8941

가연숙 기자



'삶·죽음'의 화두 담은 설치미술

데미안 허스트 '새로운 종교'展

현대 미술의 비틀즈로 불리는 영국의 설치미술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1965~). 그의 '새로운 종교(New Religion)'展이 서울 청담동 갤러리 인터아트에서 7월 31일까지 열린다.

데미안 허스트는 "나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의문도 갖지 않은 채, 약은 완전히 믿으면서 예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사람들이 과학의 산물인 약은 맹신하면서 왜 예술이 주는 마음의 치유력을 간과하는지, 과학을 믿듯이 예술을 믿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New Religion(SKY) 2005.

그는 영국 YBA(Young British Artist)의 대표 주자로서 대중 신화의 한 부분을 이룬 죽음에 대한 고찰을 은유의 방식으로 표현해왔다. '새로운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작가만의 표현방식으로 우리에게 질문한다.

영화 '더 셀(the Cell)'로 익숙한 그의 형이상학적 작품세계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긴 동물 해부를 통해 '네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경고해왔다.

죽어야 할 운명, 소외와 끊임없이 타협하는 모순·욕망이 있는 삶과 죽음의 과정에 대한 그의 실험은 '성찰'이라는 화두로 재해석된다. (02)544-8401 가연숙 기자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화작품전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하) 불화반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명인박물관(관장 이무웅)에서 7월 22일까지 제7회 불화작품전을 연다. 통도사박물관 대학에서 불화를 전공한 학생들의 작품 60여점을 선보인다.

부처님과 보살 그 밖의 모든 성자가 수행하여 쌓은 공덕을 표현하는 불화의 세계는 신심과 원력, 재주를 기본으로 한다.

아귀도의 고통을 없애주는 오여래상, 중생의 업장을 참회시켜주는 십이존불도,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관세음보살 등 한국 불교미술 1500년을 헤아린다. (02)766-0272

가연숙 기자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성장 카이로 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클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 격 • 초보자 및 실직·정년 퇴직자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2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2008년 7월 17일 (선착순 수시모집)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최면으로 전생,현생,미래생 탐색·나를 찾는다
전생·빙의·자기 최면·치료 최면
• 진정 누가 당신을 능숙한 최면술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까?
• 수많은 교육생이 바글 거리는 교실에서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얼마 만큼의 교육 효과를 얻으시겠습니까?
• 수강비가 수백만원 해야만 고급교육 일까요?
• 훌륭한 강사 입니까?
• 최면의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최면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개강일 2008년 7월 17일(목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주2회(총8회) 고급속성 과정
모집인원 선착순 수시모집
교육비용 50만원
교육대상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교육내용 자기최면/타인최면/기억력, 집중력 증강/우울증 해소/대인공포/성격개선/스트레스/수면장애/빙의/전생/금연/금주
◆특기 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 평생교육
4.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이용

원장 우혜안 스님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9일개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불교학과)
1년 교과목: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 대학학장) ·최봉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최종석(금강대교수) ·박종(동산불교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 ·김상영(승가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표주스님(동국대교수) ·태원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법화사상 ·반야사상 ·화엄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선사상 ·불교미술 ·밀교사상 ·포교방법론 — ·김형준(동산불교대교수) ·정엄스님(승가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박종(동산불교대교수) ·최종석(금강대교수) ·이평래(충남대교수) ·김호귀(동국대교수)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불교학과(200명) (정규반·주간반·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8년 7월 1일 ~ 2008년 8월 2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8년 8월 9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울퉁 보살 불퉁 거사 <7>

구성 : 김흥인



과일을 일일이 맛보고 사는 사람 [백유경(百喩經)]



어떤 장자가 하인에게 돈을 주며 암바라 열매를 사오라 했다. "달고 맛난 것을 사오너라." 하인은 과일을 사러 갔다. 과일가게 주인이 "우리 집 과일은 모두 맛나고 좋아 하나도 나쁜 것이 없소. 당신도 하나 맛보면 알 것이오." 하인은 일단 맛을 보고 과일을 사기로 했다. 한 입, 한 입 하인은 모두 맛보고 맛있는 과일만 담아 돌아왔다. 모두 한입씩 베어진 과일을 주인은 먹을 수 없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다. 사람들은 "계율로 보시를 행하면 큰 부자가 되고, 몸은 안락해 어떤 병도 없다"는 말을 듣지만, "보시로 복을 얻는다해도 내가 얻은 뒤라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의 귀천과 빈궁이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인과임을 모르고, 스스로 겪어봐야 알겠다는 것은 한 입씩 맛보고 산 과일을 모두 버리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처음으로 계단이 세워지다
초건계단(初建戒壇)

불암사판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삽화 중 한 장면으로,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누지보살이 부처님께 계단을 세워 결계(結戒)와 수계(受戒)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최초의 계단이 만들어지는 장면이다.

계단은 지형에 따라 건립해 삼중으로 만들어졌다. 삼중 계단으로 세가지 공을 표시한 것은 불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에서 모든 번뇌를 버리고 풀어야 하는데, 공이 아니면 번뇌를 떨칠 수 없어서다.

제석천왕은 삼중 계단 위에 복부(覆釜)를 안치하고 그 속에 사리를 담아 두었고, 대범천왕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주를 복부 위에 안치하고 사리에 공양하게 했다. 이것은 오중계단을 만든 것으로 오분법신(五分法身)을 뜻한다. 그림에 찬란히 빛나는 보주는 대범천왕이 보시한 것으로 크기가 다섯 되들이 병과 같았고, 큰 복덕을 지닌 사람이 보면 그 광명이 800 유순 먼 곳까지 비추지만 박복한 사람이 보면 마치 시커먼 먹덩이처럼 보인다고 한다.

불교교단은 신분 · 계급 · 인종 등 차별을 두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부처님 가르침 밑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나, 승가공동체에 들어와 수행하는 이는 반드시 계율을 지켜야했다.

계율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의 '실라(sila:戒)'와 '비나야(vinaya:律)'로 모든 불자들이 지켜 나아가야할 윤리 규범이다.

석씨원류에서는 계단이 만들어진 후 노사나불이 천개의 꽃잎이 펼친 연화좌 위에서 대광명을 방출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고해 금강보계를 설하는 장면이 초건계단 다음 쪽에 부선계법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한다.

이 장면을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지켜 나아가야 할 대승계를 설했다. "너희들 모든 발심한 보살대중과 모든 불자들은 응당 수지해야 한다. 불자에게는 열 종류 무진장계(十種無盡藏戒)가 있다. 첫째는 살생하지 않고, 둘째는 재물을 도적질하지 않고, 셋째는 사음하지 않고, 넷째는 거짓말하지 않고,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않고, 여섯째는 재가자와 출가자의 과실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는 스스로를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아야 하며, 여덟째는 재물에 인색해서는 안 되고, 아홉째는 노여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사견으로 삼보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 열 가지 계율을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간직해야 하느니라."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초건계단(初建戒壇)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歡의 비명

올여름 그렇게도 푸른 나뭇 잎들이
일제히 동맥의 선을 끊고 피를 내 뿜는다.

죽음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은 붉은 피처럼 선명히 살라한다.

사부대중 선 물
고무신코 만행화
2008년 9월 5일 ~8일까지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예정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지압슬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지압 · 동 깔창
지압동 깔창
쇼극계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망사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창에 입력하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만복향당
空薰 공훈
침향과 백단의 그윽한 향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향나무의 향기를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는 "불빛향로(공훈)"입니다.
불빛향로(공훈)은 침향이나 백단가루를 촛불로 열를 가해(燻蒸) 퍼지는 향기를 즐기실 수 있는 향로입니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향로 사이로 비춰지는 촛불의 은은함과 침향이나 백단 본래의 그윽한 향기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공훈8000
공훈8000 (#460)
불빛향로 1개
인도네시아산 침향 약3g
베트남산 침향 약1.5g
인도산 백단 약3.5g
미니양초 50개

공훈12000
공훈12000 (#461)
불빛향로 1개
인도네시아산 침향 약5g
베트남산 침향 약2.5g
인도산 백단 약15g
미니양초 50개

향 목
고도침향각(#429)
매움과 단맛이 있는 인도네시아산 침향의 향기
약 10g 100x135x20(m/m)
백단각(#419)
달고 중후한 인도산 백단의 향기
약 15g 85x125x10(m/m)

공훈 사용법
1 공훈 밑받침에 초를 끼운후 불을 붙인다. (연소시간 약 12분)
2 3단 스탠드 3개를 차례대로 올려놓은 후 향접시를 올린다.
3 향접시 위에 원하는 향재를 올리고 뚜껑을 덮는다.
4 침향과 백단의 그윽한 향을 즐긴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74-3번지 봉우시티 302호 전화:02)577-4155/02)577-0745 팩스:02)577-0746 홈페이지:www.mbhd.co.kr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운전기사 모집
채마밭관리하며 운전하실
거사님 모십니다
(숙식가능자)
<충북 청주>
011-9732-8562
043)298-2258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학인수시모집 : 범음,범패, 바라,나비춤
●사찰행사 : 49재,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스님 되시렵니까?
50세 미만
전화 주십시요
02)584-8844
011-354-8484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2)939-3327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보살선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자격취득안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역학 · 건강 · 비법전수
한글만 알면 한달이내
역학비법통달
난치병 근본치유 · 예방,
무병건강비법전수
052)264-8183
011-855-8180
신불정사 무구 합장

도심속의 통영사
(희망을 열어가는 젊은 부처들)
산사 음악회, 대중행사 전문
포교도량 (무료봉사)
◇서울본사: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8번 출구앞
◇강원지사: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고속터미널옆
선화법사 합장
02)3426-1357
010-8726-1357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가족처럼 함께 할
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서울 우이동
02)990-1725

충남 천안시 광덕면 신덕리
12번지 천안공원 앞
천안사 봉안당(납골당)
동참하실분 모집
041)568-4610
010-5777-479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사이)
사무실, 종무실
경리(女)도 모십니다
유경험자에 한함(숙식가능자)
052)298-9911

비구니스님 15년 이상
염불하신
기도 잘하는 스님,
노전스님 모십니다
054)762-4269
010-3156-9797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칠곡
016-521-0003

부전스님
기도하실보살
스님될 행자
모십니다
▷서울
02)359-4492

신심으로 수행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043)297-872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352-5572

출장
영가천도
해드립니다
011-9243-099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속초
033)633-2920
033)632-98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054)858-26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100만원)
02)938-795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이하)
서울 구파발 전철역 10분거리
02)352-0572 (시연사)
011-261-057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영덕
054)733-8786
017-519-5388

청정계곡 물맑은 산사
약사암에서 수행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경북 봉화
042)272-3177
010-9518-3177

산 깊고 물 좋은 곳에
대작신축불사 도량입니다
불사에 원력 있으신
화주보살, 거사님
아주 좋은 조건으로 모십니다
(서울에서 50분거리)
010-2287-1284

부전스님
행자스님
구합니다
053)981-0664
016-515-0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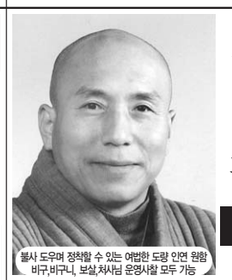
부전스님과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부석사
(충남 서산시)
041)662-3824

간병인구함
건강하신 할아버지
돌보시며 같이 생활
하실분 구합니다
(단, 60-65세 여자분
구합니다)
017-573-2905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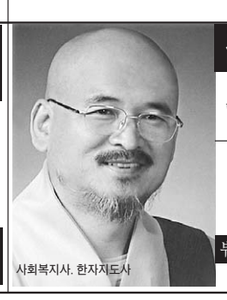
고급만다라 액자 분양
분양가 5만원 (48cm×48cm×두께 5cm)
경기도 이천시 대원면 초지리 307-1
031)633-5587 / 공급원 016-261-2068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 TVbuddha.co.kr


불사 도우며 정착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 인연 원함
비구,비구니, 보살,재사님 운영사찰 모두 가능

바라 · 작법무등은 원할경우에만
시연해 드리며 큰 법력으로 사물과 함께
우리말 · 한문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비구승 무진장 합장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희탕 앞 송광정사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 스님,법사님의 포교 방편최고 ◇
■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빙의(퇴마치유,귀신을 잡아 보여줌
2.환상을 보게 하고, 온,냉의 기를 발생
3.기를 쏘아 부황으로 사혈
4.맨손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임
신통기공사 중국정부 추인 자
■ 웰빙 최고의 건강비법
1.스트레스 해소,각종 질병이 치유된다
2.기억력 상생,학생 성적 증진
3.성격이 바뀌고 비만이 치유
※ 일반 기본전수 3개월 속성전수 2개월
법회 100명이상 동참시 시범을 보여드림
사찰입종 환영
사단법인 : 대한선생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설: 삼삼구 불기공 총연합본부(5호선 명일역 3번출구 인근)
전화 02)426-4774, 011-9092-0533 / 팩스 02)426-5585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학공부
※ 공개강의 : 건강과 부동산 풍수인테리어
•7월 17일(18시 30분 부터 ~ 2시간. 참가비 1만원. 선착순 20명)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월요일) 18:30 개강
•관상 · 풍수 : 7월 24일(목요일) 개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괄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수중촛대
2008년 9.5 ~ 9.8 한국불교 박람회 출품 예정

특 징
1.물속에서 양초가 타므로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2.촛불이 50시간-56시간 타므로
초 절약 됩니다.
3.촛농과 그름이 없고
공기정화 및 가습기능

만 행 화 011-9000-5715 / 02)733-5715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 2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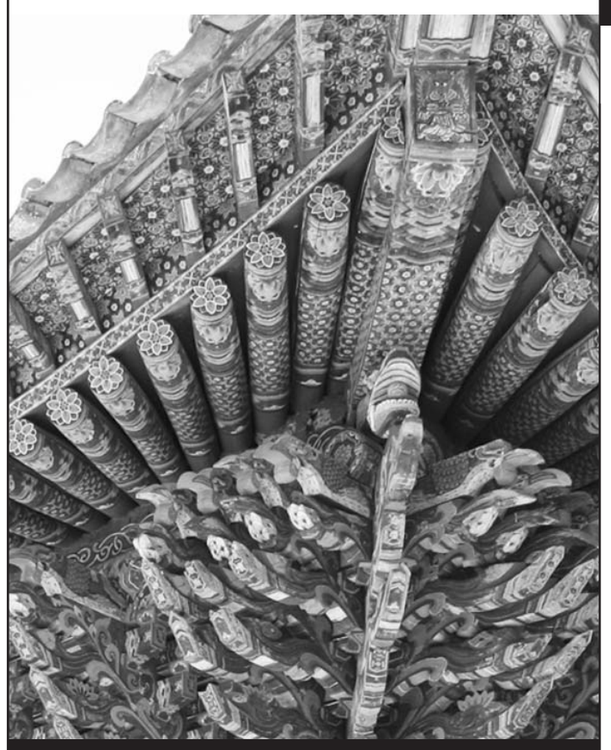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지금 당신에 침실은 안전합니까"
수맥파를 알면 가정이 편안 합니다.
만병의 원인 수맥파
법당에 들어서면 무서움 오싹한기분 냉기가 돌고 신도가 줄어들고 의욕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적이고 매사 되는일이 없고 다툼이생기고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고 짜증만내고 남편은 귀가가 늦고 부부싸움이 잦고 법당,사업장,주택 사무실,기타영업장에도 사업이 부진하고 원인모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병에 시달리고 악몽,가위눌림 깊은잠 못자고 생체리듬파괴 각종 암,중풍,관절염,심장질환,학습장애,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모든 건강문제!
식욕부진,만성 소화불량, 신경통, 고혈압, 뚜렷한 병명없이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는 분.
만약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자거나 근무한다면 당신은 이미 병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큽니다. 수맥탐사 1급 자격증 소지한 일두승이 탐사를 도와 드리고 수맥을 중화 시키거나 차단하고 미세한 수맥은 자리이동을 시켜서 수맥파에서 해방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귀 사찰이나 단체에서 원하시면 생활수맥 강의를 경기도 서울지역은 출장 강의를 해 드립니다.
2-3시간 교육으로 수맥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시켜드리고 잠자리 이동을 가능하게 교육시켜 드립니다.
수맥을 중화 차단하고 난 후 약 5-7일간 경험해보신 후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문의하여주십시요.
사찰의 주지스님 및 단체 개인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로 수맥 다우징(탐사)을 해 드립니다.
02)391-8540 /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 조계종 (사단법인)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1. 개인 지도 수갱생 모집
2달 완성 (수강료 300만원)
단, 명리나 오행에 기초를
익히신분에 한하여 가능함
2. 기초 수강생 수시모집 (수강료 100만원)
● 7월 개강) 목요반 4시 - 6시 30분
● 7월 개강) 토요반 10시 - 12시 30분
고급반 육임을 하신분들에 한해서...
신 간 안 내
최고에 오행술인 육임을 보다 쉽고 빠르게
공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각 점단마다 국수를 부쳐 설명하였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온 목적사를 말할수 있는 내정 비법인
시간법이 들어 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 가능 (전화로도 가능)
■ 상담문의 : 02)793-7333 (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 (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 (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대가람)안내

마이 부처바위 출현(보물급)
※ 자연석 높이 15m, 가로 50m

● 건물:법당 및 요사채 400평(6동)
● 대지:2500평 임야:12000평
● 사찰 내 유명 약수터(100년생)
● 도량 주변 칠보석 다량 매장
● 30년생 주목, 단풍나무 다수
● 심산유곡,주변 직벽암반 경관최고
● 계곡 폭 25m, 전면 300m
● 버스진입가능(12m 도접)

※ 가액 9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 ~ 3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종로구
● 법당 : 28평
● 요사 : 38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제주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3억

● 위치 : 양평지역
● 법당 : 20평
● 요사 : 7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포교당 안내

● 위치 : 마산시 산호동 산호시장앞
● 평수 30평, 2층 단독
● 삼존불, 신중탱화,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4001-8476
055)232-7151
055)243-375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80평(슬라브 건물)
2층 47평(법당),1층 47평(요사채)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 10,
법당 시설완벽
석축 조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 찰 안 내

● 위치 : 삼척시 당저동 111번지 3호
(삼척시청 옆,환선굴 대금굴 인근위치)
● 대지 건물 100평
● 도지 1년 현재 25만원
● 법당,산신,약사여래,지장보살
● 양도가 : 2500만원(절충가능)

010-7737-2953
010-2638-0433
웅천스님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120평)
● 진신사리 봉안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최고의 시설,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대지 : 300평(건물만)
도지 : 1년에 쌀 한가마
● 법당, 가사, 산신각, 구옥 2채
법당 : 와불(3m), 삼존불(관음,
약사, 지장), 미륵(160cm)
● 양도가 : 2700만원(절충가능)

010-9793-8977(달마스님)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주령
상교산 명산 사찰터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4억6천(급)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4445-5179

사 찰 안 내

● 충북 영동 1100만원
1년 도지 10만원
● 충남 온양 3,800만원
1년 도지 쌀2가마
● 충남 도고 6,000만원
1년 도지 50만원
● 문중땅 양도조건 권리금 입니다
● 상호 형편에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 이광고는 7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041)541-0533

조용한 수행터

● 위치 : 경남 함안군 소재
● 전 및 임야 관리지역
● 1200평 평당 8만원
● 터 작업 완료 되어있음

010-2447-115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두시지하철 2분거리
불교 도량 최적지
● 법당 25평, 요사25평,
대지 600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9798-1091
011-574-3303

해운대 포교당 안내
삼존불 봉안

● 위치:부산 해운대구 우 2동 1088-14번지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 출구 앞)
● 평수 : 6층 건물 중 6층
(내부-60여평)
● 외부정원이 잔디로 잘 꾸며져 있음
(외부 30평)
● 보증금 5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직접오셔서 보시면 손색이 없습니다

010-2462-497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 평수 : 35평 3층건물중2층
법당,방2,부엌,거실(총4칸)
단청시설되어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후 절충가능

011-847-51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에서 10분거리
● 법당 1,2층 약 45평
요사채 1,2층 약 50평(현대식)
● 단청필, 전체보일러 완비,
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가액 : 2억 2천만원
(융자 1억5천만원까지 가능)

010-6298-2588
054)435-38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사찰터 · 다용도
(최고조건)

● 위치 :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83-1번지 영남물류기지 부근
대지 약 2860평, 평당 80만원
● 83-2번지 약 925평 평당 70만원
● 임야 8-3번지 400평 평당 10만원
● 임야 8-17번지 700평 평당 10만원
● 분할가능

011-536-6789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http://blog.naver.com/mine4you

010-6304-5998

해운대 포교당 안내
삼존불 봉안

● 위치:부산 해운대구 우 2동 1088-14번지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 출구 앞)
● 평수 : 6층 건물 중 6층
(내부-60여평)
● 외부정원이 잔디로 잘 꾸며져 있음
(외부 30평)
● 보증금 5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직접오셔서 보시면 손색이 없습니다

010-2462-4974

사 찰 안 내

● 위치: 고성군 고성읍
읍에서 5분거리
● 임법당 20평,방2,컨테이너,주방1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답사후절충(양도도 가능)

010-5407-13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원주시 문막읍
버스정류장 앞
● 2층 약 30평
● 삼존불, 각 탱화, 집기,
생활도구일체
● 교통편리, 유동인구 많음
즉시법회가능
● 운명 감정하시는 스님,
법사, 보살님 환영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조정가능)

017-274-082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 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가액 : 3억(융자가능)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9725-319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법당 10평, 방1개, 부엌1
● 시설 A급, 위치 좋음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500만원/월 32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5-32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010-3112-35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근처
(석촌역, 송파역 2~3분 거리)
● 4층 건물중 2층, 평수 약70평
(법당 25평, 방4, 공양간)
● 삼존불, 후불탱화, 각단탱화
에어컨 3대, 연등 600등
실내 화장실, 샤워장
● 보증금 5천만원, 월20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주지스님 건강관계로 급 안내함

010-7101-0858

불교용품점 안내

● 위치: 양산 통도사 근방
● 9년정도 운영
● 개인사정상 급매
● 물건값 1억1천만원(고가용품)
● 집세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010-3657-151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화곡사거리
까치산역 부근. 대로변
● 평수 : 12평. 주거편리
(법당1, 주방 거실 1)
● 보증금 3,000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160만원,
● 포교원, 역학원에 적합

010-4436-3575

전통사찰(급)전세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 양덕원,
서울에서 1시간거리
● 1000평규모의 60년된 사찰
● 산신각,요사채,법당,공양간
● 전세가 : 5천 5백만원
매우 좋은 조건임

011-732-69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북구 태전동
● 70평 법당,방2,욕실,주방,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및 시설비 4500만원

010-7259-7530

포 교 원 안 내

● 위치:경기도 시흥시 이마트 부근
● 평수 : 2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전세 3500만원
시설비 일체 없음
●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가능

02)887-2138
010-9940-9779

사 찰 양 도

● 위치 : 강원도 지정면 문막
나들목에서 10분거리
개발지역, 옛날 한옥 두채(2동)
● 부처님, 삼존불 모셔져있음
용왕, 산신 구비
● 평수 2만평, 분할가능, 진입도로 연결
● 스님 요사채 1동
공양간 20평, 대형방 약20평
대중처소 1동(방9개)
● 가액 14억원(절충가능)
(분할매매가능)

010-7101-0858
033)732-7919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전 중구 대흥동
● 건평:60평(실평수)
방2,공양간,화장실,법당 약3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즉시법회가능
※ 포교당 위치 최고 아파트 단지
정문앞 대도로변 2층

042)252-2034
016-422-3232

사 찰 중 개

● 위치 : 서울, 종로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암자
급히 양도하실분이나
구입하실분
전화주세요.
만족을 드립니다.
성불하세요.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5백만원

017-232-3389

신 축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 삼태산 옥녀봉 아래. 향토집 금년신축
● 앞이 확 트여 전망좋으며 조용한곳, 포장도로접
● 나무때는방에 동파이프시공
● 연료비 대폭 절약
● 텃밭가꾸며 조용히 공부하실분
● 건평 23평, 대지+전, 답:965평
● 가액:1억3천5백만원

043)423-1101
010-6460-1316 (매매됨)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 (국악문화회관 후문 건너편)
● 평수 : 90평(7층 건물중 7층 전체사용)
● 법당 : 40평(미타삼존불, 원불 200불, 인등 600개, 신중단, 영단, 연등)
● 주지실, 사무실, 상담실, 주방겸 공양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천만원(최상급, 절충가)
스님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

042)252-5450/055)944-5450
011-649-0108

사찰(급)안내

● 위치: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중심가
● 대지 130평, 대웅전 42평,
점포 30평
● 가액 4억원(일부 후불 양도가능)

사찰(급)안내

● 위치:경북 영양군
입암면(약수터 접)
● 부지 전900평+대지100평
(관리지역)
● 가액 : 4천만원 신 개발지역

암자 터 안내

● 위치: 경북 영양읍 하원리(지방도 접)
● 임야 3800평 정 남향,조경,임도 전기,유
● 가액 3천8백만원(3건 사찰부지 스님 직거래)

011-538-2211 시방사 주지 덕월 합장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⑧

범부의 마음이 성인의 마음 오음경계가 바로 불사의 경계

復次 第二明歷緣對境修止觀者 端身常坐 乃爲入道之勝要 而有累之身 必涉事緣 若隨緣對境而不修習止觀 是則修心有間絶 結業觸處而起 豈得疾與佛法相應 若於一切時中常修定慧方便 當知是人必能通達一切佛法 云何名歷緣修止觀 所言緣者 謂六種緣 一行 二住 三坐 四臥 五作作 六言語 云何名對境修止觀 所言境者謂六塵境 一眼對色 二耳對聲 三鼻對香 四舌對味 五身對觸 六意對法 行者約此十二事中修止觀故 名爲歷緣對境修止觀也

앞에서 정수행을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앉아서 하는 수행이었고 두 번째는 인연을 따르면서 그 경계와 마주하고 수행하는 것이었다.

먼저 앉아서 수행하는 것은 거친 마음을 대치하여 지관을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정혜를 평등하게 수행하는 것까지 다섯 종류로 분류하였다.

이 다섯 가지 수행 가운데 각각 정수행과 조수행으로서 닦는 지관은 동일하지 않았다. 지를 수행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매달아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인데, 즉 마음을 제어하는 체진지(體眞止)이다.

관 수행으로는 부정관 · 자비관 · 수식관 · 개분별관 등 보조수행이 있다.

정식으로 관 수행하는 것은 삼지삼관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두 번째로 외부조건을 따르면서 그 경계를 마주하고 닦는 지관에 대해 말하겠다. 그러나 그 이치를 밝히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대의를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수행마다 곳곳에서 부처님과 서로 호응하게 된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목전에 나타나 있는 갖가지 경계가 자기 마음속에서 나타난 견분(見分)과 상분(相分)이라는 점이다.

마음은 인식의 주체로서 견분이라고 하고, 인식대상경계는 상분이라고 한다. 인식주체로서의 견분은 인식대상으로서의 상분을 인식한다. 여기에서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대상경계로서 물질적인 자연현상계를 말한다.

견분과 상분은 본래 실체가 없고 모두가 자증분(自證分)으로 자체를 삼고 있다. 자증분은 심왕을 말하는 것이고, 견분은 심왕을 따라서 일어나는 심소를 의미한다.

심왕 자증분에서 동시에 일어난 견분과 상분은 그 당체가 바로 공가중이어서 불가사의한 원융삼제의 이치인 것이다.

이를 따라 관찰해보면 두두물물 모두가 오묘한 원융삼제이다. 그 때문에 "산하 대지가 법왕신을 전체로 드러낸 것이며, 나는 새, 달리는 짐승, 물고기, 갑각류까지도 모든 삼매를 보편하게 드러낸다" 고 하였다. 또 "한줄기 풀로 장육금신을 만들고 푸른 대나무와 누런 국화꽃 등이 반야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

능엄경에서는 "육근 · 육진 · 육식이 낱낱이 여래장 묘진여성 아님이 없는 청정본연으로서

현실생활이 지관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수행이 현실생활을 방해하지 않아

법계에 두루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범부의 마음이 성인의 마음이며, 오음경계가 바로 불사의 경계이다. 이를 두고 법화경에서는 "법이 진여법 위치에 안주해서 생멸하는 세간의 모습이 그대로 상주진여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치의 측면에서는 이와 같다고 해도 속제 현실의 측면에선 반드시 점차 수행을 거쳐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인연의 경계를 마주하면서 낱낱이 실제와 같이 닦아야만 바닷물 속에 들어가 모래 수를 세고 끝없이 질펀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두 번째로 인연을 따라서 경계와 마주한 상태로 지관을 닦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연(緣)은 현실 생활 속의 인연이고 경계는 육진경계를 말한다.

항상 몸을 단정히 하고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도로 깨달아 들어가는 가장 뛰어난 요점이다.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것은 육도범부만이 처음 공부할 때 몸을 단정히 하고 고요히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제불도 최초에 수행할 땐 역시 단정한 몸으로 올바르게 앉아서 도를 깨달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몸이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의 인식대상으로 떠오른 경계도 청정하여 마음이 공하고 경계도 고요하여야만 생각 생각 신속한 깨달음의 세계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도로 깨달아 들어가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하였다.

"번뇌에 쌓여있는 몸은 반드시 현실 생활 속에서 일의 인연을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항상 단정한 몸으로 좌선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허깨비 몸을 가지고 세간에 살아가면서 종일토록 의식주 등에 핍박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세간 육진경계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항상 앉아서 도를 닦고자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인연을 따라 그 경계를 마주하면서 지관을 닦는다면 부질없는 인생을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수행과 세간의 일은 상대적인 두 쪽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관을 수행하면 세간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세간의 일에 몰두하면 또 지관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닦는데 있어서 간격과 단락이 있게 되어 부딪치는 일마다 업을 짓게 된다.

청정한 세계에 높이 오르고 신속하게 불퇴전의 경지를 증득하고자 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일체 시간에서 일체 세간의 인연을 따르고 일체 경계를 마주하는 가운데 수시로 간단없이 지관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항상 마음을 정과 혜에 안정되게 하여 이와 같은 방편으로서 어떤 경계, 어떤 인연을 마주하는 것을 따로 논할 것 없이 자기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야만 된다.

경계와 인연은 어느 곳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떠나가는가를 추구하여 시시로 관찰하고 끝까지 추구해보면 모든 것은 원래 실체라고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세간에 있어도 육진에 오염되지 않고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세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속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세간의 일이 불법이고, 육진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 불사가 된다. 이는 진제와 속제가 하나의 이치로 융합 소통하는 삼매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종일 밥을 먹는다 해도 쌀 한 톨을 씹는 일이 없고 종일 옷을 입는다 해도 실오라기 하나 걸친 일이 없이 오직 도만을 구하는데, 이것도 현실 속에서의 지관수행일 뿐이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종일토록 지관수행을 통해서 일심으로 도를 구한다 해도 세간의 일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 무애자재한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를 두고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역시 물일뿐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삼라만상이 역력하게 목전에 나타난다 해도 마음속엔 끝내 한 물건도 없어 마음을 일으킨다 해도 따로 안주하는 집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인연을 따라 경계를 마주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지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모든 법문을 증득하려 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삼성(三性)

(2) 의타기성(依他起性)

다음으로 '의타기성'에 대해 말해 본다면 '타(他)'는 한마디로 인연(因緣)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왕과 심소편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일체의 심왕과 심소법은 바로 한량없는 견분과 상분이 하나로 합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량없는 견분과 상분은 뭇 인연을 의지해야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상호의존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성질이라는 의미에서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서는 "의타기는 분별의 인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분별이라는 단어는 '식'의 다른 명칭일 뿐입니다. 일체의 심식은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하여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견분심법(見分心法)은 의타기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분색법은 견분을 떠나서 따로 독자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견분색법도 역시 의타기성에 동시적으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인연[衆緣]'이라는 것은 심식의 활동을 일으키는 필수적 조건 사연(四緣)을 말합니다.

(3) 원성실성(圓成實性)

'원성실성'은 아법이공(我法二空)의 이치를 통해서 나타난 일체법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실제성품, 즉 우주만유의 실체적인 이치입니다. 이것을 진여라고 부릅니다.

인법이집(人法二執) 때문에 그동안 진여의 이치가 나타나지 못했으나 이공관(二空觀)을 통해서 변계소집성을 버렸기 때문에 오온개공의 도리가 환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만'이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두루 보편하여 충만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며, '성취'는 진리의 자체는 항구하게 상존하면서 생멸로 천류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법의 실제성품'이라 하는 것은 이 진리야말로 만법에 보편한 실체이기 때문인데, 이는 외도들이 집착하는 신아(神我)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착은 잘못된 오해의 허상일 뿐, 그것이 제법을 일으키는 진실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張如舟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오시는 길 ▷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중국불교 첫 편년사 찬술…후대 평가는 엇갈려

<14> '역대삼보기'의 저자 비장방 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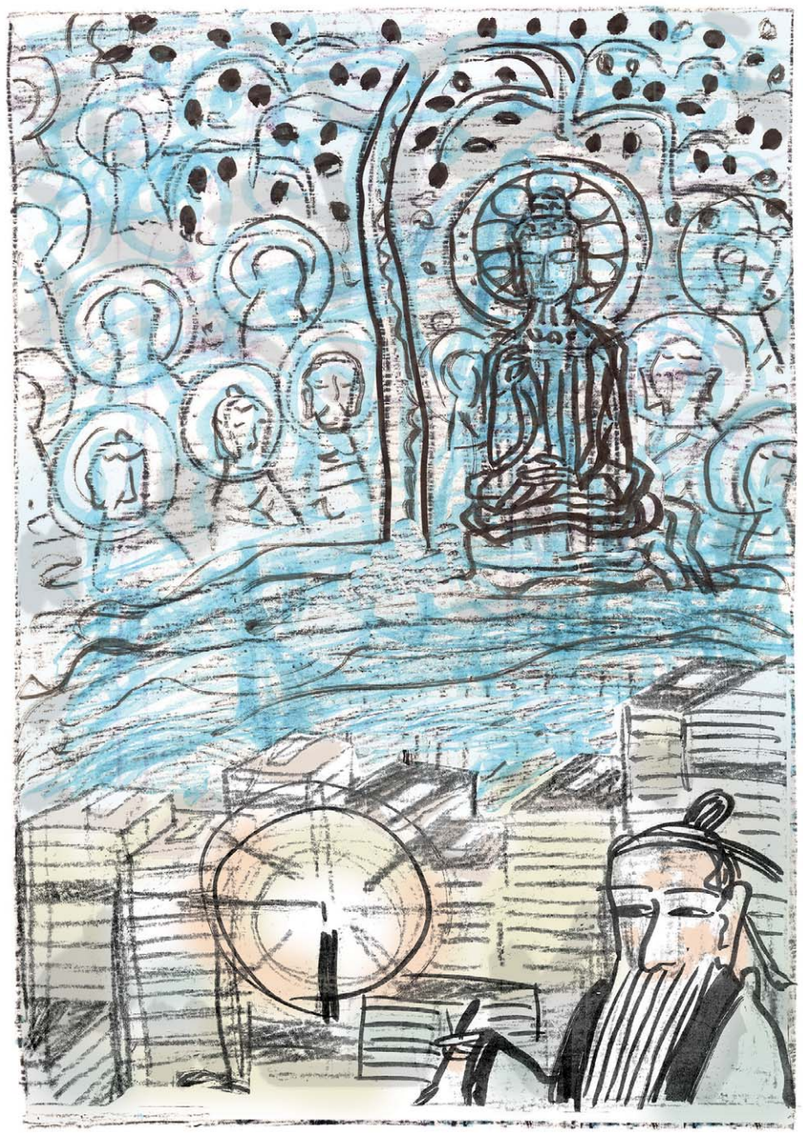


그림 · 김흥인

부처님 탄생부터 수대까지 사건 연대별로 정리
불교중심 기록·역사적 모순 등으로 부정적 평가

수(隋) 문제(文帝)의 통일 이후, 북방의 쇠락한 불교는 다시 흥성했다. 이사겸(李士謙) 거사와 유학자 왕통(王通) 등에 의해 불교는 유 · 도 양교와 함께 '삼교정립(三敎鼎立)'의 틀을 갖췄다. 삼교정립이었어도 스스로 '보살계제자(菩薩戒弟子)'라고 칭할 만큼 불교를 신봉했던 황제가 문제였다.

문제는 불교부흥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불교부흥에 힘입어 서역(西域) 승려들이 다시 새로운 경전을 지니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서역 승려들이 중원을 드나듦에 따라 다시 역경(譯經)사업이 일어났다.

역경 과정에서 주(周) 무제(武帝)의 폐불로 인한 경전 소실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됐다. 개황 15년(595) 문제는 조칙을 내려 역경승려들을 소집해 '중경법식(衆經法式)'을 개최했다. 이때 언종(彦琮) 등 역경승려들은 경전 목록 등을 작성해 황제에게 진상했다.

역경승려들은 경전의 '묘하고 정밀하며 그윽한 이치(妙精玄理)'에 깊이 정통한 비장방(생멸연대 불명) 거사의 저술을 참고했음을 밝히고, 거사를 추천했다. 황제는 조칙을 내려 거사를 수도로 불러 번경학사(翻經學士)로 임명했다(도선(道宣), <속고승전(續高僧傳)> 권2 '달마급다전(達摩笈多傳)' 참조). 비장방 거사는 수대(隋代) 대표적인 역경가로 활동했다. 거사가 <역대삼보기> 15권을 찬술한 것은 유명하다.

비장방 거사는 상당히 많은 역경에 참여했고 <역대삼보기>도 찬술했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는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대다수 거사전에 그의 전기도 남아 있지 않아 거사의 업적에 비하면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든다.

유일하게 <불법금탕편(佛法金湯編)> 권6에 "비장방은 성도(成都)사람으로 처음에 사문(沙門)이었지만, 주 무제의 사태(沙汰)로 인해 환속했다. 수나라 건국 이후 역경사업에 참여해 개황 17년 번경학사가 되어 <역대삼보기> 15권을 상주했다"라는 아주 짤막한 전기만이 보인다.

거사는 북주시기 이미 출가했지만, 무제의 법난으로 환속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속 후에도 거사 신분으로 계속 경전을 연구하고 그와 관련된 책들을 찬술하고 있었음이 짐작된다.

<속고승전> 권2 '달마급다전'에, 거사는 "역대 경전들에 대한 기록이 흩어져 소실되고, 부처님 법이 시작되고 흥성한 연대가 사라져 알 수 없음을 탄식하고 <역대삼보기>를 찬술했다"고 쓰여 있다. 이렇게 찬술된 <역대삼보기>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역대삼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중국 역대 제왕 연표로서 주(周) 장왕(莊王) 10년(BC 687)부터 시작해 저작 당시인 개황 17년(597)에 이르기까지 왕조 변화를 논술한다(권1-3). 둘째는 대록(代錄)으로 한대(漢代)부터 수대(隋代)에 이르기까지 불교전적 목록과 각 시대 역경가와 찬술자들의 전기가 실려 있다(권4-12). 셋째는 입장록(入藏錄)으로 대승과 소승으로 나눠 각 대장경에 편입된 전적을 기술하고 있다(권13-14). 넷째는 총서(總序)와 목록으로 본서의 찬술동기와 목적 등을 밝히고 있으며, 본서의 전체적인 세목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권15). 이러한 전체적인 편제는 <역대삼보기>에서 불전 목록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인다.

<역대삼보기>의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할 수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을 언급한다.

<역대삼보기>는 부처님의 탄생부터 불교의 중국 전래, 수대까지의 여러 사건들을 연대기로 정리하는 편년체(編年體)로 쓰인 불교역사서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불교사에 있어 최초의 일이고, 후대의 불교사 집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주의를 끌만한 것은 연대기 시작인 주 장왕 10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연도를 말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거사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이 짐작된다.

특히 공자(孔子)나 노자(老子)의 활동시기 불교가 이미 널리 퍼져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후 형성된 다양한 전설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짐작된다.

둘째, 중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불전 목록작업이 있어왔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대(梁代) 승우(僧祐)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이다. <출삼장기집>은 남조(南朝)를 중심으로 상세한 목록을 작성한 문헌이었지만, <역대삼보기>는 <출삼장기집>과 반대로 북조(北朝)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했다. 이런 점은 수조(隋朝)가 북조의 맥을 이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 점은 <역대삼보기>가 왕조 배열을 진(晉) · 송(宋) · 제(齊) · 양(梁) · 주(周) · 수(隋)의 순서로 한 것에서도 증명된다.

셋째, <역대삼보기> 전편에 흐르는 정신은 불교중심주의였다. 출가승려였던 비장방 거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편년체 역사기술의 근저에는 철저히 불교 호교적 입장에서 작성한 비장방 거사의 각오가 엿보인다.

예를 들어 불교와 유 · 도 양교의 논쟁을 기술함에 있어 불교의 우월성을 강조했고, 역사적 사실과 전설이 모순될 경우에도 불교에 유리한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이런 점에서 거사의 <역대삼보기>를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은 "질그릇과 옥이 서로 어긋나 있다[瓦玉相謬]"고 비평했다.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은 "사실이 섞여 그릇돼 있다[事實雜謬]"고 비판했다. 근대 이후 불교사학이 발전하면서 <역대삼보기>는 오류투성이 저작으로 치부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역대삼보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대표적 인물이 서구열강의 중국침탈에 맞서 불교를 중심으로 자강(自强)운동을 펼쳤던 양계초(梁啟超)이다.

양계초는 비장방 거사의 작품에 긍정적 평가를 했고, 중국 근대에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하고 불교사에 대한 연구의 신기원을 이룬 탕용동(湯用彤) 선생도 "<역대삼보기>는 부처님의 행화와 함께 중국에 전래된 역사 및 역경(譯經)과 목록 및 작자의 간략한 전기를 언급했다. 이는 불교사에 있어서 편년(編年)의 시작을 알렸다"고 극찬했다.

이런 평가는 시대정신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녔으나, 중국불교사상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견해를 갖게 한다. "역사의 기술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잣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실과 실제' '진실과 사실의 차이' '후대 전승과 역사적 사실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참다운 거사불교의 인물에 대한 논술을 어렵게 한다.

역대 유명한 불교사학가들이 비장방 거사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근현대의 불교사 연구가 모두 거사의 저술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쁜 평가였다 해서 거사의 <역대삼보기>는 무시되어도 좋을 것인가?

사상사를 전공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단적으로 진행된 평가는 부정적이라 판단한다. 무엇보다 어떤 특정한 시대에 출현한 사상은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현한 것이다.

그 사상을 참답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당 시대의 시대정신(Ethos)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결문제'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필자는 거사의 <역대삼보기>는 재조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장방 거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역사적 진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역대삼보기>를 기술했을까? 제한된 필면에 <역대삼보기> 실례를 제시하며 반박할 수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역대삼보기>에 보이는 여러 가지 관점은 학자적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에는 무엇보다 비장방 거사가 살았던 시대 상황(당시의 역사적 인식)과 비장방 거사의 개인적 경험(무제의 폐불로 인한 환속)을 모두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역대삼보기>는 귀중한 역사인식을 담고 있고, 이것은 중국 거사불교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캠페인 PR]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운 송 업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일체 만물만생이 같이 한 그릇을 먹고도 되남는 것이 공양!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면 향을 피우고 초를 켜고 꽃을 공양하고 또 공양물을 공양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해 놓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양을 할 때도 '왜 공양이라고 했을까?' 하고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체 만물만생이 같이 한 그릇을 먹고도 되남는 것이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양이라고 합니다. 참 미묘한 공양입니다. 그래서 꽃을 공양할 때도 꽃공양이라고 하죠. 이건 일체 만물만생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씨를 바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촛불을 켜는 거는 우리 일체 만물만생이 밝게 돌아가고 있다, 여여하게 그냥 밝게 돌아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을 말입니다. '밝은 마음을, 부처님과 내 마음과 둘 아닌 공양을 바칩니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면 얼마나 멀고, 얼마나 잘못하고 잘하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 바로 부(父)와 자(子)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몇 번째 했습니다만, 내가 예전에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내 자생부(父)가 하는 소립니다. '이거는 자식의 묘고 이거는 아비의 묘니라. 그런데 아비가 자식한테로 오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가 부한테 가면 부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까닭인고?' 하고 묻더라 이겁니다. 난 그때 시절에 너무 갑작스런 말이라 도대체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감을 못 잡을 때에는 거기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가 말려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해결을 못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일을 할 때는 그냥 자로 하나가 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수천수만으로도 모습을 바꿔서 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부로 하나가 되고 일을 할 때는 자로 하나가 돼서 자와 부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내 마음이 항상 둘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겁니다. 그러니 항상 창살 없는 감옥에서 노예가 돼서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대중 박수) 그러니 아주 가깝게, 아버지는 아들과 둘이 아니다. 일을 할 때는 한 아들이 돼 버리고 일을 안 할 때는 한 부가 돼 버리니 이 미묘한 법은 바로 말로는 할 수 없는 법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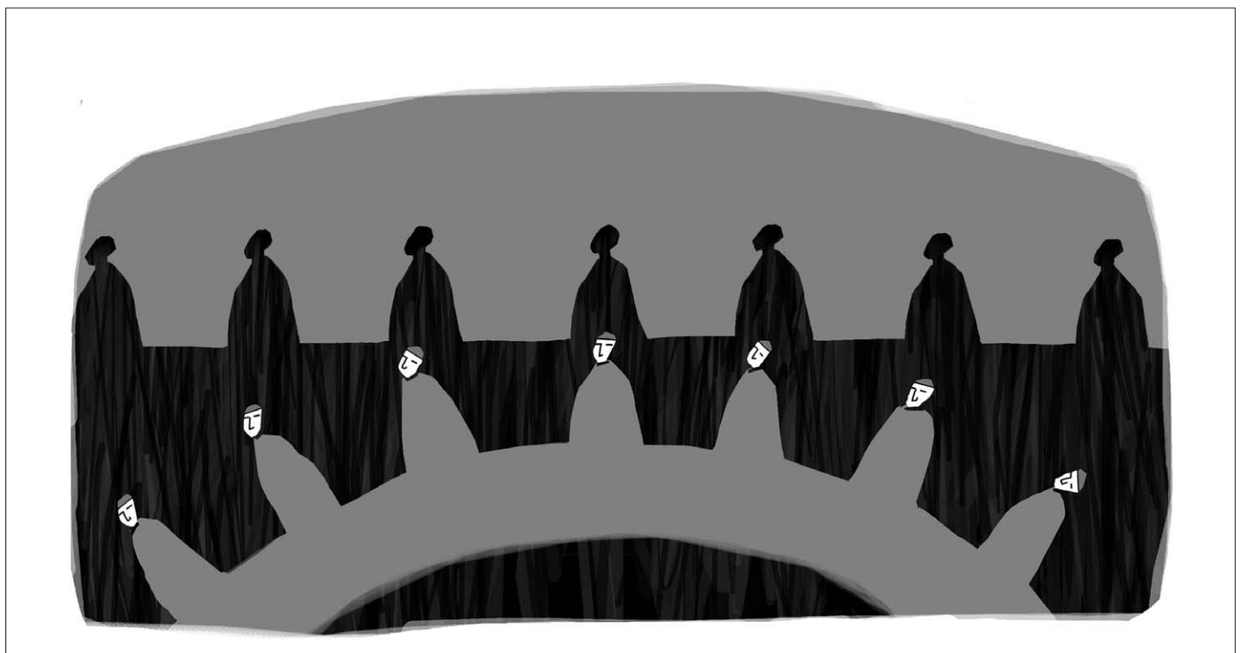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법당에 가서 칠정례를 하든 팔정례를 하든 백팔 배를 하든 삼천 배를 하든 하시지만 그거는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에 하는 거죠.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집에 불도 꺼 놓지 않고 왔는데, 불을 꺼 놓든 안 꺼 놓든 뭐, 집이 타든 말든 백팔 배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법이 따로 없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여여하게 걸림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서 절을 할 때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칠정례를 하든지 삼정례를 하든지 하고, 내가 여유가 없고 아주 급박할 때는 삼정례를 일정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바로 현재심 하나로 오고, 바로 과거가 현실이고 미래가 현실이니까요. 현실도 바로 공했으며 잘나잘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갑니다. 지금 고정되게 보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듣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먹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만나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말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살림살이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뜻이 이해가 잘 안되더라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몸과 내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과 같이 둘이 아니요, 법당에 가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근본 자체가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향 한 개비 켜 놓는 것도 아름답고 밝은 마음으로써 아주 착한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바로 향입니다. 더함도 덜함도 없는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마음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바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향의 양식을 먹고 산다고 아까도 노래를 했죠? 그러니 여러분이 법당에 가서도 항상 내 마음과 부처님의 그 뜻을 같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둥글게 놓고 진실하게 참배를 하고 지극하게 초를 켜고, 밝은 마음을 비유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물을 한 그릇 떠 놓더라도, 즉 말하자면 다기를 모셔 놓더라도 그 다기는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마음 빼놓고는 없습니다.

하여튼 마산의 여러분께서 생활 자체를 그대로 참선으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행선 입선 와선 좌선, 이것이 한데 합쳐서 그냥 여여하게 생활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없이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전에도 그랬죠? 남편 노릇을 했다가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한 순간에 "어!" 그러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말도 아버지의 말이 나가고 행도 아버지의 행이 나가고 뜻도 아버지의 뜻이 나간다. 그렇게 하듯 "얘,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 노릇을 하고 "여보게!" 하면 사위 노릇을 하고 "형님!" 하면 벌써 형님 노릇을 하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그 마음에 의해 바뀌어서 화해서 나투는 그런 살림살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이 생활 자체도 그렇게 나투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을 보되, 즉 말하자면 자기가 봤다고 해서는 안 되죠. 자기 주인놈이 다 하는 거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가고 오게 하고 이러는 거죠, 다.

누가 몸이 비참하게 아프다 해서 관하라고 가르쳐 줬죠. 그랬는데 직코스로 들어가는 사람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나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쓰러집니다. 허! 심부름을 시키는데 서류를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하면 그 서류 작성이 다 됩니까, 어디? 그와 같이 진짜로 믿고 진짜로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라야만이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벗어날 수 있어야죠. 즉 말하자면 관습이나 업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세생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을 그냥 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신통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우리가 살림하는 자체가 그대로 오신통입니다. 그러니까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오신통이라고 한다고 해서 통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두리번두리번 찾지 마시고요. 허허허….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요다음 생에, 미래에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미래라고 하지만 다음이 오늘입니다. 도로 오늘이 되는 겁니다. 다음 생이 오늘, 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집니다. 방편으로 하나를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던지 개로 탄생을 했더랍니다.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하고 가죠. 개로 탄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허! 전자에 형제였고 부모자식지간이었는데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개로 인연이 돼서 새끼로 태어나서 컸는데 보니까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개란 놈이 '야! 언제 적에 그렇게 모른다 했고 언제 적에 그렇게 너만 살았어?' 하고 막 짖으니까 "이놈의 개가 왜 이렇게 짖어?" 그러곤 그냥 발길로 탁 차더랍니다. 하하하…. 그러니 아무리 '내가 아무개라, 내가 아무개라, 내가 이렇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개 모습을 쓴 거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전자에 살던 의식만 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26면으로 계속

발행 한 주만에 재판 인쇄

"자애로운 스승, 일타 대종사와의 인연
해인사 장경각에서 108만배 기도 성취
2천번 넘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방방곡곡 설법
제주 약천사 창건
단양 도락산 광덕사 백만불전 건립불사"

제주 약천사 혜인 스님의 신심, 원력이야기

신심, 원력



신심 | 239P 정가 10,000원 |
원력 | 285P 정가 10,000원 |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2198-5151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좌)_ 혜인 선사가 평소에 실천궁행했던 경험들을 책으로 펴냈다. 거기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부대중을 향하여 고구정령 토설했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로 짜여 있다.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_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키던 그 법문이 이제 글로 화하고 책으로 엮어져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고은(시인)_ 장엄한지고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훤히 트였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는구나.

전 언론이 격찬, 격찬 !!!

한국일보_ 오척 단구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아났을까. 책에는 그 고행의 과정이 별다른 자랑이 아니라는 듯 소개되어 있다. 경향신문_ 책에는 스님의 신심과 원력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스님이 법문 내용을 토대로 쓴 글들이다. 그의 법문은 유쾌하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하다. 매일경제신문_ 혜인 스님 법문이 시작되면 불자들은 웃음과 감동이 번갈아 교차한다.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에 책을 한꺼번에 두 권을 낸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국경제신문_ 불교계에서 '포교제일의 부루나 존자'로 불리는 그가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다 보면 108배를 넘어 140배,150배가 된다고 한다. 세계일보_ 그가 펴낸 수행에세이에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신심과 효심, 용기를 불끈불끈 솟게 한다. 때론 배꼽을 잡게하는 솔직한 이야기도 쏟아져 나온다. 또한 인과의 진리가 담겨 있어 현대인의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데에도 친절한 길 안내가 돼준다. 국제신문_ 혜인 스님은 108만 배 이후 삶에 큰 변화를 느끼면서 설법 잘하는 법사로 통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스님의 법문이 알려지면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전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불교신문_ 왜 책 제목이 신심과 원력인가. 스님은 이렇게 풀이했다. "신심은 불심(佛心)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스님이 책을 발간한 이 유는 하나다.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현대불교신문_ 혜인 스님이 그간 걸어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신심의 근거와 그 기운의 불가사의함이 페이지마다 녹아있다. 법보신문_ 책은 법문의 형식을 빌었지만 혜인 스님의 수행의 향기를 진하게 담고 있다. 서문을 장식한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따라가 볼 일이다.

buddhanews.com

여러분의 생활자체를 그대로 참선으로 알고 가세요

☞25면에서 계속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짖어도 짖어도,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사유를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개 모습을 쓰고 나왔으니까 개 대접밖에는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네? 그러면 개로만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천차만별의 모습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왜 옛날에 무당들이 "국내 밥내도 못 맡는다, 너!" 이러죠? 그렇게, 하여튼 지옥에 갈 일을 했다면 지옥고가 벌어지겠죠. 오간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땅속에서 꿈틀대면서 국내 밥내도 못 맡는 것이 그게 아귀지옥도 되지만 오간지옥에서 허덕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옛날 얘기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모르고 어저께 일을 모르니까 그렇지, 만약에 안다면 살인납니다. 사람이 독사같이 살았다면 독사로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많지만 하나로 규정을 지어서 방편으로 해봅시다. 우리 모습이 그렇게 개 모습으로 나오면 개 대접밖에 못 받을 것이고 뱀으로 나오면 뱀 대접밖에 못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생으로 태어나면 축생 대접밖에 못 받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습이 붙어 가지고 그 모습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닭이라면 닭의 짓을 하던 습이 있어서, 뱀이라면 뱀의 짓을 하던 습이 있어서, 그 습이 붙어 가지고 그 모습의 무명을 벗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백 세를…, '오백이다' 하는 거는 아주 세세생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무명을 벗고 턱턱 털고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간 환생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인간 환생이 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으니 그저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해서 구덩이에서 나오게 해야지 한생각을 잘못해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긁어먹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죠. 빠뜨리고 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냐 하고 울고불고 아무리 해 봤던들, 버스 지나간 뒤에 아무리 그래 봤던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뚱이 하나를 우주라고 해도 되고 국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또 지원의 스님네들한테 모르는 건 물어서 항상 잘 관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세요. 49년 동안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그 뜻을 말로는 다 감사하다고 못합니다. 그러니 부처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일체 중생들, 풀 한 포기도 곤충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죠.

곤충이라고 깔보지 마세요. 자기 뱃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 것입니다. 자기 육체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온 곳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를 좀 더 넓혀서 둘로 보지 않고 전체를 본다면 둘 아닌 도리가 착 나올 것이나, 요 한 그릇 안에서만 본다면 너나가 아주 뚜렷하게 갈라져 있으니까요, 천차만별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관하는 법을 세밀하게 잘 아셔서 내가 급할 때 실천에 옮겨 보세요. 생활하시면서 아프든지 애고가 오든지 어떠한 것이 오든지 그거를 고(苦)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재료로 알고 관하세요. 예를 들어서 '네가 고를 안다면 고를 없앨 수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로 알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아, 이거는 내가 마음의 관법을 공부하라고, 마음공부를 하라고 이 재료가 나한테 닥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재료를 다 거기다가, 용광로에다 넣고 재생돼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관하는 법을
세밀하게 잘 아셔서
내가 급할 때
실천에 옮겨 보세요!

나가는 것을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한다면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자기 주인공을 '이게 뭣고?' 하고 무의미하게 두리번두리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중 박수) 질문하실 분 있으면 두서너 분만 받죠.

질문자1(남) 불법 공부에는 눈 밝은 선지식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올바른 불법에 들 수 있다고 하던데, 오늘 이와 같이 스님과 같은 선지식을 모시고 좋은 법문도 듣고 제가 질문까지 하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한없이 기쁩니다. 사람마다 불법에 드는 인연이 다르지만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 동안 무척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년 전부터 불법을 만나게 돼서 제게 닥친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안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다 스님의 밝은 가르침 덕분으로 생각하오며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보니 사고를 당하거나 또 오랜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생각을 어떻게 지니고 다스려야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부처님이 나투시는 법을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못 보실 겁니다. 불이 들어오고 꺼지는 것만 보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못 보듯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천지와, 즉 말하자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직결돼 있는 그 마음, 가설이 돼 있는 직결처에다가, 즉 자기 안테나에다가 모든 거를 놓았을 때, 아픈 것도 '너밖에 낫게 할 수 없어.' 하고 거기에다 놨을 때는 말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순간 한 찰나에 약사로 나투어서, 즉 말하자면 낫게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자기 마음의 그릇이 돼 있음으로써 부처님의 마음이 응신으로 나투어서, 즉 그냥 약사로 화해서 나툰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같이 하는 거죠. 둘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낫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뜻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금 그 심오한 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 때에 '너만이 네 몸을 건강하게 이끌고 갈 수 있잖아!' 할 때에 바로 부처님의, 일체제불의 마음은 한 찰나에 드십니다. 이거는 그릇 없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야만이, 즉 깨친 사람이라야만이 찰나찰나 왕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코스로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관하신다면 그대로 약사로 화하셔서 거기 응해 주십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질문자2(여) 스님, 오늘 마산 불자들에게 감로수의 법을 설해주신 데 대해 뭐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오셔서 저희 마음을 바른 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여태껏 해 온 불법 공부는 부처님께 가피를 내려 달라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부처가 자기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기 마음의 부처에게 자기의 부처가 가피를 주는 것인지요?

스님 하하하…. 마음은요, 모두가 일체 만물만생의 공심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이 우리 마음하고 그냥 직결이 돼 있는 겁니다. 본래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직결되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만 명이 있다면 만 명의 마음이 협동해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해 드리는 겁니다.

질문자2(여) 다음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주인공 자리에 무조건 믿고 맡기라고 하셨고 잘되고 못되는 것을 다 놓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처음 생각은 그렇게 나가다가 차츰 좋은 쪽이나 잘되는 쪽으로 놓고 맡기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요?

스님 오는 것도 법이고 가는 것도 법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십억을 잃어버리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급한 일에 처해서 바삐 가는데 몹쓸 사람들한테 걸려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겁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가지 못하게 된 것도 법입니다. 가지 못하게 돼서 생명을 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것도

진짜로 믿고
진짜로 맡길 줄 알아야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라야만이 되겠죠!

법, 뒷걸음질 쳐서 후퇴하는 것도 법입니다. 전진하는 것만 법이 아니고 후퇴하는 것도 법입니다. 만약에 후퇴를 안 했다가는 전체가 몰살을 당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후퇴하는 것도 법, 전진하는 것도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은 항상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항상 건지고, 항상 자비고, 항상 살리고 그러는 거라 이겁니다. (대중 박수)

질문자2(여) 스님, 고맙습니다.

질문자3(독일인 여) 안녕하세요, 스님!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혜진 스님 통역) 2년 전 독일에서 한국에 스님을 뵈러 처음 왔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저는 인도 그리고 유럽,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오랫동안 구도의 길을 헤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마음 주인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에 제 깊은 마음속에 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 깊은 기쁨,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2년간 한마음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한국처럼 『한마음요전』이랄지 이런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럽에 지원도 없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공부를 통하여서 저는 첫째, 내면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했을 때 많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마음 깊이 다시 한 번 스님께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대중 박수) 주인공 공부를 하니까 마음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자비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내 의식의 깊은 곳에 사랑이 있지 않고 뭔가 어두움이 가끔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 제 의식의 어두움 때문에 제가 아팠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내면의 어두움을 밝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거는 주인공에 관할 때, 내 마음 깊이 관할 때에 그렇게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은 구정물과 같은 거니까 '너한테서 구정물이 나오는 거니까 너만이 맑은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대로 맑은 물을 쓸 수가 있어요. (대중 박수)

질문자3(여)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일체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답답한 것 한 가지뿐이 아니라 일체 만법을 다, 우리네 생활 속에서 답답하거나 애고가 닥치고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어떠한 것이 닥쳐도 조금도 겁 안 나게 거기다 맡겨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다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만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고선 거기다 놨을 때에 바로 그것이 맑은 물로, 구정물이 맑은 물로 대치되는 이치죠.

질문자3(여) 예. 공부를 다시 더 하겠습니다. 한마음선원이 유럽 독일에 곧 세워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중 박수)

스님 희망한다면 될 테지, 뭐. 절 건물만 많이 생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이 있으면 주인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절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이 다 맞아야 생기겠지요.

질문자3(여) 스님,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위 법문은 1993년 7월 24일 마산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축

세계최대 250m 달마도 108m선화도

석주미술관 회향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1리 30-1번지 선화예술원 (TEL 041-858-2666)

석주 합장

풍기 정품

풍기 정품 홍삼액 골드.액기스.
레드파워(산삼배양근추출액 50ml×16병)판매



100ml×60포(한달분)
액기스(500ml)

● 판매처 054)634-3429
● 휴대폰 011-9373-3778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예금주 : 박영애)

삼을 직접재배,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 홍삼만을 선별,연구개발하여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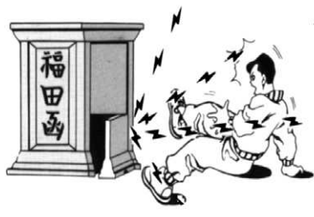


유효사포닌(32종)의
성분들이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
입니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 번역가

에너지 위기 … 공멸의 길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배럴에 100달러를 넘어서는 것이 '유가 사상 최고치 갱신'이라며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제는 15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더 뛰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돈 많은 사람들은 "거리에 차가 줄어, 속도가 빨라져 좋다.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왜 차는 끌고 다녔던 거야!"라며 '고유가 사태'를 즐기고 있다는 씁쓰레한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어렵게 중고 화물차 한 대 마련해서 골목길 돌아다니며 목청 높여 애를 써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오던 과일장수 · 생선장수와 양말장수는 온 가족이 목에 풀칠하고 아이들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다 더하여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7월초부터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이어져서 '전력 수요 최대 돌파' 뉴스가 연일 보도된다. 나라 바깥에서 불어오는 '고유가'의 거센 바람에다가, 나라 안쪽의 좋지 못한 바람이 부딪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자칫 이 회오리바람에 우리 모두 하늘 높이까지 끌려 올라갔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희뿌연 정도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듯이 고유가의 피해는 언제나 마지막 하청 단계에 속한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진다. 옛날 서민들은 세계정세와 무관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이제 강원도 산골 짜기 감자농사꾼, 서해 먼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양말장수 아저씨나 모두 중동 정세, '에너지 블랙 홀'이라 불리는 중국과 인도의 추세와 미국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생사를 맡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렇다고 "세계화는 나쁜 것"이라며, 모든 것을 거부하고 살 수 있는가? 아니다. 쟁기로 밭을 갈고,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으며, 등짐을 지고 산골마을까지 물건을 팔러 다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완전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동 정세, 중국 · 인도의 정책 방향, 미국의 대외 정책과 미국 대통령의 개인 사정까지 살펴가며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거인들 틈새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과 똑같이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많이 먹고 과도하게 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아니다.

그 동안 생명과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발전'으로 여겨지고, 그런 악업을 많이 지어온 나라들이 부를 누려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여 '비만은 인류 공동의 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저 거인들은 언젠가 소화불량 증세가 심해져 궤양이 되고, 암이 되어 몸 전체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저들과 똑같은 길을 가야 하는가?

우리가 살 길은, 적게 먹고 몸집을 적게 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곧 탐욕을 줄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 동의어이다.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업중생들을 희생하며 우리 인간만의 탐욕을 채우려다가는 우리 모두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 내전에서 아내와 아이들 다섯을 잃은 어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발을 사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 이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다가는 "기름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기름을 사서 보일러를 돌리고 차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아함경>주석서인 <청정도론>에서는 말한다.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굶주림의 시대가 온다. 인간의 분노와 증오가 가라 앉혀지지 않을 때 학살과 파괴의 시대가 도래 한다. 인간의 무지가 한계를 넘어서면 나쁜 유행병의 시대가 열린다."

에너지 위기,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어떤 것이 잘 사는 길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⑫ 어두운 마음에 뜨는 달

밤이 되어 어두우면 불을 켜면 된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우면 마음으로 불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다. 재소자의 어두웠던 마음에 부처님법의 서광이 비치는 것처럼 감사한 때도 드물다. 한 불자의 마음에 밝은 자성의 빛이 충만하길 발원하며 그의 다짐을 나누어 본다.

부처님 마음처럼

안녕하세요?

법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내 일처럼 신경을 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터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소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고 제가 걱정되시어 물어보아 주시니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님, 저는 사실 지난 모임 때 마음이나 상하지는 않으셨나 해서 염려도 되고 한편으론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모두가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듯, 각기 다른 삶의 과정을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이 안에서 만나 큰 무리 없이 이만큼 이해들을 하고 산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번에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고생을 좀 했거든요. 이곳에서의 문제는 그런대로 잘 해결이 되었지만, 밖의 일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쉽사리 드러낼 수도 없고 가족들마저도 요즘 들어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심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듯 합니다.

법사님, 저는 말이죠, 어릴 적 너무도 외롭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도 잔정이 많고, 사람을 잘 믿곤 하였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사촌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만난 지가 워낙 오래되어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소식을 친척을 통해 듣곤 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제가 부모님에게서보다는 누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누나가 다니는 대학교의 기숙사랑, 각종 행사 때마다 저를 꼭 데리고 다닐 만큼 저를 참 귀여워해주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누나를 생각나게 만드신 분이 바로 법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법사님께 더 깊은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법사님을 뵐 때마다 이처럼 아름다운 좋은 추억을 떠올리곤 하였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야하니 이런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어디 어느 곳에 있든 부처님의 뜻과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늘 지금 이런 마음과 같이 생활을 할 것입니다.

달 같은 불심을 발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한' 사람 같이만 살 것입니다.

법사님 말씀처럼 세상에는 저보다 더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를 보며 살면 올라도 끝이 없듯이, 겸손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아래를 보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다 보면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한자 급수시험 0급 우수상으로 합격했습니다. 물론 커닝은 안 했습니다. 커닝할 바에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성격입니다.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듯, 잘 참고 이겨내려 하는 불심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기에 이만큼 견뎌내고 있습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기도를 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가슴 속에 쌓였던 힘든 일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마냥,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 밖에는 너무도 밝고 커다란 둥근 달이 떠 있습니다.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떴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환히 비추어 주는 저 달처럼 살 수만 있다면, 아니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달처럼 밝게 살고 싶군요. 부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지금 시간 새벽 한 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도 졸립지가 않는 것이 부처님의 힘이토록 저를 강하게 만드신답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큰 힘인지.

사경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그의 마음에 빛을 주신 부처님께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내면의 부처님 마음을 찾아 공심으로 정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발원 올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북동포 위한 촛불 안 밝히나?

"이제는 북한 동포가 굶어 죽은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촛불을 들 때다."

7월 10일 현재 단식 46일째를 맞은 정토회 법륜 스님이 지난 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스님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두 달 넘게 진행되고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대운하 반대를 강도 높게 전개한 국민을 향해 이제는 북한의 동포들이 처한 10년만의 대기근에도 관심을 갖자고 호소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7월 8일 정토회는 북한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9개월여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다시 열려 10일 현재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루 앞서 9일에는 일본에서 열린 G8 정상회의가 폐막됐다. 이 회의에서는 G8 정상회의 및 확대정상회의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와 원유 식량가격 급등, 핵 비확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금 세계적 관심사는 급등하는 원유 값과 이에 따른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곡물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아 발생 등 생존에 관한 문제들이다. 그 고난의 한 가운데 북한이 있다. 북한은 지금 대량기아사태 발생의 초기단계에 휩싸여 있다. 법륜 스님의 단식은 '나라도 아껴야 한다'는 절박감 그 자체다. 서명운동의 동참도 중요하지만 곡식 한 줌을 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는 데 인색하지 않아야 참다운 불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일부 폐지의 허점

정부와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 징수 폐지를 두고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는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전격적으로 폐지할 때 이 문제도 함께 논의 되었어야 했다. 국립공원 입장이나 문화재 관람이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경우 폐지가 불가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주장하던 정부가 공원입장료를 덜컥 폐지한 뒤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들은 탐방객들로부터 본격적인 항의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정부와 조계종은 심각하게 분쟁이 발생한 일부 사찰들을 중심으로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는 정부입장에서나 종단 입장에서도 참으로 많은 사안을 내포한 정책이다. 문화재관람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부가 지원을 할 경우 정부는 신규예산 확보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종단은 종단대로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문화재 보존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한다. 물론 일부 사찰만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남기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문화재관람료 전면 폐지와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정부가 안아 주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관음출판필름

수월관음도

사찰법당과 스님 접견실에 걸으면 품격 가정에 걸으면 재난과 액운을 쫓고 번영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 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에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불화의 대가인 법성께서 판화한 대작으로 수월관음도를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 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한 선율에 어떻게 이렇게 그릴수가 있을까하고 감탄을 한다. 수백년을 이어갈 사찰의 소장품으로 가치가 있으며 스님 개인 소장품으로 손색이 없다.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거실에 걸면 집안의 분위기가 품위있게 바뀐다. 2단 돌출 최고급 표구와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판화된 수월관음도는 수백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게 베르린왁시를 처리한 특별 제작된 불화로 이제 두 번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국보급 세기의 불화다.
일부 시중에는 본 불화를 컬러복사해 표구를 그럴듯하게하고 베르린 왁시 처리를 하지 않아 2~3년만 지나면 색상이 탈색되고 진품 인양 판매하고 있으므로 표구 뒷면에 불광사의 보증서와 소장인란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안전하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 택배로 안전하게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195,000원

※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특별보시.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 필승합격과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 마친 비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도 품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스님 선물로 최고!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웠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 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 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음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도 마찬가지다.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인도양 수심 100m~150m에서 채취한 청궁석(일명 용궁석) 원석이며 받침도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수험생에게 필승의 영험을!

보시가격95,000원 (사찰스님 신청시 20%할인)
전화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대입수험생, 중고등학생, 승진을 준비하는분, 로스쿨준비생, 사법고시 준비생, 행정고시준비생, 공인중개사, 세무사, 기술고시준비행, 공무원시험준비생 등 각종시험 준비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와 가피로 필승하게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비방법구다. 보궁여의주를 받으시면 수험생 책상위에 놓아주면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도 찾게된다.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스님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 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인도산 천연 백수정 54염주

평생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인도 전설의 염주

화제의 염주 인도에서 스님과 지도층 인사들 사용



수입 기념 특별선물
-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
- 불자님께는 천연백수정 합장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54법륜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행운과 그 인연으로 인해 원하는 계획이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세상사는 동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연법으로 한 사람의 좋은 인연의 만남으로 평생 인생이 바뀌는 것과 계획한 것이 쉽게 성공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원대한 불사계획을 가지고 계신 스님, 원대한 불사를 시작했으나 어려우신 분,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평생 인연의 짝을 찾고 계신 분, 건강이 나빠 인연의 의사를 만나고 싶은 분 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54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천연백수정 54염주 외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를 일반불자께는 천연백수정 손목합장주를 수입기념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사찰스님께는 20% 할인)
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자동차 사고예방의 영험! 생명을 보호하는 비방!



■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 스님께서 아끼는 불자에게 안전의 선물

차안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차를 종종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귀족여성들과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들에게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 서 목각으로 만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는 한명도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설화에 따르면 원효대사가 태종 무열왕의 딸 요석 공주에게 세상이 험하니 몸에 꼭 지니고 다니라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선물한것이 인연이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살인, 납치, 강간, 유괴, 실종, 하루에도 수백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등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을 하는 남편에게, 스님께서는 아끼는 불자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것이다.
1500년전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앞면에는 미륵반가사유상을 넣고 뒷면에는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옴"자와 백연화 넣었으며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다. 청동으로 제작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여성은 지갑속에 자동차는 운전석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45,000원.

문의(02)741-4488(사찰스님 20%할인)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71 예금주:(주)에이치비엠씨